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055-01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방안 마련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유 정 완

공동연구원 : 우 기 동

오 정 윤

이 병 태

우 대 식

연구조원 : 조 진 한

자문위원 : 도 정 일

김 민 응

차 례

I. 개요	1
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② 연구 내용 및 범위	3
③ 연구 결과	4
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 취지	5
① 취지 및 목표	5
② 근거 :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	10
I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 배경 및 방향	12
①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현황	12
②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확대 필요성	21
③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근거	22
④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방향	23
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단계 및 일정	24
IV.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	26
① 교육목표	26
② 교육방법	33
V.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육편제	35
① 교육과정	35
② 학위과정	37
③ 개방형 자유시민대학 학위인증	38
④ 교과편제	41
V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비전	50
① 사회적 역할 모색	50
V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 체계	55

① 운영 체계	55
VI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조직체계	55
① 조직 체계	55
② 조직 구성	57
IX. 성과 지표	61
① 성과 지표	61
X. 해외시민대학 현황 및 특징	63
① 해외사례개관 및 참고분석	63
② 독일 및 뮌헨 사례 분석	70
③ 국가별 개관	74
IX. 조례 제정	81
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81
붙임-1 조례 예시	84
붙임-2 시민력 향상과 제고를 위한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예시	89
붙임-3 교과별 프로그램 예시	138
붙임-4 '11년 뮌헨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자료	159
붙임-5 평생교육 관련 해외사례	176
붙임-6 시민사회단체 교육프로그램 사례	194
참고문헌	216

I 개 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기존 시민대학의 성공적 운영과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¹⁾>의 설립 필요성 대두

- (1) 현행 서울시민대학은 2012년도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도 시민청에서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서울’ 등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48개 강좌가 개설된 후, 2014년도에는 신설 ‘예술적 감수성’을 포함하여 64개 강좌로 확대되었음.
- (2) 더구나 2014년도에는 수강생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민청 교양강좌의 심화과정과 평생교육사, 체험학습지도사 등 전문가 역량강화 과정을 <은평학습장>에 개설함으로써 강좌 구성을 다양화하게 되었음.
- (3) 특히 시민대학의 권역별 확대를 위해 2013년도 하반기에 경희대, 성공회대, 이화여대에서 대학의 특성을 살린 강좌를 개설하였고, 2014년도에는 위의 3개 대학을 포함하여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확대하여 총 9개 대학에서 서울시민대학 권역별 대학 연계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음.
- (4) 이런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되어 기존 강좌의 확대 필요성은 물론 강남의 제2시민청에서도 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하기에 이룸.
- (5) 따라서 현행 서울시민대학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해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이 요청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립계획·운영계획 수립 필요

- (1)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 필요성에 발맞추어 대학의 추진 배경을 정리하여 조례 제정 등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독일 뮌헨 시민대학 등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 체계를 선진적·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3) 아울러 그 동안의 시민대학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실질적·

1)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명칭이며 이하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명기 함.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의 새로운 정립

- (1) 서울자유시민대학을 개방형의 성격에 맞게 시민의 성장과 시민의 사회의 성숙을 동시에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 (2) 1차적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맞는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교과 과정을 도입하여 서울시 전역이 입체적 교육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체계의 확립 필요

- (1)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활 방식이 지배해 온 관계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 볼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렸음. 최근 인문학 교육을 비롯한 평생학습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2) 이런 시점에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모색·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시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사회를 위한 시민력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음. 시민력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책임을 다하는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음.
- (4)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바로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력을 제고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연구 내용 및 범위

○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현황 분석

-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강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과 구성 등에 활용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력을 제고하는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 방향

- (1) 평생교육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학사, 석사, 박사 등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을 개발함.
- (2) 서울시 전역에 시민대학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고, 수료생들을 위한 사회진출을 모색하는 출구 전략도 마련하고자 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시스템

- (1) 현행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2)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 독일의 뮌헨시민대학 형식의 비학위 평생교육체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안을 만들고자 함.

○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사회적 역할

- (1)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두 방향에서 정립하고자 함. 첫째, 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성찰적 삶, 공동체적 삶을 고민하고 시민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함.
- (2) 시민대학의 수료생들이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을 이수했을 때,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삶을 새롭게 기획하고 재설계하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해외 사례

- (1)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체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체계와 교과 과정에 원용하고자 함.

(2) 덴마크, 독일, 미국 등 몇몇 해외 사례는 오랜 경험 가운데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함.

3 연구 결과

- 평생교육의 시민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의 이론적 토대
 - 본 연구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력을 제고하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성찰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일구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본 연구는 개인적 행복과 공동선의 추구라는 인간 삶의 이중적 목표를 한편에서는 성찰적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 공동체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시민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양성
 -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시민 누구나 필요와 소임에 따라 삶을 기획하고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기관이라고 한다면, 시민대학의 교육 내용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과 덕목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 지향은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시민적 능력과 덕목을 길러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 양성에 있음.

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 취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다

나를 깨운다는 것은 인문학적 성찰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시민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평생학습은 시민력(市民力)의 향상을 지향한다.
시민력의 향상은 인간화의 시대를 열어간다

1 취지 및 목표

□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양성

○ 인문학적 성찰: 인문 교양교육을 통한 성찰적 시민의식 함양

(1) 인문학적 성찰은 성찰적 시민의식을 갖춘 교양인의 필수 교육과정이고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음.

(2) 이론적 근거1: 흔히 교양이란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훌륭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희랍 철학(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도 교양인은 인간의 ‘훌륭함(aretē, 아레테)’을 실현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교양은 우리 인간의 ‘일생동안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매튜 아널드(Matthew Arnold, 1822-1888)의 말마따나 교양은 ‘완성을 향한 공부’이며, ‘자기완성을 향한 인류의 총동’이다.

(3) 이론적 근거2: 성찰적 교양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지님.

- 자신의 지적 윤리적 심미적 상승을 부단히 시도하는 인간

-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능력을 키우는 인간
 - 인류사회와 연대하고 문화세계를 추구하며 정의와 결속하는 인간
 - 문명을 만들고 문명을 성찰하면서 지구문명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인간
- ▶ 따라서 시민대학의 인문학적 성찰 교육의 기본 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에 있고, 최종목표는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이라 할 수 있음.

○ 시민 민주주의: 사회 교양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강화

- (1) 시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과정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회 교양교육이라 할 수 있음.
- (2) 이론적 근거1: 권력이 미디어와 결합하여 사건과 여론을 조작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이와 같은 기만적 현실에 놓여 있다면,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욱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목도하는 현실이라면, 경제적 물질의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선동적 정치를 일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라면, 오로지 경쟁된 소수의 승리자만을 위한 정책이 난무하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가 실종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시민이 망각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 (3) 이론적 근거2: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명하고 실현하고 지키는 건설자이며 운영자이고 파수꾼이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 어떤 기구,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실천적 활동(운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시민은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책임’도 떠맡아야 한다. 시민대학에서의 시민 민주주의 교육은 이러한 성숙한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 따라서 시민대학에서 시민 민주주의의 교육 목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음.

○ 공동체적 삶: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

(1) 시민대학의 교육 과정은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아리스토텔레스 표현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을 터득하게 함.

(2) 이론적 근거1: 존재세계(자연,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교양을 갖추고 교양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며 사회적으로는 합리성과 진보를 촉진하는 공동체적 역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폭넓은 일련의 정신적 기량과 습관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협력과정’이라 하고, 지적 윤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개인적 만족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한다.

(3) 이론적 근거2: 공동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의 덕목

-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
-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

▸ 따라서 시민대학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성찰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민력 제고: 민주사회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양성

(1) 시민대학은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과정임.

(2) 이론적 근거1: 시민이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될 때, 그 사회는 시민의 품격이 살아있는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참여의 권리와 책임’이 바로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3) 이론적 근거2: 덴마크의 국민대학(folk high school)운동을 주도했던 그룬트비히는 “만일 국민들이 무지하여 정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거에 관

한 권한과 의무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민교육을 제일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이 일정한 궤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학교의 제도 교육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룬트비히의 국민대학운동은 마을마다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학습력을 키웠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힘이 오늘날 북유럽의 대표적인 민주적 복지국가 덴마크를 건설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자료집), 2010, 참조).

- 따라서 시민대학의 교육은 참여의 권리를 실질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인식하는 민주시민의 시민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시민: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

- (1) 시민대학의 교육 과정은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구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임을 체득하게 함.
- (2) 이론적 근거1: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슈바이처의 삶을 보고, 또 수단 남부 톤즈 지역에서 한평생 봉사하며 살았던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의 삶의 빛과 향기에 탄복한다. 인간의 따뜻함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미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임이 근거에 깔려 있다. 오늘날 세계사회의 특징은 말 그대로 세계화, 글로벌, 지구촌, 지구화이다.
- (3) 이론적 근거2: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문명은 문명 간의 대화와 공존, 타자와의 공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빈곤, 전쟁, 기후, 생태환경의 심각한 형평성의 상실 등의 문제는 이미 특정 국가의 특수한 문제 아니다. 그래서 공존의 윤리는 지구촌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민’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시민은 근대적 시민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구적 거버넌스의 요청을 수행할 시민의 덕목(공감, 나눔, 참여, 연대)을 갖춘 존재이다. 지구적 차원의 공정과 정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세계공화국의 의제까지 등장한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시민대학의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의 양성을 소홀히 할 수 없다.

▸ 따라서 시민대학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중요한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시민학습권 보장)

-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체육(스포츠) 여가와 취미 등 시민행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치지향적 지식 제공
- 인생기획 및 재설계(삶의 기획자, 디자이너), 타인과의 관계 설계, 사회 설계, 일자리 설계(미래형 능력 구성) 등을 위한 교육 과정 구성
- 사회계층, 경제적 수준,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 등과는 무관하게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교육의 장 마련
- 서울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민대학 공간으로 구성
- 거리장벽을 없애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 속 평생학습 실현

□ 서울시 모든 지역을 위한 교육

-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평생교육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 교육환경 활성화
- 시민력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잠재력 향상

2 근거 :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

○ 산업화 이후 잃어버린 성찰적 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회복 요구

- (1)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성장과 발전은 오늘날과 같은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투기의식, 빈부 격차, 건전한 노동의식의 상실 등의 역사적 원인과 과정은 분명하다. 문제는 재산과 소유, 노동의 의미 등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합리적 제도를 확립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 (2) 이에 우리 사회는 인문학적 성찰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찰하는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경제적 물질적 가치 중심의 경쟁의식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의 형성

- (1)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물질적 가치를 숭배하고 권력의존적 관계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물질적 가치의 숭배는 인간을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몰아넣었고, 권력의존적 관계는 비도덕적이고 부정직한 뒷거래의 사회적 관계를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온 우리의 공동체적 의식을 말살해 왔다. 정신적 가치는 도덕적 규범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적 의식일 수도 있다.
- (2) 물질적 가치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여 공동체적 의식을 회복하는 인문학적 성찰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걸맞은 시민윤리 의식의 확립 요구

- (1) 간단없는 민주화 운동과 그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사회 운동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 질서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제도 정치권의 민주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우리 사회도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최고의 가치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식이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인간의 존엄성, 인권,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 평등 등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작동 원리여야 하며, 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운용되는 '참여적 자치'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
- (3)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 의사소통망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성과들이 제도적 장치에 반영되는 체제가 민주적인 사회체제이다. 이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밑받침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소통 역량이며, 이것은 인문 정신적 성찰과 비판 능력에 기반을 둔다. 상이한 견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갈등관계로 충돌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와 소양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 (4) 이것은 시민사회의 윤리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I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 배경 및 방향

1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현황

-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 운영
 - (1) 2012년 6월 이후 네트워크 위원회(7명) 50여회 차 진행
 - (2) 시민대학 운영모델 및 시민청 교육과정 개발
 - (3) 은평학습장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 (4) 평생교육 관련한 제반 사항 논의
 - (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 절차 등 검토

○ 서울시민대학 운영실적('11년~'13년)

운영사업	분 야	2011		2012		2013	
		강좌수	인원	강좌수	인원	강좌수	인원
	계	178	4,212	195	4,405	288	9,290
시립대 시민대학	서울학, 자치시민, 외국어 등 기초교양 위주 강좌	178	4,212	195	4,405	212	4,949
시민청 시민대학	인문학적 성찰, 시민 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2013년 개원				65	3,967
권역별 시민대학	후마니타스 인문학 - 경희대 여성 인문학 - 이화여대 인권 인문학 - 성공회대	2013년 개원				11	374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평생교육사 역량강화교육 현장체험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시민대학 심화교육	2014년 개원					

시민청 시민대학 제1기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 개 요

- 강좌기간 : 2013. 1. 22(화) ~ 5. 2(목)
- 대 상 : 24개 강좌, 학습자 1,430명 (응답자 593명)
- 방 법 : 시민대학 1기 각 차시별 수강생 서면 설문
※ 2013년 2월 ~ 5월 (기간 중 3회 실시)

□ 주요 설문 항목

- 학습자 일반적 특성 6문항
- 강의환경, 프로그램 전반 및 강의효과, 강사평가 9문항
- 차후 개설희망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자유의견 개진 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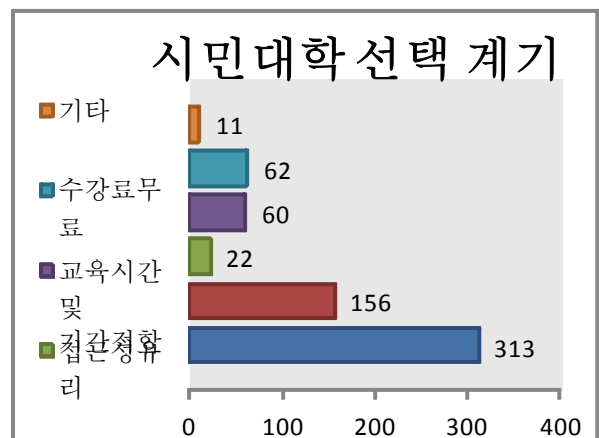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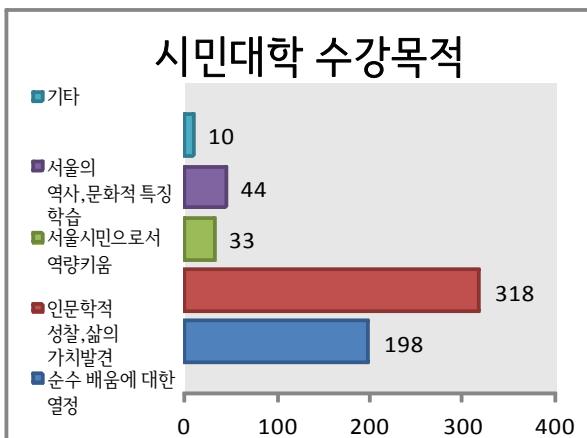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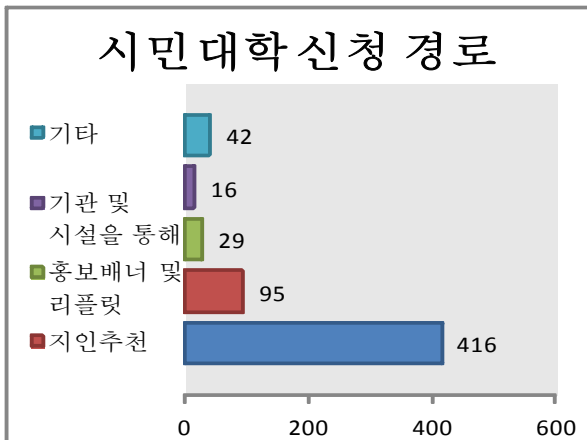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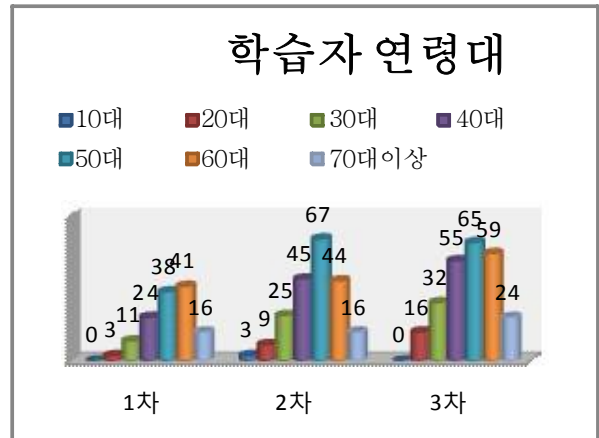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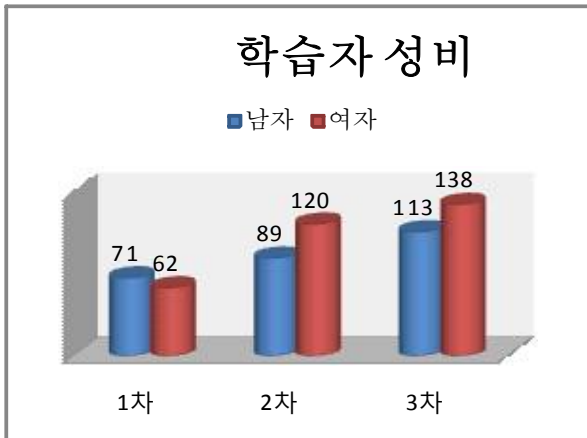
□ 설문결과

< 총 평 >

- 응답자 593명 중 여성 320명(54%), 남성 273명(46%)
- 학습자의 연령대는 40-60대 비중이 71%로 중장년층의 학습자가 다수였으나 20-30대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시민대학에 참여함을 알 수 있음
- 시민대학 강좌를 알게 된 경로는 평생학습포털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70%로 가장 높으며, 시민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한 신뢰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음.
- 강의환경, 프로그램 전반 및 강의효과, 강사평가에 대해 88%이상이 『그렇다』응답, 『보통이하』 13% 가 응답하였음
- 개선사항 및 의견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정보 및 인문, 고전에 대해 원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시민대학의 알찬강좌에 많이 놀랐다’, ‘앞으로 중단없이 계속 운영해 줬으면 한다’, ‘지식보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내용 및 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함

[1기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6 강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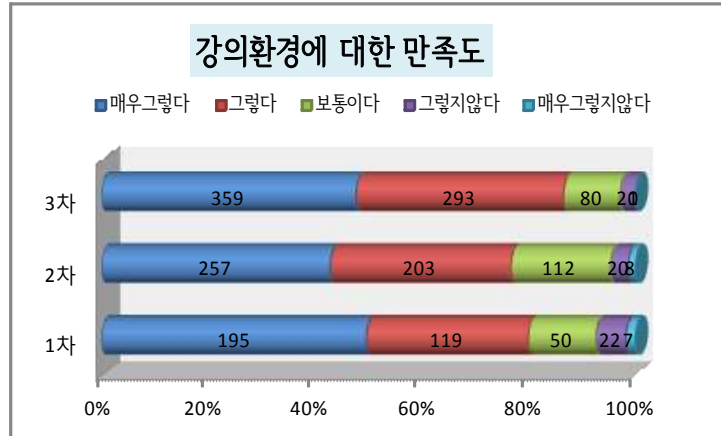
○ 강의환경. 프로그램 전반 및 강의효과, 강사평가종합한 결과
그렇다 이상 88%, 보통 이하 13%

① 강의환경 (3문항)

적절한수강인원(60명 기준),

교육장소, 학습상담

- 그렇다 이상 82%
- 보통 이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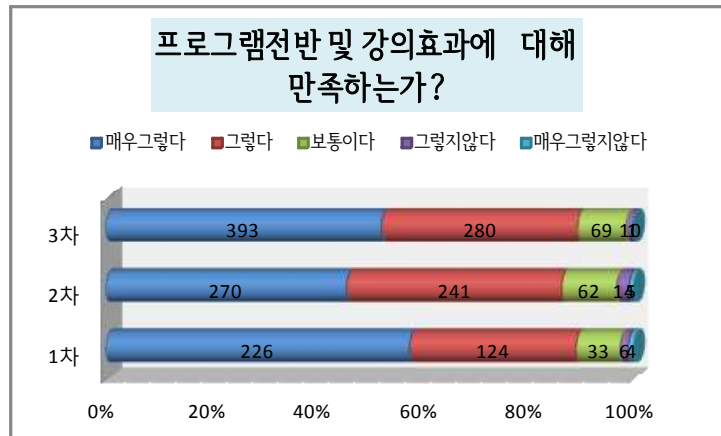
② 프로그램 전반, 강의효과 (3문항)

커리큘럼 구성의 적절성

배우기 기대한 내용인가?

수업내용의 가치

- 그렇다 이상 88%
- 보통 이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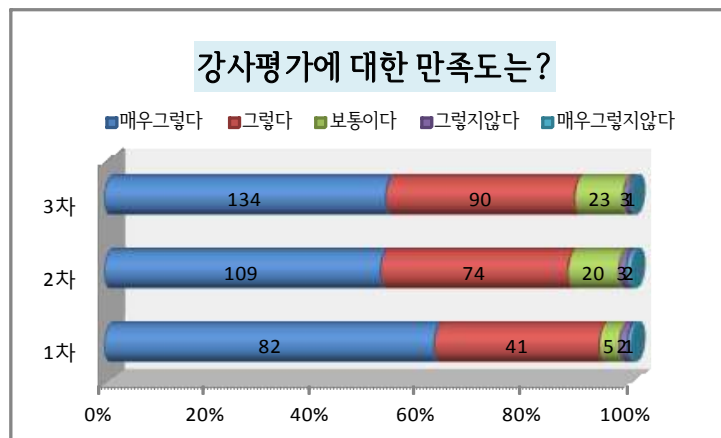
③ 강사평가 (3문항)

수업준비의 성실성, 열정

학습자 의욕고취, 참여의도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 그렇다 이상 93%
- 보통 이하 7%



□ 기타 개선의견 및 제안사항

○ 강좌 운영

- (1) 무료강의 지속적으로 유지
- (2) 수업시간 장시간 동영상 시청 자제요청 ex)30분 이상
- (3) 다양한 시간대 및 요일, 기간(10주~12주) 요청

○ 강좌 추가 개설 희망 강좌

(1) 인문 · 고전에 대한 정보

- 예절 강의
- 근현대사 강의 및 국사와 세계사 강좌, 고전을 통한 시대상 읽기
- 동서양, 철학사, 중문학, 중국문화, 미술사(한국, 서양), 음악사
- 풍수지리, 역학, 시사강좌, 정치철학 등

(2)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

- 음악, 미술, 사진, 시문학, 디자인, 관광 등 다양한 강좌 개설요청
- 뮤지컬 및 오페라에 대한 이해, 시에 대한 이해 등

(3) 기 타

- 자녀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 및 청년을 위한 강의
- 힐링 또는 상담 관련한 심리 치료 강의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은퇴설계 준비 및 건강한 삶을 위한 강의

○ 재개설 희망 강좌

- (1) 나와 타인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1기 1차)
- (2) 인간적인 도시는 가능한가? (1기 2차)
- (3) 동화, 그저 아이들의 이야기일까? (1기 2차)
- (4) 무엇을 원하는가? (1기 2차)

- (5) 우리는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1기 3차)
- (6) 우리에게 세계와 동아시아는 무엇인가? (1기 3차) 등

<시민청 시민대학 2기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 개 요

- 강좌기간 : 2013. 5. 9(목) ~ 7. 23(목)
- 대 상 : 16개 강좌, 학습자 935명 (응답자 459명)
- 방 법 : 시민대학 2기 각 차시별 수강생 서면 설문

□ 주요 설문항목

- 학습자 일반적 특성 6문항
- 강의환경, 프로그램 전반 및 강의효과, 강사평가, 종합평가 10문항
- 신규, 재수강 학습자 구분 1문항, 기존학습자 수강과목 수 1문항
- 차후 개설희망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자유의견 개진 문항

□ 설문결과

- 응답자 459명 중 ‘여성’의 비율은 56%(256명), ‘남성’은 44%(203명)
- 학습자의 연령대는 40~60대 비중이 79%로 중장년층의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함. 20-30대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연령층이 시민대학에 참여함을 알 수 있음.
- 시민대학 참여현황은 ‘기존학습자’가 51%, ‘신규학습자’가 49%차지함.
- 시민대학 강좌를 알게 된 경로는 평생학습포털 및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70%로 가장 높으며, 시민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한 신뢰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음.
- ‘강의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이상이 79%, ‘프로그램전반 및 강의효과’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이 86%, ‘강사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이 89%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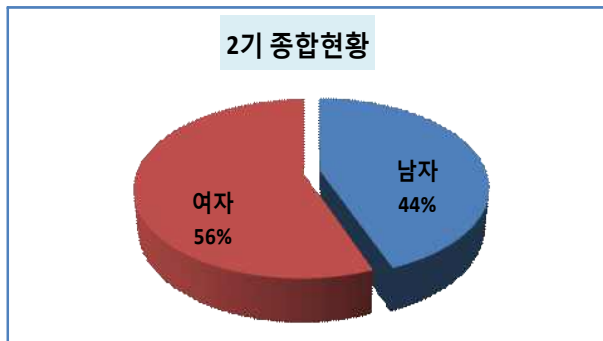
하였음. '종합만족도'는 89%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개선사항 및 의견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정보 및 인문, 고전에 대해 원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 주어서 감사함',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한 내용 및 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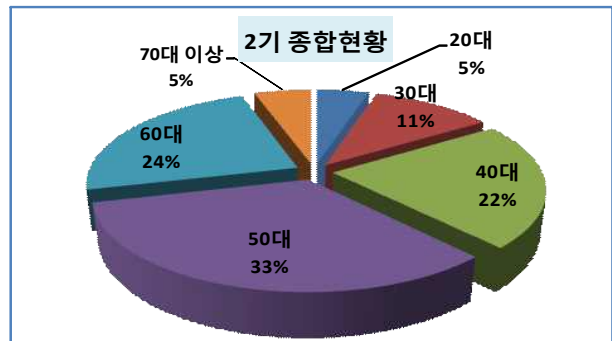
[2기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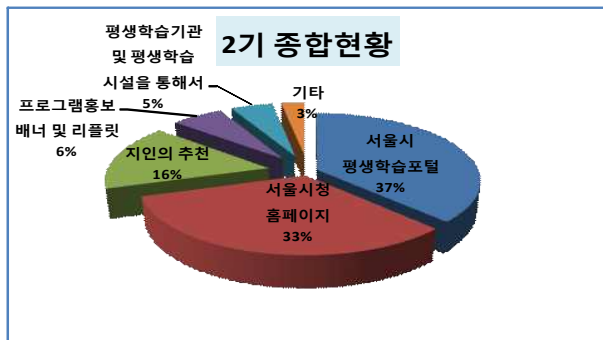
[학습자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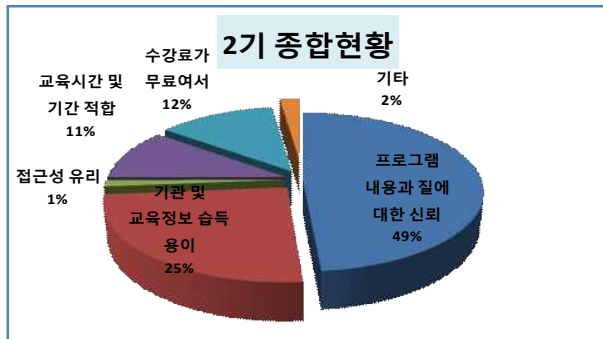
[학습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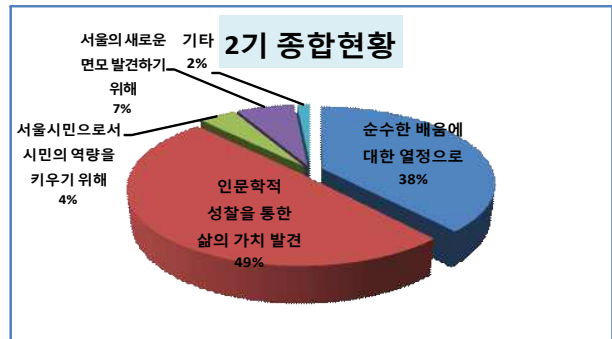
[강좌수강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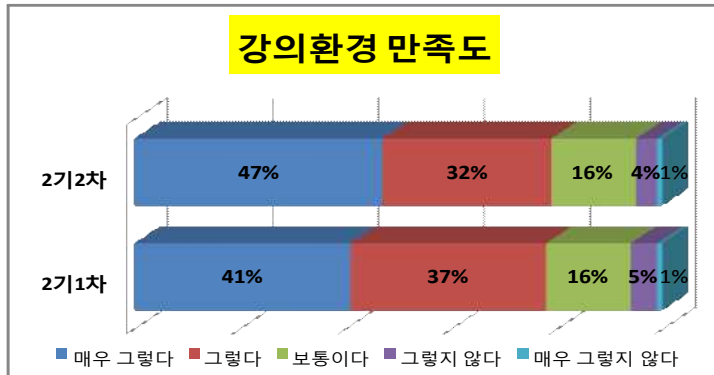
[강좌수강 목적]



[강좌선택 이유]



□ 강의 만족도



① 강의환경 (3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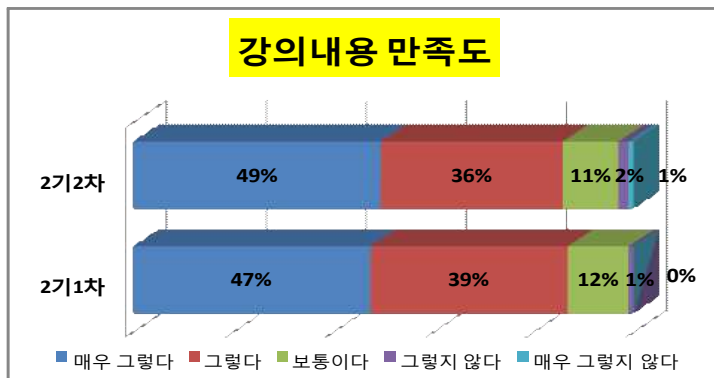
적절한수강인원(60명 기준)

교육장소 만족도

학습상담 만족도

- '그렇다' 이상 79%

- '보통' 이하 21%



② 프로그램 전반, 강의효과 (3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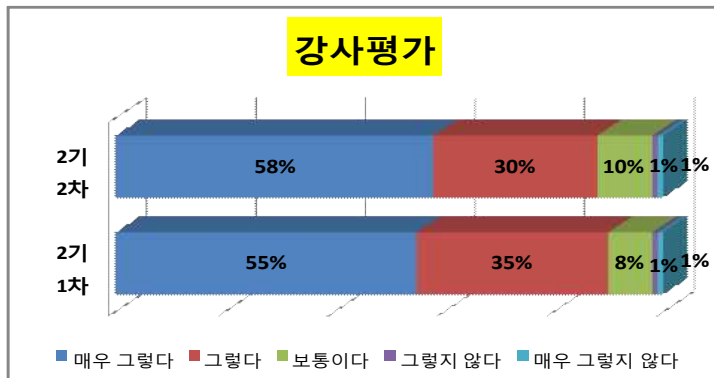
커리큘럼 구성의 적절성

배우기 기대한 내용인가?

수업내용의 가치

- '그렇다' 이상 86%

- '보통' 이하 14%



③ 강사평가 (3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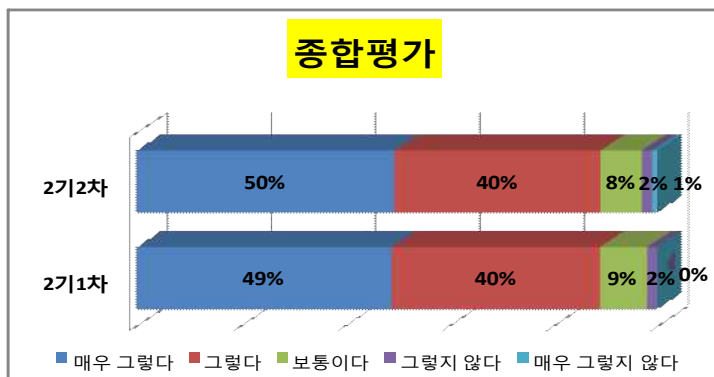
수업준비의 성실성, 열정

학습자 의욕고취, 참여의도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 '그렇다' 이상 89%

- '보통' 이하 11%



④ 종합만족도 평가

- '그렇다' 이상 89%

- '보통' 이하 11%

□ 추가개설요청 프로그램 및 기타의견

○ 추가개설 요청 프로그램

- (1) 중년, 노년의 삶에 대한 강좌, 노년설계 강좌, 은퇴 후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 인생설계, 건강하게 사는 법, 실버세대를 위한 강좌
- (2) 미래학, 경제학, 경제사, 사회변화강좌, 고령자를 위한 교양.시사강좌
- (3) 문화재, 우리나라 궁에 관한 강좌, 서울궁과 관련된 강좌, 서울의 길 이름 역사, 궁중생활, 조선의 역사
- (4) 대중음악론, 클래식음악.미술과 연계된 강좌
- (5) 미술이론, 미술과 함께하는 철학이야기, 미술작품 해설 강좌, 인도·이슬람·일본 미술
- (6) 힐링, 명상프로그램, 자아 찾기 프로그램, 탈무드 스토리를 통한 삶 생각해보기,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한 정신문화 강좌, 자존감 키우기 강좌, 명상프로그램, 심리학, 소통하는 법에 대한 강좌, 인간의 심리와 색채, 연극치료 강좌
- (7) 고전, 사마천의 '사기', 우리나라 역사, 중국고전강좌, 세계사, 인문고전, 역사 바르게 알기, 한국역사 사기열전, 동서양의 중요문화사 흐름, 동양철학, 서양철학, 이슬람의 역사, 근대사, 논어, 사서삼경, 영화로 보는 철학 강좌
- (8) 세계유명인사의 사상과 철학, 18C서양철학자들의 이야기,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는 과정
- (9) 한시 해설 강좌, 독서법, 독서토론, 책읽기(독서법), 초보글쓰기 강좌
- (10) 협동조합 및 복지제도 발전 방향 및 NGO활동에 대한 강좌, 평등과 불평등 강좌
- (11) 세계경제문제, 환경(후쿠시마), 인종, 다문화 관련 강좌 등
- (12) 불교 철학 강좌, 비교종교학 등 종교론
- (13) 말하기 연습강좌, 스토리텔링 강좌
- (14) 취업건강과 관련된 인문학 강좌, 일자리 연계과정, 자격증 취득강좌
- (15) 국내도보여행가 초청강좌(한비아)
- (16) 마을공동체 활성화 강좌
- (17) 다문화과정에서 전통문화예절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강좌
- (18) 시간관리, 생활풍수

○ 기타의견

- (1)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음.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함. 앞으로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음. 시민대학 강좌를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음.
- (2) 대학에서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주어서 감사함
- (3) 서울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꼈고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 감사함

2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확대 필요성**

□ **교육적 측면**

○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대안형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성과와 수강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장기 비전을 설계할 필요

-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확대 과정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성찰적 삶과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방식을 가꿀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전면화하는 체계적인 시민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청됨.

○ 시민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평생교육의 의미와 혜택을 실질적으로 혁신할 필요

- (1) 삶(의미, 보람, 성찰, 욕망, 행복), 관계(나눔, 소통, 믿음, 갈등과 조화, 자유와 책임), 공동체 사회(나, 너, 우리, 감동과 감흥, 관용, 공감, 공존) 등에 관한 학습과 실천(나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 창조적인 삶)을 망라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삶의 방식을 새롭게 기획하여 사회적 역할과 진출을 모색하고, 그러한 사회적 역할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요청됨.

□ 현실적 측면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 및 시민적 요구 대두
- 인간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력의 향상 필요
- 공동체적 삶을 위한 민주적 시민교육의 요청
-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시민대학 시스템의 필요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부캠퍼스와 다양한 네트워크형 시민대학의 입체적 구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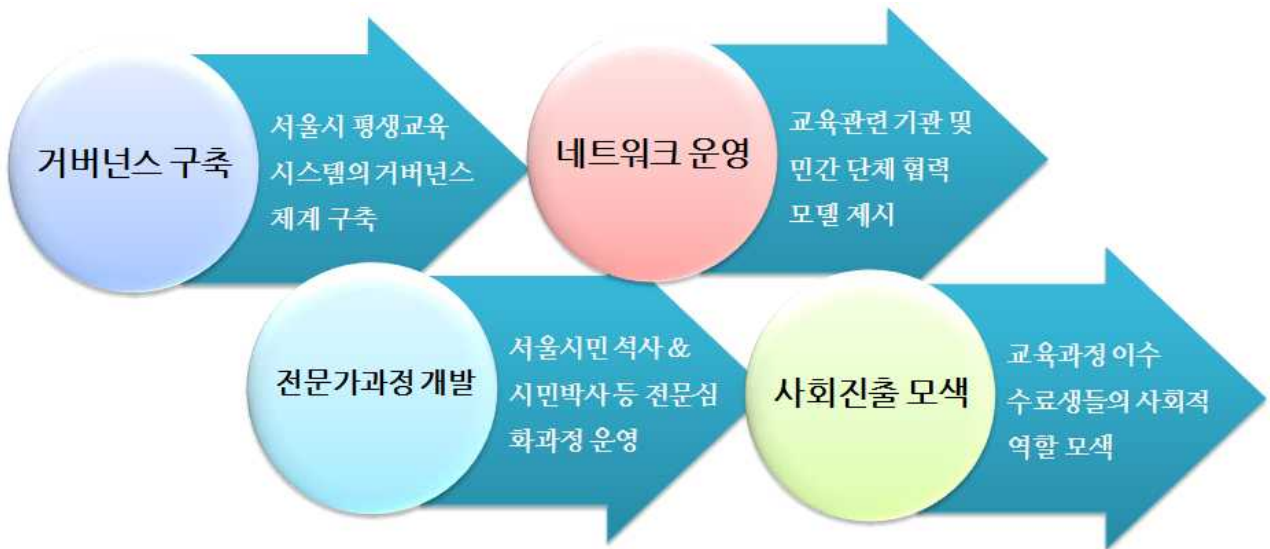
③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근거

□ 관련 법령과 조례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교육과정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5조(교육과정 개설 등)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조례」제6조(부모학습의 내용 등)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등)

4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방향

□ 핵심 추진방향



□ 세부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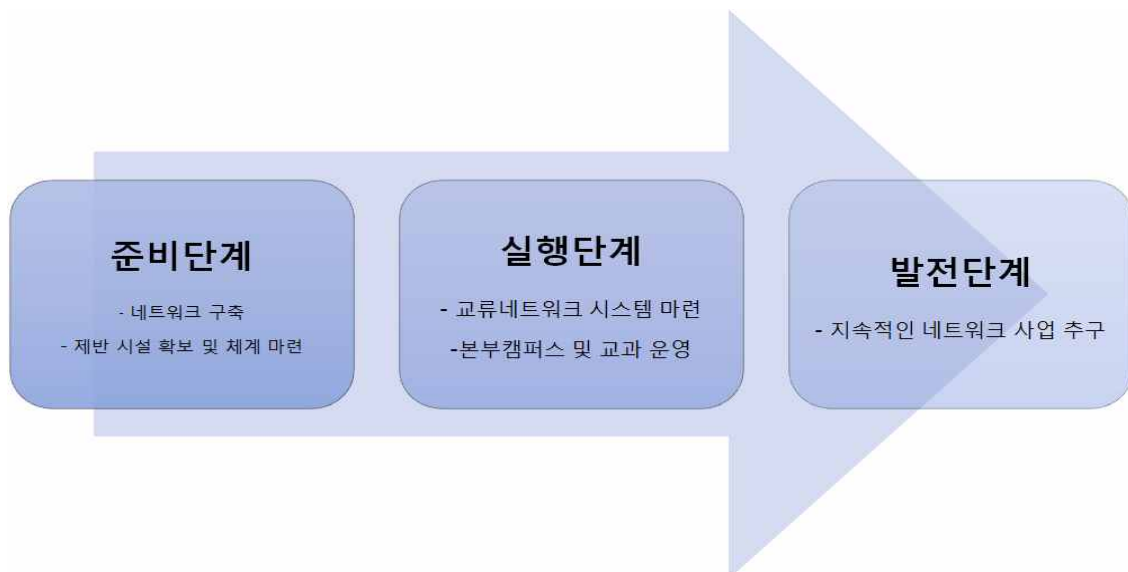
-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하여 운영함.
 - 미국 커뮤니티칼리지, 독일 뮌헨시민대학 등 선진적 평생교육 형식의 비학위 교육 체계를 도입함.
- 현행 서울시민대학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교양 및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의 일정한 시수(학점)을 이수할 경우,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함.
- 서울시 전역을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체계로 구축함.
 - 시민청, 제2시민청, 은평학습장, 권역별 시민대학, 대학연계 시민대학, 도서관, 시민사회 교육단체, 종교단체, 자치구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시스템을 마련함.

- 서울자유시민대학 수료생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을 마련함.
 - 시민의회, 시민위원회, 시민옴부즈만 등 참여형 시민의 모델을 창출함.
 - 마을교육, 직업교육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형 시민의 모델을 창출함.

5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추진단계 및 일정

□ 추진단계



○ 준비단계

(1)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 구축

- 시민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시스템 마련
-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체계 구축

(2) 시민대학 제반시설 확보 및 대학협의회 구성

- 시민대학으로 활용한 가능한 건물과 학습장 등 제반시설 확보를 위한 로드맵 구상
- 권역별 대학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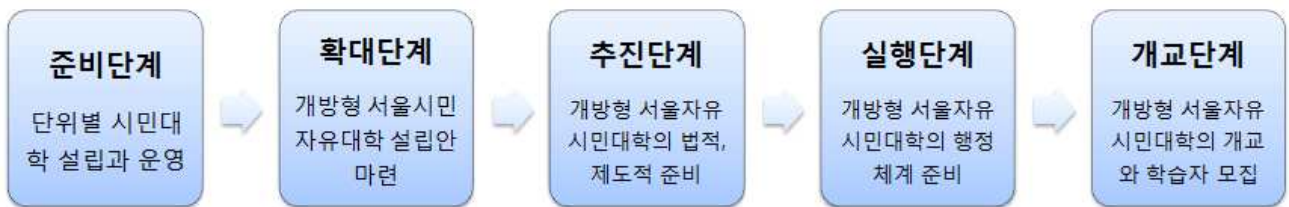
○ 실행단계

- (1) 프로그램 구성 및 자원 교류 네트워크 마련
- (2)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및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

○ 발전단계

-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정착 및 활성화

□ 추진일정 : 서울자유시민대학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



<서울자유시민대학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	내용	세부일정
준비단계	단위별 시민대학 설립과 운영	- 2012년, 서울시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위원회 구성 - 2013년, 시민청 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설립운영
확대단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술용역	- 2013-2014년, 시민대학 확대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경희대 후마니타스 컬리지) - 2014년,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구성
추진단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법적, 제도적 준비	- 2015년 전반기,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 인적구성은 위원 5명+2명, 소위원 각 3-5인정도 - 업무추진 용역발주 형태로 예산, 조직, 규모 등의 준비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서울시민학습헌장의 제정
실행단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행정체계 준비	- 2015년 후반기, 실질적으로 설립을 준비하는 실무진 중심의 구성 - 본교캠퍼스 공간입주, 교과목 편성, 교수-강사진, 실무운영진 구성 등
개교단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개교와 학습자 모집	- 2015년 12월-2016년 2월, 학습자 모집, 교수-강사진 워크숍, 제반 행정업무 완비 - 학습자 모집을 위한 홍보, 서류, 조직구성 완비

※ 2015년 1월 현재, 확대단계에서 추진단계로 전환 중

IV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

1 교육목표

○ 교육목표의 개요

- (1) 산업화 이후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인간으로서 근원적 성찰의 자세를 상실해 왔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일부 대학에서 인간의 성찰적 삶의 문제를 교양교육의 핵심으로 놓고 교과과정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성찰적 삶의 자세는 삶과 죽음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조건인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 (2) ‘삶과 죽음에 관한 물음’,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한편에서는 인간 자신이 마주하는 존재 세계(자연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법칙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핵심 분야인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이성에 의한 반성과 성찰의 학문이기도 하다.
- (3)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삶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교양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시민대학의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4) 이를 바탕으로 시민대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양성’과 ‘시민력 제고’라는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그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양성

- (1) 인문 교양교육을 통한 성찰적 시민의식 함양(인문학적 성찰)
- (2) 사회 교양교육을 통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강화(시민민주주의)
- (3) 공동체적 삶을 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
- (4) 민주사회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력 제고
- (5)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

※ 이론적 근거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Not For Profit]

이런 나라, 이런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누스바움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시민의 능력과 자질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사 누스바움, 2011: 57-58).

- 전통에도 권위에도 판단을 맡기지 않으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검토·성찰·주장·논쟁할 수 있는 능력
- 인종·종교·젠더·섹슈얼리티가 다르더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들을 존중하며, 한 사람·조직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조작되어야 마땅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 특정 종류의 많은 정책이 동료 시민의 기회나 경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정책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밖의 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한 인간의 삶의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제대로 상상할 줄 아는 능력. 그저 합계 데이터에 의존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가족 관계, 병, 죽음, 그 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 정치 지도자들에게 허용되는 가능성을 보는 현실적이고 지적인 감각과 더불어 그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지역 집단에게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가에 이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 반대로 자신의 조국을 (많은 종류의 이슈들이 그 해결을 위해 초국적 차원의 지적 숙고가 요청되는) 복잡한 세계 질서의 일부로 인식 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마사 누스바움은 예술과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색 능력과 타인의 입장에 서서 공감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 등을 갖춘 시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대학’(가칭)의 시대적·사회적·교육적 존재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론가로서는 페스탈로찌와 듀이, 타고르를, 그리고 교육방법론으로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지난 4년 동안 시행해 온 ‘희망의 인문학’과 연결지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특히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와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의 이론적·실천적 근거인 얼 쇼리스(Earl Shorris)의 교육철학과 방법론 비교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민대학’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는다.

○ 오늘날 교육을 지탱하는 네 가지 핵심 교육이념

교육이념	내용
플라톤의 『공화국』	귀족 계급에게 철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울어 가는 아테네를 구하려 한 국가사회주의 교육이념을 표명
루소의 『에밀』	인간을 타락한 절대주의 사회체제에서 해방시켜 자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자가 순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려 한 근대 시민국가의 교육이념을 표명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개인과 사회와의 협동을 통하여 개성의 실현과 사회의 진보를 함께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교육이념을 표명
페스탈로찌의 『게르트루트의 자녀교육법』	하층과 중산층 자녀의 철저한 기초교육을 통하여 일반대중의 교육을 보급하려했던 ‘평민(민중, 국민)교육(Volksbildung)이념’을 표명

이 네 가지 교육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스탈로찌의 ‘평민교육(혹은 민중교육, 국민교육)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참된 교육 없이는 플라톤이 의도한 이상국가의 재건, 루소가 의도한 자유 시민교육, 듀이가 의도한 지역사회교육도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정환, 2007: 2).

○ 시민력의 제고

(1) 시민력의 의미

- 시민력이란 스스로 성찰하여 올바른 삶의 가치체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힘을 말한다.



-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민
-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
- 참여하고 생산하는 시민

(2) 시민력을 갖추기 위한 시민의 덕목 : 자율성, 책임감, 관용



- 시민대학에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교육과정은 시민적 덕목(혹은 덕성, civic virtue)에서 출발해야 함.
- 시민력을 갖춘 시민의 첫 번째 덕목은 자율성이다. 자율성(autonomy)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주체적 사고와 판단’은 인간의 이성(logos)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율성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에 기반한다. 이렇게 볼 때 자율성은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즉 지적 능력과 성숙성을 요청한다.
- 시민력을 갖춘 시민의 두 번째 덕목은 책임감이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의 결

과’ 대한 책임이다. 우리는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나 일(사건, 사태, 현안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동’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 그 때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 ‘선택’과 ‘행동’은 나의 ‘자유’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누린 나의 책임이다. 자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자율적 주체는 곧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택과 행동의 자유는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 즉 윤리적 능력과 성숙성,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 즉 사회적 능력과 성숙성을 요청한다.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능력과 성숙 정도는 책임감의 무게와 사명으로 나타난다.
- 따라서 시민력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 두 번째 덕목이 당연히 선택과 행동의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임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 시민력을 갖춘 시민의 세 번째 덕목은 관용의 능력이다. 관용의 능력은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려는 능력,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 공존의 윤리를 지키려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 볼테르의 ‘관용의 가치’: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

(3) 시민력을 갖추기 위한 시민의 능력 : 성찰적 능력, 지적 능력, 윤리적 능력, 사회적 능력



- 성찰적 능력 : 마주한 문제, 정보, 사안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의문을 풀기 위해 타당성과 합리성을 찾아가는 사고 능력, 이 과정에서 지식 정보의 측면에서 되새겨 보고(인식론적 반성),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성찰하는(윤리적 반성) 사고 능력, 이러한 성찰적 사고과정의 내용은 자기비판의 용기와 능력, 사회적 관계와 세상일에 대한 합리적 분별력, 우주에 대한 경외심까지를 포함한다.
- 지적 능력 :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
- 윤리적 능력 :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이다.
- 사회적 능력 :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이다.

(4)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시민적 역량, 시민력에 달려 있다

- 시민력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해 책임질 줄 알며, 관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성찰적, 지적,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
- 시민의 덕목과 능력에 바탕을 둔 시민력은 ‘참여의 권리와 책임’, ‘생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의 건설자, 운영자, 파수꾼을 길러낸다. 이러한 시민력은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이기도 하고, 따라서 성숙한 시민 되기는 시민대학의 교육적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음.

(5) 시민력 향상과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목록

-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
 - <물음> :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 현실알기: 무엇이 문제인가?
 - 탐색하기: 문제의 경과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상상력 키우기: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계알기와 경험확장

<물음>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감: 그들은 누구인가?
- 신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통: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 연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공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 '더 나은 인간' - 자기변화

<물음> :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 앎: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삶: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 '더 나은 세계' - 미래문명 만들기

<물음> :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인간에 대한 책임: 관계 맺기, 나누기, 함께하기
- 사회에 대한 책임: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 변화시키기
- 역사에 대한 책임: 정의로운 민주사회 발전시키기
- 문명에 대한 책임: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 창조하기

※ 시민력과 시민대학

-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주체적 노력이 중요하다.
주체적 능력이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신이 몸담은 사회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성찰과 합리의 주체적 능력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품격 있는 삶의 방식,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 가치의 다양성 존중 등으로 나타난다.
-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 어떤 기구, 어떤 조직들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실천적 활동(운동)을 할 것인가? 민주사회에서 주체적 능력을 갖춘 시민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다.

- 시민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동시에 시민은 민주주의의 건설자이고 운영자이며 파수꾼이다.
그래서 시민은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지킬 '참여의 권리와 책임'이 있고, 또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가꾸어 나갈 '생산의 권리와 책임'도 있다.
시민적 존엄성은 바로 '참여와 생산'의 '권리와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 그리하여 주체적 능력을 갖춘 시민의 존엄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참여하여 서로서로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성원으로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발한다.
- 시민대학은 정보와 기술 습득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일이다.
- 시민대학은 시민들 각자의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제한 없이 주어져야 한다.
시민대학은 개방형이다. 기존의 제도교육과 학력에 의해 공부하는 기회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성찰적 능력과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활력을 서로 공유하는 현상이다.

2 교육방법

- 교수자의 자세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1)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 일방적 강의와 지식 습득이 전부가 아니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
 -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갖도록 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즉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파

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2) 통합적 교육방법

- 나의 삶의 문제와 사회(세상)의 문제를 하나로 통합한다.
- 학습자들의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전공/현업분야와 교육과정 간의 적절한 통합도 필요하다.
- 나·가족·이웃·지역·국가·세계가 만나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교육을 강조한다.

(3) 성찰적, 다원적 교육방법

- 실제적인 진리탐구는 공백, 모순, 갈등,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절대적인 진리라 없다. 우리 각자는 공백 앞에서 있는 탐색자이다.(파커 J. 파머)
-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거나 기존의 상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 아니다.
- 다양한 계층·이념·세대 간 만남과 대화, 성찰적 접근을 유도한다.

(4) 협력자, 촉진자로서의 교수

- 문제의식은 시민들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는 조력자 (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한다.
- 다양한 경험과 실패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칭찬과 용기가 큰 힘이 될 것이다.
- 질문과 입장표명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긍정성을 심어 준다.
- 지나친 기대나 다투기보다 애정과 사랑을 보여준다.

재미있으며, 창의적이고

나와 연관성 있는,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명료한 메시지를 통해 발상전환을 자극하며

관심과 흥미를 견인하고 실천적 행동을 유도한다.

○ 교수자 협조사항

교수자의 양심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교수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공동보조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수강생 시민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에 주의하여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시민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생 시민들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강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공공화하는 과정은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방식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강생 시민 상호간에, 교수와 수강생 시민 사이에 신뢰와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교육자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 주십시오.

○ 강사 선정 : 선정기준 마련, 추천, 심사, 선정

V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편제

1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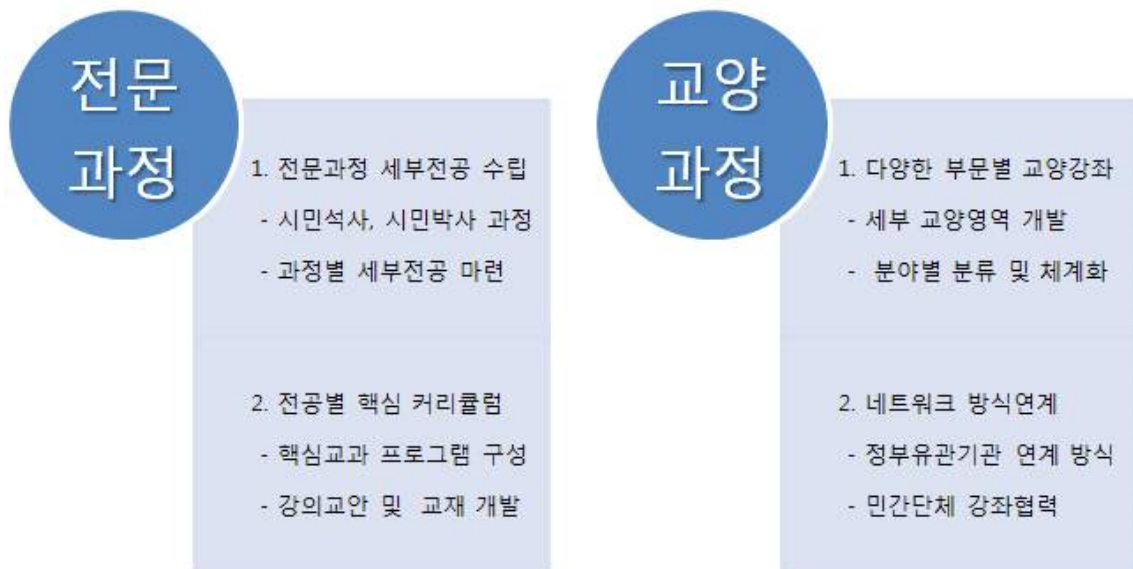
□ 교과과정의 목표

- 지성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대응 하는 능력 배양
- 기존의 분과 학문체계에서 벗어난, 과감한 융합형 사고 훈련
-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도시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능력 증대

□ 교과과정의 원칙

- 각 강좌는 기본적으로 1인 1강 체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두세 명이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모색
- 서울시 산하기관과 시민활동 현장 등 다양한 영역들을 학습 자원으로 연계하여 생동감 있는 학습과 실행의 순환 고리 생성
- 수강생들을 사이에 긴밀한 팀워크를 통한 협동 학습을 유도하는 워크숍을 활성화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 교과 과목 개설



○ 전문과정 커리큘럼

- (1) 시민석사와 시민박사 과정을 위한 전공별 커리큘럼 개설
- (2) 기존의 학문분야 체계를 벗어난 융합형 전공 운영

○ 교양과정 커리큘럼

- (1) 기존 운영 강좌와 관련 유관기관 협력

(2)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과목 개설 및 지원

2 학위과정

○ 학위과정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	------	------

- (1)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교육의 목표설정
- (2)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동기부여
- (3) 인생의 보람과 목표를 이루는 성취욕 고취
- (4) 예측가능 한 교육설계와 생애설계

○ 학위과정의 내용

학위구분	학위과정별 이수조건 및 과정내용	
시민학사	- 취득대상 : 시민 학습자 모두에게 해당 - 수료조건 : 1년이상 소정의 학점 이수자(140학점)	
시민석사	- 시민학사 수료자 해당 - 학술분야와 기술분야 - 학과 없이 주제별 융복합	- 시민학사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학습 분야 - 학술분야와 기술분야로 2원 운영
시민박사		- 시민석사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평생학습 분야 - 학술분야와 기술분야로 2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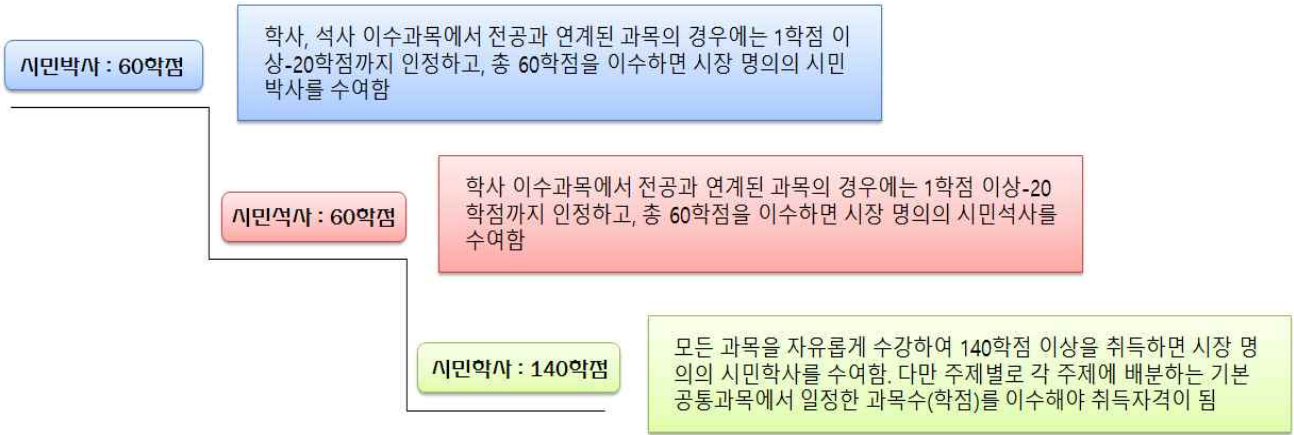
※ 학위과정의 이수학점, 이수과목 등에 관해서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조례 제정 후, 교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임.

○ 학위수여

- 서울특별시시장 명의의 학위 수여

3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의 학위인증

○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의 학위인증



(1) 시민학사

- 교육과정 140학점 이상 취득, 취득년수는 제한 없음
- 6개 분야에서 개인별 전공분야 선택, 25학점 필수 이수
- 교양필수는 선호 및 편식을 지양, 5개 분야에서 각 10학점 이상 이수
- 자유선택은 전공 25학점, 필수 50학점 이외에 자유 수강

개설분야	민주시민	인문학	서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환경생활
개설학점	50학점	50학점	50학점	50학점	50학점	50학점
전공학점	전공분야의 과목은 25학점 필수 이수					
교양필수	전공이외 분야에서 각 분야당 10학점 이상 이수					
자유선택	전공 25학점+필수이수 50학점 이외는 자유 수강(사이버강좌 30학점 인정)					

(2) 시민석사

- 학사취득자로 60학점 이상, 누적 기준 200학점

개설분야	민주시민	인문학	서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환경생활
개설학점	30학점	30학점	30학점	30학점	30학점	30학점

전공학점	전공분야의 과목은 20학점 필수 이수
교양필수	전공이외 분야에서 각 분야당 3학점 이상 이수
자유선택	전공 20학점+필수이수 15학점 이외는 자유 수강

(3) 시민박사

- 석사취득자로 60학점 이상, 누적 기준 260학점

개설분야	민주시민	인문학	서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환경생활
개설학점	20학점	20학점	20학점	20학점	20학점	20학점
전공학점	전공분야의 과목은 20학점 필수 이수					
교양필수	전공이외 분야에서 각 분야당 2학점 이상 이수					
자유선택	전공 20학점+필수이수 10학점 이외는 자유 수강					

(4) 학사관리 온라인 운영시스템 설치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홈페이지 설계 및 개설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사관리 운영프로그램 제작 및 장착
- 사이버 강좌 및 무크 등 동영상 강의 운영프로그램 장착
- 출결석 자동인증 및 학점관리 운영시스템의 설계 및 장착

(5) 학사-석사-박사과정 개설의 의미

- 시민학사 : 평생학습 도시의 실현
 -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의 실현
 -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 민주주의 학습을 통한 시민력 제고
 - 인문, 역사, 예술 등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실현
 - 전문역량 강화 등 재학습을 통한 삶의 재충전
- 시민석사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공의 필요성에 부응
 - 공교육에서 취득한 학위의 현장성 및 전문성 보완

- 전공 이외에 다양성과 통섭형, 융합형 교육과목 제공
- 학사, 석사, 박사의 단계별 학위취득으로 동기부여
- 시민박사
 -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참여시민의 양성
 - 시정부의 각급 위원회 등에 정책자문 참여
 - 시의회, 시교육청 각급 기관에 정책자문 활동

(6)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의 법적 지위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예산, 조직, 인원, 건물 등 제반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임
- 지속적,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형식으로 설립
 - 원헌시민대학과 같은 세계적 개방형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함
- 상징성, 대표성, 효율성을 위해 본부캠퍼스의 독립건물 필요
 - 대전시민대학은 내포로 이전한 충남도청 건물을 캠퍼스로 활용

(7)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의 학기제

- 3학기제
 - 시민대학의 학기는 2시간 × 5강을 연속으로 하여 2시간 × 10강을 1학기로 하는 1년 3학기제를 기본으로 함.
 - 본부캠퍼스, 권역별(서울 5개권역) 시민대학은 3학기제를 기본으로 함
- 2학기제
 - 학점은행제와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은 형편에 맞추어 15강-16강을 기준으로 하는 2학기를 개설함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의 학점은행제,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2학기제 가능함
- 1학기제, 비학기제
 - 네트워크 시민대학 등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학기제와 상관없이 비학기제로 과목을 개설하거나 매년 정기적 1학기제 등으로 개설함

4 교과편제

○ 교과편제

(1) 학사-석사-박사 교과편제

학사 교과	석사 교과	박사 교과
일반과목 이수	전문과목 + 연구과목	

(2) 학사 교과편제

인문학	민주시민	서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과학생활
-----	------	-----	------	------	------

- 교과편제는 주제별로 6개 분야로 구분한다.
- 일반과목은 5강 × 2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 학사학위 수여기준은 총 140학점 중 각 분야의 이수기준 학점을 취득

(3) 석사-박사 교과편제

구 분	전문과목	연구과목
석사-박사	- 10강, 또는 15강 기준 - 연구과목 연계한 과목이수	- 학술분야 : 학문적 연구과목 - 기술분야 : 생활, 기술 관련

○ 지역별 서울자유시민대학

: 서울의 지역을 5개권 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추어 특색 있고 가치 있는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운영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컨트롤타워				
시민청 시민대학(중앙)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서북)	시립대 시민대학(동북)	모두의 학교 시민대학(서남)	제2시민청 시민대학(동남)

○ 교육설계에 필요한 항목

(1) 세대별(연령별)

- 청소년, 청장년, 부모세대, 베이비부머, 노령층을 고려
- 세대별 교육프로그램을 분야별 시민대학의 성격에 맞춤

(2) 지역별

- 서울을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분할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설계
- 본부캠퍼스와 시민청 시민대학을 중심축으로 지역별 배치

(3) 주제별

- 민주시민교육, 부모교육, 민학협동
- 인문학, 시민민주주의, 서울학, 예술, 고전, 중국학, 미래학, 통일 등
- 평생학습의 보편성과 시민요구 등을 고려한 주제별 범주를 설정

(4) 단계별

- 시민학사, 석사, 박사 등 단계별 발전과 성취에 맞는 교육과정
- 각 단계에 맞는 수준과 방향의 교육과목을 설계
- 시민석사와 박사과정은 학과를 넘어 학제 간 통섭과 융복합에 맞춤

(5) 기관별

- 예술, 국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교육과목 운영협력
- 교육주체의 교육과목 가운데 우수한 것은 시민대학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6) 직업별

- 직장인, 자영업, 주부, 공무원, 교사 등

(7) 요일별 편성

- 주일반과 주말반

(8) 시간별 편성

- 주간반과 야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1) 본부캠퍼스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이다.
- (2) 본부캠퍼스는 학습계좌제(학점은행제) 및 시민학사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 (3) 본부캠퍼스에는 시민석사, 시민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4) 본부캠퍼스는 서울시민대학의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국제시민대학, 통일을 대비한 통일시민대학과 같은 특별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5) 시민석사-박사 과정의 개설과 운영

시민석사-박사 과정의 교육과정의 방향	
삶과 연계되는 전문적 기술전공	인문적 지향의 전문적 학문전공
공통 : 통섭과 융복합/학과장벽의 해제/인문학과 시민민주주의 필수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전문적 학문의 통섭 - 서울문화재의 창조적 가치창출방안 - 미래서울시정의 시민참여방법 연구 	

(6) 특별 과정

특별과정	주제 1	주제 2
국제시민대학	동아시아 평화체제	동아시아 시민연대방안
남북통일교실	남북한 동질성 회복	경제-생활의 상생방안
세계시민실천	세계시민이 되는 길	세계시민 실천-실험방안

○ 시민청 시민대학(중앙)

: 인문학적 성찰, 시민 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의 감수성, 여행인문학

- (1) 일반과정 : 5주를 1강좌로 구성(1학점)

주제	세부내용
인문학적 성찰 (나를 깨우다)	1)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성찰하다 2) 나를 표현하고 삶을 깨닫는다 3) 인생과 우주에 대한 오래된 물음에 답하다
시민 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다)	1) 시민 되기를 말하다 2) 시민공동체의 길을 묻다 3)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다
삶의 터전, 서울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다)	1) 오늘의 서울을 생각하다 2) 역사로 서울을 발견하다 3) 서울의 미래를 그리다
예술의 감수성 (마음을 만지다)	1) 다른 삶을 상상하고 창조하다 2) 장르를 새롭게 이해하다 3) 우리 미학을 발견하다

(2) 심화과정: 10주를 1강좌로 구성(2학점)

- 일반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여 심화과정 개설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서북)

: 은평학습장은 서북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삶에 희망이 되는 고용-취업 연계과정,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학점은행제를 개설 운영

(1) 풀뿌리 평생학습의 정착을 위해 학습동아리와 재능나눔학교를 지원 운영

분야별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고용-취업 연계	1)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 2) 초중고 방과 후 지원분야 3) 시장이 요구하는 분야
전문가 역량강화 과정	1) 평생교육사 전문역량강화 2) 현장체험지도사 전문역량강화 3) 역사지도사 전문역량강화

학점은행제 과정	표준교육과정
재능나눔학교	시민이 참여하는 재능학교
학습동아리	발굴, 지원

○ 시립대 시민대학(동북)

: 서울시립대학 시민대학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2016년부터 개설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고전인문학, 서울학 등을 개설 운영

(1) 일반과정 : 5주를 1강좌로 구성(1학점)

주제	세부내용
인문학적 성찰 (나를 깨우다)	1)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성찰하다 2) 나를 표현하고 삶을 깨닫는다 3) 인생과 우주에 대한 오래된 물음에 답하다
시민 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다)	1) 시민 되기를 말하다 2) 시민공동체의 길을 묻다 3)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다
고전인문학	1) 시대의 인물과 만나다 2) 고전을 펼치다 3) 미래를 발견하다
서울학을 설계하다	1) 서울의 과거를 들여보다 2) 오늘의 서울을 찾다 3) 내일의 서울을 모색하다
문학이 속삭이다	1) 작가와 만나다 2) 작품과 대화하다 3) 문학을 생각하다

○ 모두의 학교 시민대학(서남)

: 서남권의 모두의 학교 시민대학은 부모교육, 시민민주주의, 대안교육을 개설 운영

분야별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부모교육	1) 예비부모 교육 2) 학부모 교육
시민민주주의	1) 시민민주주의 지도교사 육성 2) 초중고 교사를 위한 민주시민교실
대안교육	1) 대안교육 전문역량강화 2) 아이교육 협동조합 3) 홈스쿨링 교육지원
인생후 반전	1)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다 2) 내 삶의 이력을 정리하다 3) 삶에 충전을 하다
청소년교육	1) 오늘을 성찰하다 2) 내일을 모색하다 3) 꿈을 설계하다

○ 제2시민청 시민대학(동남)

: 시민생활마당은 시민대학의 기초인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 민주주의 분야의 두 축을 기본으로, 동남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미래학, 중국학 등을 개설 운영

1) 일반과정 : 5주를 1강좌로 구성(1학점)

주제	세부내용
인문학적 성찰 (나를 깨우다)	1)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성찰하다 2) 나를 표현하고 삶을 깨닫는다 3) 인생과 우주에 대한 오래된 물음에 답하다

시민 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다)	1) 시민되기를 말하다 2) 시민공동체의 길을 묻다 3)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다
예술의 향기	1) 예술의 다양성을 보다 2) 예술과 인문학의 만남 3) 예술과 삶의 행복
과학과 미래	1) 이론으로 배우는 과학 2) 삶에서 만나는 과학 3) 과학의 미래를 생각하다
여행인문학	1) 여행인문을 지향하다 2) 사색하는 여행인문학 3) 여행인문을 이끈다

2) 심화과정 :10주를 1강좌로 구성(2학점)

: 일반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여 심화과정 개설

○ 서울형 무크(mooc) 시민대학(온라인)

: 서울형 무크(mooc) 시민대학을 운영

(1) 스마트 시민대학

(2) 시민이 만드는 인문강좌(15분)

○ 찾아가는 시민대학(이동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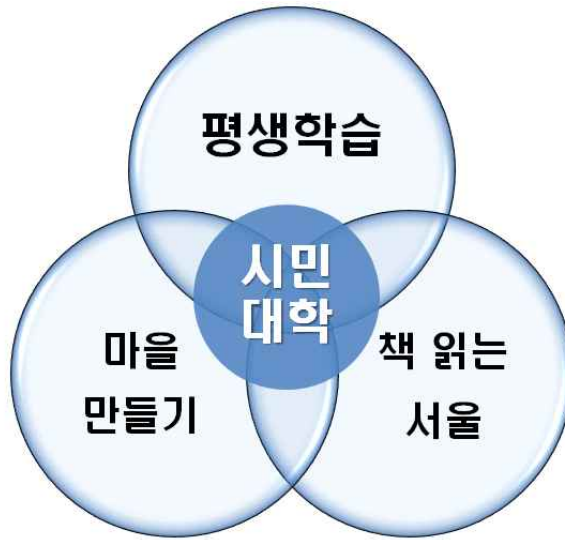
: 찾아가는 평생학습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하는 시민대학의 운영

(1) 시간, 장소, 직업 등의 요인으로 학습기회가 부족하거나 없는 시민을 대상

(2) 현장의 요구에 맞는 과목설계와 맞춤형 강좌를 운영

(3) 독립적 평생학습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방문강좌

○ 네트워크 시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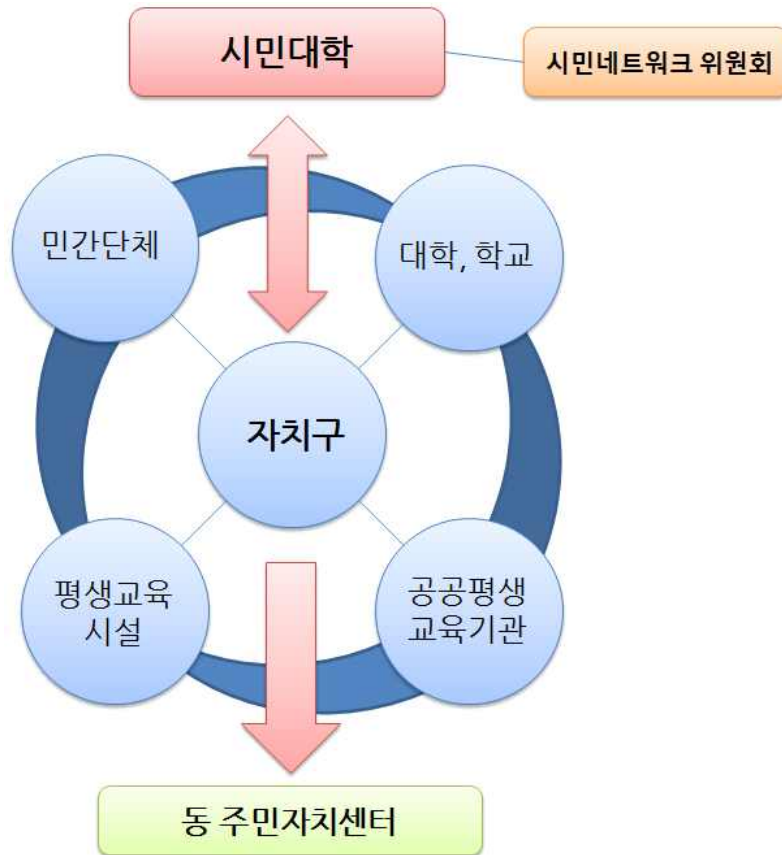
○ 대학연계 시민대학(2015년 15개 대학)

대학별 특화과정	시민대학 요구과정	인문 일반과정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과목설계	인문학적 성찰	시대의 요구지식
고전, 통일, 예술, 여성학 등	시민 민주주의 분야	학습자의 선호과목

○ 기관별 시민대학

: 서울시 기관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별 시민대학을 네트워크 연계 운영

- (1) 서울예술문화대학(문화예술과)
- (2) 서울기술직업학교
- (3) 국악인문학교



○ 분야별 시민대학

: 서울시 부서별 위탁하거나 직업 운영하는 평생교육과 연계 운영

- (1) 도서관
- (2) 인생이모작센터
- (3) 마을만들기
- (4) 마을학교
- (5) 부모교육
- (6) 민주시민교육
- (7) 서울시 공모사업, 서울시 위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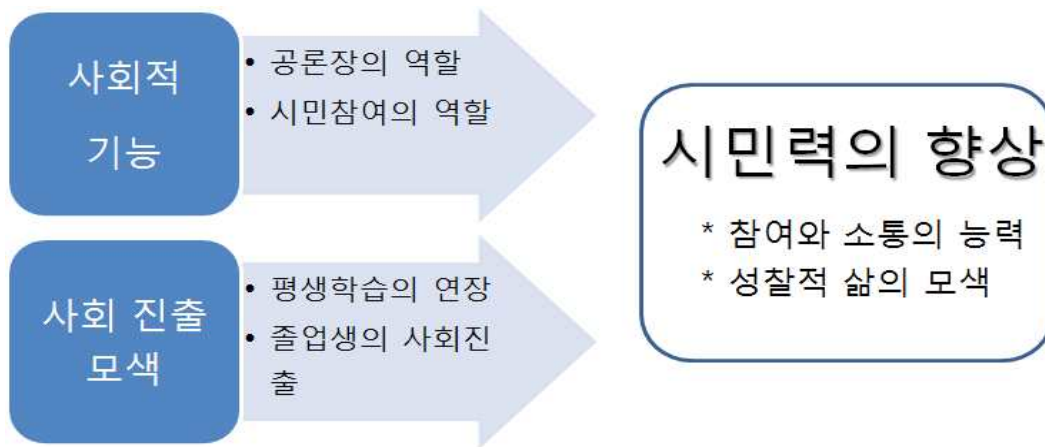
○ 시민사회 네트워크

- (1) 시민사회단체
- (2) 종교단체
- (3) 공익법인

- 프리스쿨
- (1) 외국어
- (2) 서울시정
- (3) 생활관련교육
- (4) 사회적응
- (5) 취업연계

V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비전

1 사회적 역할 모색



○ 서울 시민대학의 사회적 기능

(1) 서울형 공론장(public sphere)의 형성

: 정치·사회적 의제의 공론화 및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

(ex. 사회적 논쟁거리와 주요이슈를 교육과정으로 결합하는 방식)

- * 갈등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보장
 -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기본정보 및 배경지식을 전달하고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써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강좌 개설

- 서울 시민대학의 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자문 및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

* 주요사례_캐나다 시민의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Province of British Columbia)의 시민의회(Citizen Assembly)는 무작위 추첨으로 통해 선발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개월의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논쟁적 의제의 대안들을 마련하였고 이는 주민투표로까지 상정

(2) 서울 시민의 능동적 참여 보장

: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울시정 참여를 보장

(ex. 장기적으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서울 시민의 서울시정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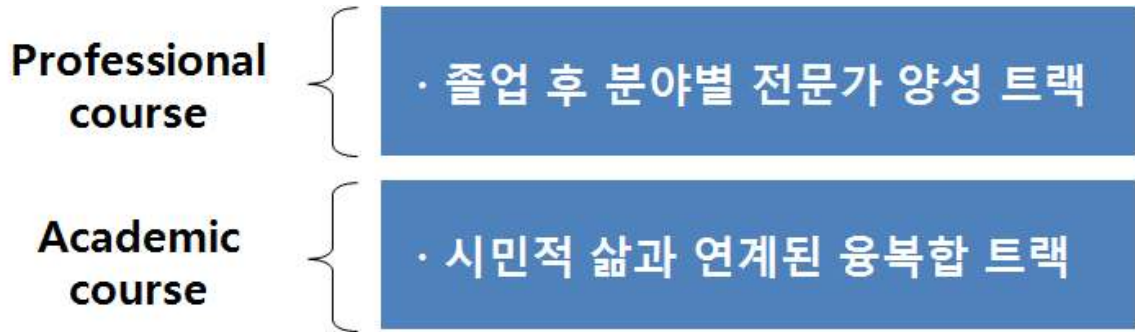
* 서울형 시민거버넌스(civic governance) 형성

- 서울시정의 분야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대로써 주민자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 시민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해 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배경으로 서울시정 감시·감독할 수 있는 능력강화

* 주요사례_덴마크 시민위원회, 스웨덴 옴부즈만제도

- 덴마크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DBT: Danish Board of TA)의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과학기술의 논쟁적 의제에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
- 스웨덴 옴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an)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 및 이전경력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옴부즈만을 선발하고 이들은 국가기관은 전반에 걸쳐 법과 재규정의 준수와 임무 수행을 감시

(3) 사회교육의 기능 및 졸업생들의 사회적 진출 모색



- 시민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연계
 - : 시민의회, 시민위원회, 시민옴부즈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참여형 시민의 모델창출
- 마을교육 및 직업교육과 연계
 - : 평생교육의 순환적 체계 마련 및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

[설계유형 예시]

○ 삶의 변화에 따른 예상모델

서울시민대학은 입학생들이 인문적 성찰과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인 서울, 문화와 예술이라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삶에 동력이 되는 배움터가 되어야 할 것

구분	내용
인생 2모작	은퇴한 뒤에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보람 있는 일을 맡아 하거나, 기존의 삶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
삶의 재충전	예술가, 직업인,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시민대학의 공부를 통해 부족한 공부와 인생경험 등을 재충전하는 기회
자기실현의 꿈	오늘의 현실에 대한 막막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시민대학의 공부를 통해 자기실현의 꿈을 갖는다.
도약 디딤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유형의 공부, 2년간 과정을 통해 얻는 신선한 충격 등 시민대학의 과정이 도약의 디딤돌이 되거나, 패자부활전의 성격도 갖는다.

지식 창조산업	지식정보화 사회, 호모-노마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조산업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준비과정
전문역량의 강화	기존의 전공분야 또는 업무영역에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민주주의 공부를 더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이들
함께하는 세대	마을이 학교였던 지난날 사회교육의 재현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모두의 공부, 모두의 학습

○ 다양한 직종(기존직종+새로운 직업 내지 직종 개발)

: 서울시민대학은 기존의 직종에서 삶의 동력을 주는 공부,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마음가짐과 새로운 직종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도 해야 하며, 인문예술이 결합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현장경험(필드 워크)을 바탕으로 초중고와 시민사회의 결합을 통한 민학협력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지식창조산업, 서울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진로설계를 함께 하는 시스템을 수립

(1) 전통에서 가치를 재창조하라

- 우리 전통의 음식, 주거, 생활용품 등의 직업군을 모색

(2) 삶의 여유시간에 투자시켜라

- 교육, 여행, 가족 등 삶의 여유시간을 설계하는 직업군

(3) 노령인구에 따른 실버산업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레저, 교육 등 직업군

(4) 한류의 바람개비를 돌려라

- 소재개발, 협동조합 등 한류 관련한 직업군

(5) 문화콘텐츠의 잠재력을 발굴하라

- 게임, 출판, 문화, 영상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직업군

(6) 민학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라

- 초중고 방과후학교 등에 인문, 역사, SNS, 스토리텔링 등 직업군

○ 설계 시뮬레이션

: 삶의 예상모델에 따른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형을 설정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이
나 인터뷰 방식 등으로 시뮬레이션을 가상

(1) 제1유형 : 30년 공직생활을 은퇴한 60대 - 인생 2모작 모델

(2) 제2유형 : 문화유산 해설사를 꿈꾸는 주부 - 삶의 재충전

(3) 제3유형 : 재능과 끼가 넘치는 예술 지망생 - 자기실현의 꿈

(4) 제4유형 : 1인 미디어를 꿈꾸는 20대 청년 - 도약 디딤돌

(5) 제5유형 : 문화콘텐츠 업계 종사자 - 지식 창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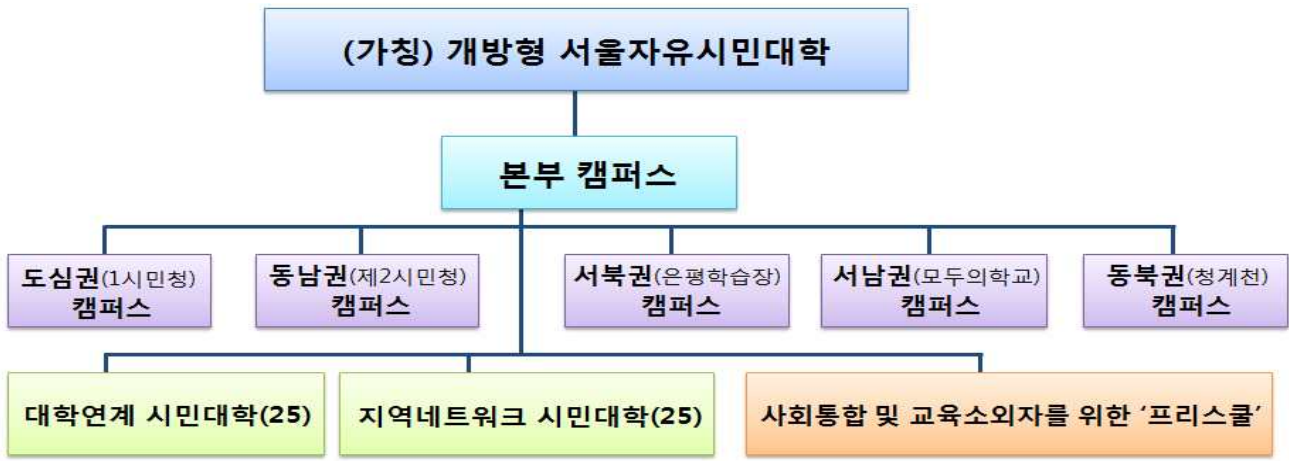
V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 체계

1 운영 체계

- 1본부, 5캠퍼스(제1시민청, 4개권역), 25개 자치구, 200(25자치구×8) 네트워크 시민대학

VI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조직체계

1 조직 체계



구분	조직체계	내용	
(가칭) 개방형 서울	본부 캠퍼스	전반 운영관리 및 시민석사·박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권역별 시민대학	도심권 캠퍼스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서울, 예술적 감수성 등의 교양교육과정
		동남권 캠퍼스	특강시리즈, 세계알기, 삶의 기획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
		서북권 캠퍼스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및 시민대학 심화과정 운영

자유시 민대학	서남권 캠퍼스	다양한 교양교육과정 / 권역별 지역별 특화 교육과정
	동북권 캠퍼스	
	대학연계 시민대학	대학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민대학 (자치구, 시민사회 교육단체, 도서관 등)	인권, 여성, 경제, 환경, 체육 등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살린 교육, 다양한 교양교육 과정
Free school	한국어, 서울시정 및 서울(한국)적응관련교육, 취업과정 등	
	도시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문화·예술·스포츠 활용학습)	

○ 정규과정 운영 : 학점은행제과정(15주) + 전문과정(10주) + 교양과정(5주)

○ 조직 체계의 구성 근거

- (1) 본부 캠퍼스와 전공교육 능력이 있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합리적인 학사관리를 꾀하고자 함.
- (2) 시민청 캠퍼스를 비롯하여 네트워크 시민대학 전체 캠퍼스에서 일반 교양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성찰하는 삶, 공동체적 삶을 일구는 시민양성이라는 시민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3) 또한 시민대학 전체 캠퍼스에서 일반 교양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육적 요구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4) 은평학습장 캠퍼스에서 전문가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하여 전문능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함.
- (5) 권역별 시민대학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교육적 요구도 수용하고자 함.
- (6) 자치구 평생학습관, 시민사회 교육단체, 도서관, 종교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풀뿌리 네트워크 시민대학에서는 인권, 여성, 경제, 환경, 체육 등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살린 교양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참여형 시민을 위한 시민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지역별 생활현장 밀착형 시민대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7)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 영역 전반에서 함께

소통하는 사회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인 Free school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 문화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함.

2 조직 구성

□ 행정 체계

○ 행정 운영 방향

(1) 본부캠퍼스의 설립과 운영

- 시민 모두의 모교라는 상징성 부여
-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캠퍼스의 경험
-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적 설계와 운영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와 효율적 운영
-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 운영

(2) 기본 운영 구도

- 학사제도의 합리적 설계
 - . 설립취지와 생활현실에 맞는 학기제 운영
 - . 학습자의 주체성 함양 및 생애설계를 고려한 강좌 개설
 - . 설립취지 및 목표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교강사의 확보 및 배치

(3) 연관 자원의 효율적 통합

-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인적 자원, 정보, 공간,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 MOOC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 창출

○ 본부캠퍼스의 건물 및 역할

(1) 시민대학 본부의 역할

- 전체를 총괄하는 상징성, 대표성, 효율성을 지님
- 운영인원, 학사관리, 교수진-강사진 운영 등 총괄
- 각국의 시민대학 등과 국제교류를 위한 독자 공간

(2) 본부캠퍼스 개설학과

- 석사, 박사 과정 전담 개설
- 학사과정의 중요한 과목의 개설
- 민주시민교육 등 관련 분야 개설
- 국제교류, 남북통일 등 특화 분야 개설

(3) 본부캠퍼스 건물

- 서울혁신파크(은평)에 독립건물 확보하여 입주함
- 2018년도 석사-박사과정 개설시 서울중심부 이주(필요)
- 서울혁신파크(은평)는 본부캠퍼스 제2관으로 운영함

(4) 건물의 규모

- 최소 3개 층, 1,000평 규모
- 750평은 강의 공간, 250평은 사무실 및 연구실
- 1개 층에 강의장 8실 × 3개 층=24실
- * 대전시민대학의 경우, 교육시설은 4개동 30강의실, 40실습실 규모

(5) 개설 강좌 수

- 강의장 24실을 기준, 1일 오전, 오후, 저녁 합하여 72강좌
- 1주일에 72강좌 × 5일 = 360강좌
- 1년 3학기에 360강좌 × 3기 = 연간 1,080강좌
- 강좌당 수강인원을 30명으로 계산 = 연인원 32,400명
- 강좌당 수강인원을 40명으로 계산 = 연인원 43,200명
- * 대전시민대학의 경우 : 2014년 2학기, 1,168강좌, 시민 16,852명 참여

(6) 본부 수강인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학사과정 개설		시민석사 과정 개설 포함		
1,080강좌	2,000강좌	3,500강좌	5,000강좌 이상	
4만여 명	8만 명	15만 명	20만 명 이상	
서울혁신파크(은평)		도심권 독립건물		

* 2018년도 이후 서울혁신파크(은평)는 본부캠퍼스 제2관으로 운영함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의 조직 구성

(1) 서울시 전담부서

- 평생교육정책관(교육협력국)
- 서울시민대학 본부

(2) 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직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시민대학 운영 전반
- 교무위원회 : 교육프로그램, 교강사, 학사관리 등 교무
- 네트워크위원회 : 시민대학 네트워크 업무
- 시민자문위원회 : 시민참여형 자문
- 사무국 : 시민대학 실무 전반

(3) 운영인원 : 본부캠퍼스

- 운영위원회 : 7-10명
- 교무위원회 : 교양과정 7명 내외, 전문과정 3명 내외
- 네트워크위원회 : 본부 4명(인적, 정보, 공간, 교육프로그램) 및 각 네트워크 시민대학 1-2명
- 시민자문위원회 : 수십명
- 사무국
- 사무국장 1명

- 교과담당팀(6팀) : 교양과정담당 5팀(영역별 4팀, 기타 1팀), 전문과정담당 1팀
- 네트워크담당팀(11팀) : 본부담당1팀, 시민청담당1팀, 은평담당1팀, 권역별담당 1팀, 대학연계담당1팀, 풀뿌리네트워크담당5팀, 기타1팀
- 기타 재정회계 등 일반 행정업무 담당

<연도별 전임교원, 강사 적정인원>

년도	강좌 수(개)	전임교원 및 강사(명)
2016	1,080	360(1인당 3강좌 담당)

* 산출근거 : 4년제 종합대학 교양과정 1,000강좌 기준 (전임교원 70명, 강사 270명, 직원 40명)

<연도별 사무국 직원 적정인원>

년도	팀 수(개)	직원(명)
1단계	사무국, 17개팀	35명(사무국장 1인, 팀원 17개팀 × 2인=35명)
2단계	사무국, 25개팀	76명(사무국장 1인, 팀원 25개팀 × 3인=75명)
3단계	사무국, 30개팀	91명(사무국장 1인, 팀원 30개팀 × 3인=90명)

* 산출근거 : 4년제 종합대학 교양과정 1,000강좌 기준 (전임교원 70명, 강사 270명, 직원 40명)

□ 서울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 라이프 캠퍼스(Life Campus - Life inside the campus)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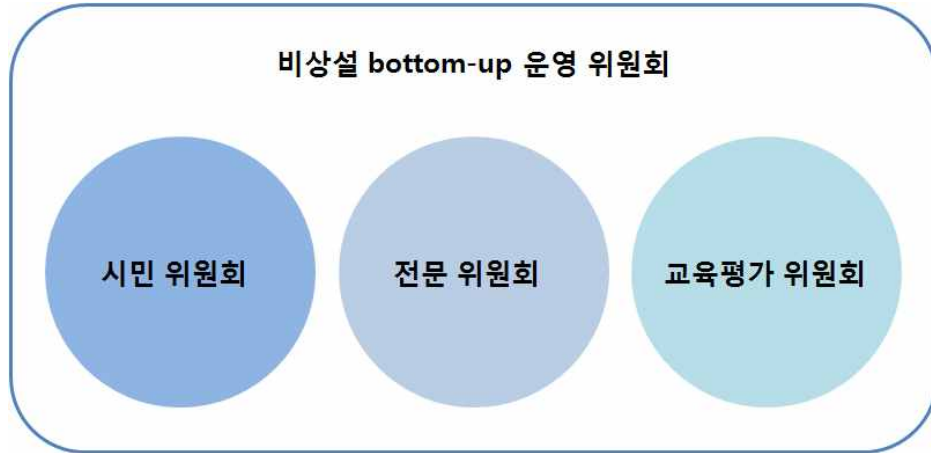
: 기존의 공간적 대학캠퍼스의 개념을 벗어난 서울시 곳곳을 활용한 대학도시 캠퍼스 구축으로 시민 접근성 용이하게 함.(서울시 전체 캠퍼스화 개념 도입)

※ 캠퍼스 구성사례: 독일 뮌헨대학,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

○ 비상설 bottom-up 운영위원회 구성

: 시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적 체계 마련

- (1) 시민위원회: 다양한 세대, 지역,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
- (2) 전문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순환적 개선방안 마련
- (3) 교육평가 위원회: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평가



VIII 성과 지표

1 성과 지표

○ 서울자유시민대학 성과지표

(1) 2016년도 각 분야별 개설강좌 및 수강인원

· 총 3,580강좌 × 40명 = 연인원 143,200명

- 본부 캠퍼스 : 1,080강좌

- 권역별 시민대학 : 600강좌

- 은평학습장 : 120개(120학점) = 120강좌

- 제1시민청 : 120개(120학점) = 120강좌

- 제2시민청 : 120개(120학점) = 120강좌

- 동북권 : 120개(120학점) = 120강좌

- 서남권 : 120개(120학점) = 120강좌

- 대학연계 시민대학 : 25개 대학 400강좌

· 25개 대학 × 4개 강좌(10강) × 2학기 = 400강좌

- 네트워크 시민대학 : 100강좌

* 시민사회단체, 구청, 법인 등에 위탁교육

- 사이버 대학 : 100강좌

- * 서울평생학습포털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강좌를 체계화
- 프리스쿨 : 300강좌
- * 외국인, 소외계층, 찾아가는 시민대학 등 자유롭게 운영

(2) 졸업생의 사회적 역할(2020년 기준)

- 시민학사
 - 연인원 1만 이상의 시민학사 배출
 - 자발적 학습동아리 1000여개 활성화
 - 시민석사 과정으로 연간 1천여 명 진학
 - 시민박사 과정으로 연간 1백여 명 진학
 - 구청, 주민센터, 학교 등에 평생학습 활성화
- 시민석사
 - 연간 1천여 명의 시민석사 과정 입학 및 배출
 - 시민의회, 시민 옴부즈맨 구성 등으로 시정부 정책참여
 - 연간 1백여 건 이상의 시민정책 의견서 제출
 - 연간 1백여 건 이상의 현장취재를 통한 문제점 해결
 - 시민대학 일반강사로 활동
 - 연간 10여 곳 이상의 시민학습 아카데미 등 개설운영
 - 평생학습 전문 활동가로 마을학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도
- 시민박사
 - 연간 1백여 명의 시민박사 과정 입학 및 배출
 - 각급 위원회 등 시정책 자문으로 참여 활동
 - 주요한 시정책 용역보고 사업에 참여
 - 시민대학 전임강사로 충원 활동
 - 연간 10여 곳 이상의 인문학습원 등 개설운영

X 해외시민대학 현황 및 특징

1 해외사례개관 및 참고분석

□ 핵심 설립목적(해외사례 공통)

○ 시민의 사적인 자기계발·자기실현과 공동체 사회의 통합과 역동성 증대를 동시 추진

(1) 성공적인 해외 사례일수록 조직의 구성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상기한 핵심 설립목적에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음.

(기본 설립목적이 적절하게 관철된다는 사실은 외부적 변수, 일시적인 유행과 필요 등에 의해 대학의 운영이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함. 심지어 지역사회 발전전략에 따른 일시적 소요 인력 양성, 고용 창출 및 취업 등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은 부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설립목적의 충실한 관철이 가능한 배경

- 대학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안정적 보장
-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경제적인 지원 외에 자긍심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임에 유의할 것)

-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 서울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대학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같은 조건은 발전계획 등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초기 시행단계부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대학 운영에 있어 신중하고 참신한 조직 구성의 발상과 실천이 요구됨. 대학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전폭적인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외부적 소통 및 연계의 체계가 개방적으로 구성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²⁾

○ 취업 교육 관련

(1) 고려사항

- 미국을 비롯한 몇몇 해외 시민대학 사례의 경우, 취업 관련 강좌를 상당히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서울 시민대학의 취업 연 관 교육 혹은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도 가능한 정확한 수요예측 하에 진행할 필 요가 있음. 예컨대 몇몇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 운영계획이나 중 장기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분야 전문가, 자원활동가, 기타 직군별 인력 등의 소요를 판단한 뒤, 이에 근거하여 강좌설계 등을 해야 함.

경제적 기대가 있는 과정의 경우, 서울시민대학의 단기 활성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 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판 등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큼.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대안이 요구됨.

(2) 대안적 전략

- 서울시 자체의 사업계획 및 발전전략과 연동하여 소요 인력 및 직능 특성 등을 사 전에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서울시민대학이 수용(런던시 사례 참고)

※ 서울시와 시민대학 공조 예상 프로세스

서울시
서울시 사업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신규 소요 인력이 발생할 가능성 검토 (업무의 단기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기존 인원모집 체계로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로 국한. 예컨대, 서울시 주도의 대규모 관광사업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 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공무원 선발과 구분되는 특수 직군 소요 인력이 발 생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여 시민대학과 공조)



2) 독일, 특히 뮌헨시민대학의 사례는 규모나 운영의 역동성 등에서 가장 중심적인 참고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룸. 따라서 기타 해외국가들의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개관 및 분석이 먼저 제시됨.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로부터 위와 같은 신규 소요인력에 대한 자료를 인수한 뒤, 필요한 직군을 구분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진로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실제 교육과정에서 이뤄짐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컨대, 취업기간이 단기일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수강자의 숙지가 필요함.)



서울시 / 서울시민대학

설계된 교육과정 및 실라버스 등이 실제 소요인력 양성에 적절한지, 사업의 시행과 유기적인지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교류
(이 과정은 실제 사업의 규모 등에 의해 일회에 그칠 수도 혹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집담회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음. 아울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의견 교환 등도 판단해야 함. 신규 사업 등의 특수성에 의해 기존 시민대학의 교육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임.)



서울시민대학

검토와 보완을 거친 교육과정을 실행 후 서울시 인계
(직군의 특수성에 준해 유연한 운영 실행. 예컨대, 기존 인증제도와 차별적인 별도의 인증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습 훈련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



서울시 / 서울시민대학

후속조치 및 향후 발전방향 수립

(시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정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을 모색. 예컨대 향후 지속적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편 및 재수립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및 이수후 활동에서 모범적인 인사를 선발 시민대학 교육과정에 교수자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 취업계층의 특정 직능 강화교육 내지 보완교육 등을 세심하게 설계(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미국사례 참고)

※ 현대 사회 및 대도시의 특성, 시대적 요구 등에 의해 직능 또한 고정되어 있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함. 이와 관련된 재교육·강화교육·보완교육 등의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서울시민대학의 취업강좌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설립취지 및 중심 가치의 공감대 구축

(1) 고려사항

- 해외 사례 가운데 특히 유럽 모델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시민 주도적·시민 기반적 특성이 강하고, 사회적·지역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음. 이는 서울시민대학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특징으로 커리큘럼, 운영방향 등에서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시민대학설립의 핵심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전제이며, 이를 위한 학내외 성원들, 조직들 간의 유기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망의 형성과 분리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적절하고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2) 대안적 전략

- 서울 시민대학 설립 초기 단계에서 특히 위와 같은 유럽 모델을 참고할 때, 대학의

설립취지나 교육목적 등에 대해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구축이 요구됨. 전체 OT, 혹은 학기 초 전 교육과정에 걸친 공통교육,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와 토론,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정한 공감대와 연대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시민대학설립 초기부터 구성원들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실행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히 교육이수자들의 자존감과 성취감 등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는 시민대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발판이자 대외적인 신뢰도와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시민 상호 간의 연대 등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임. 특히 요식적인 행사 등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참신한 구상 및 설계가 필요할 것임.

○ 프로그램 통합관리 체제

(1) 고려사항

- 독일 베를린 및 이탈리아 시민대학의 경우, 수강생들의 교육이력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 시민대학 내의 정규 프로그램 이수기록은 물론 협력기관 프로그램 이수기록, 기타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 수강경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 이는 운영상의 편리성과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대안적 전략

- 서울 시민대학의 경우도 대학 자체의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네트워크화된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이수경력을 실제 이수학점으로 인정해야 함. 아울러 네트워크 외부의 교육의 경우도 프로그램의 공신력이 있을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이는 네트워크의 확장은 물론 초기 시민대학 강좌 상의 하중을 더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즉 신뢰할 만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확보됨에 따라, 시민대학 내부 실라버스보다 경쟁력 있는 과정을 해당 운영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이 경우, 부수적으로 시민대

학의 외연 확장하는 효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이수경력을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러한 체계가 구축될 경우, 이는 학생들의 진학·진로 지도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교육이수경력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 누적된 자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① 취업이나 서울시민대학 석박사과정 진학과 관련된 진로 상담의 기초자료
- ② 교육프로그램 이수경력의 평균적인 형태와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 → 이후 교과과정 개편 등 시민대학의 질적·양적 확장이나 개편, 기타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기본적인 예측 가능
- ③ 서울시민들의 교육적 관심이나 기호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
- ④ 위와 같은 데이터를 종합함으로써 비가시적인 사회적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사회변동 관련 예측 기초자료)

○ 기존 공간적·물적 자원의 활용

(1) 고려사항

- 유럽 시민대학 사례의 경우, 오랜 역사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안착되어 있음. 따라서 교회 등의 공동체적 공간, 그리고 주택과 같은 사적 공간까지 학습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시민대학의 경우도 본부 및 지역캠퍼스 외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건물신설 등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계획 외에 유럽 사례처럼 다양한 물적·공간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2) 대안적 전략

-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처음부터 유럽과 같은 물적·공간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주택 등의 사적 공간이 시민대학 교육·학습의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초기에는 서울시 관할의 다양한 문화·역사적 공간을 시민대학의 자원으로 삼는 설계가 적절함. 예컨대, 서울시에서 관리하

는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시민대학의 공간적·물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설립 시 부터 수립해야 함.

※ 공간적 자원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되는 자원은 서울시 관할의 도서관임. 서울시민대학과 도서관 자원의 연계 운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근거하는 것임.

- ① 서울시민대학 운영에서 도서관의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별도의 재정 확보를 통해 새롭게 전용도서관을 구축할 때 초기 부담이 클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서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② 서울시의 도서관은 지자체 단위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대학 재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의 도서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대학에 대한 충실도나 학업 몰입도 및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③ 서울시의 지역 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장기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서울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분산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용이한 도서관 활용에 따라 학습 및 교육의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음.
- ④ 최근 설립된 몇몇 도서관의 경우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음.

서울			
강남구통합도서관	강남도서관	강동구도서관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강동도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서구통합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고척도서관
관악문화관도서관	광진구립도서관	구로구통합도서관	구로도서관
금천구립가산정보...	금천구립정보도서관	남산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도봉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
동대문도서관	동작구통합도서관	동작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마포구청동문고	산돌어린이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북구립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용산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현황]

2 독일 및 뮌헨 사례 분석

○ 기본특징

- 정부 주도 및 지원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모델이나 실질적으로는 민관공조 시스템으로 운영

베를린市 모델	개인 학습계좌제(ProfilPASS)를 통해 학교교육 및 기타 교육 이수 내용 전체를 통합관리. 일반 시민대상 프로그램 외에 교사 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함.
뮌헨市 모델	유럽 내 최대규모의 시민대학으로 연간 14,000강좌를 진행하고 25만 여명이 수강함. 프로그램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실질적이고,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조직적 기반도 잘 구축되어 있음.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에서 다양한 어학강좌, 직업교육, 학위취득과정, 건강교육에 이르는 광범위한 강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경영본부·각종 위원회·홍보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적인 행정적 지원체계 또한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음. 지자체 지원은 전체 예산의 60% 수준이며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립목적 및 특성

(1) 목 적

- 시민의 추가교육 수요를 충족한다.
- 시민이 삶의 방향을 찾고 의미 있는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민이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 교육소의 시민의 기본교육을 보충하고, 이주자, 장애인 등 소수자의 사회통합을 돕는다.

(2) 성격과 역할

성인교육기관	청소년 교육도 하지만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추가교육기관	기본 교육 기관(직업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 추가로 더 배우는 곳
교양교육기관	직업 교육은 기본 교육 기관에서 배우기 때문에 주로 교양 교육을 함. (10%정도만 직업교육)
시민교육기관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교육
보충교육기관	고등학교까지의 기본 교육을 배우지 못한 이들이 보충하는 곳
통합교육기관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들에게 독일어와 직업교육을 가르치는 곳

(3) 특 징

개방성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열려있음
중립성	정치, 종교 등 모든 관점으로부터 중립적임
접근성	독일 전역에 동네마다 곳곳에 퍼져 있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저렴함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많은 공적 지원으로 수강료는 40%만 부담하므로 저렴함
통합성	이민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도서관, 박물관, 공연 전시장, 교회, 학교, 문화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

※ 상기한 독일시민대학의 내용들은 서울시민대학 설립시 전폭적으로 수용하거나 참고.

(4) 조 직

- 독일시민대학협회(DVV, Deutsche Volkshochschule Verbände. V.)
- 924개 시민대학, 3,118개 지부 (2012년)
-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62%), 법인(32%), 기타 유한회사 등(6%)

(5) 운 영

- 1970년대에 평생교육법/성인교육법을 각 주에서 제정하여 성인교육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

- 재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공적 지원금을 받으므로 수강생들이 재정의 약 40%만을 부담
- 지자체와 주 지원금: 약 40%, 연방과 EU차원의 지원금: 약 20%. 기업의 후원금도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직원(약 3800명), 전업 강사(약 3200명), 비전업 강사(약 20만명)
- 광범위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 정치-사회-환경, 문화, 건강, 언어, 노동·직업, 기초학력 등

○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기본적인 설립취지나 규모, 운영방향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민대학 설립시 가장 주목해야 할 모델로 판단됨. 서울시민대학이 취업교육, 취미교육, 학위과정 등 단기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자기실현, 사회적 참여, 이를 통한 공동체적 의식 및 관계의 형성 등을 지향한다고 할 때, 뮌헨 시민대학의 모델은 그 설립취지나 규모, 운영실무 등에서 중요한 참고사례라 할 수 있음.

○ 서울시민대학 설립시 참고 사항

(1) 커리큘럼의 다양성

- 인문학 등 전통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 학위취득과정, 취업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대중적이라 평가됨. 이를 참고할 때, 서울시민대학의 커리큘럼은 초기 단계에서는 전례를 고려하여 중앙에서 기획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차츰 대중적 수요와 설립취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실질 취업률의 급감 등 서울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일반적인 역사적·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취업관련강좌가 가장 수요가 많겠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즉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외적 비판 등 오히려 위기 초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독일처럼 다양한 강좌 개설을 기조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인문·문화·

예술 강좌 등을 우선 배치하면서 ㉠취업강좌를 개설하되, 실제 서울시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형태가 필요(예컨대, 런던시의 모델처럼 市가 주체가 되는 관광사업의 방향을 수립할 때 소요인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시민대학의 연관프로그램 설계에 반영). 이와 더불어, ㉡‘서울’이라는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실천적 프로그램도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초기에 대중적 수요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대안 설계가 요구됨. 예컨대, 시민대학 석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실제 운영 실례를 분석하여 기초 강좌 실라버스에 반영.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대학 내부에서 설계할 필요 없이 초기부터 연관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우수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계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도 동시 추진)

(2) 인적·물적 토대의 유기적 구축

- 인적 구성 : 교직원 등 시민대학의 인적 구성을 상근 정규직에서 프리랜서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조직. 예컨대, 상근 사무에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강좌 특성에 따라 기존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각계 전문가들을 전임강사 및 강사로 채용.

잡다해 보이는 인적 구성이지만 실제 대학운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구조로 서울 시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큼. 초기 설립시 기존 운영 경험을 토대로 강좌수, 공간적 여건 등을 예측하여 초기 사무직·교수 인원 소요를 판단하고 가용 인력풀을 동시에 구성, 상시·비상시적 조건에 대한 대응 기반 구축.

(상시·비상시를 구분하는 까닭은 일반적으로 입학, 졸업, 기타 사정 등의 일정과 시기에 따라 강의 및 업무의 부하가 변동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것임.)

- 물적 토대 : 강의실 공간 등에 대한 양적 예측과 별도로, 구성원들의 소속감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적 구성의 설계 要. 예컨대, 도서관, 스터디룸 등 기운영된 강좌들과 분명하게 차별적인 물적 기반의 제공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 시민대학의 공적 특성이 확고한 독일 및 유럽 사례와 달리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측.

(실질적 규모와 상관없이 ‘캠퍼스’로 기억될 수 있는 대학구성원 공통의 공간적 기반이 필요함.)

(3)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 베를린市 ProfilPASS의 사례를 참고, 수강생들의 이수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 서울시민대학의 정착과 더불어 연계 강좌 수강이력 등을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인증기준을 구축하여 이를 충족하는 이수이력 등을 판단. 이러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강생의 취향이나 자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취업이나 진학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국가별 개관

○ 미국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市주도의 운영 모델
대학 운영 모델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 지자체나 국가의 통합관리체제는 없음.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뉴욕市 모델	성인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인교육 정보 및 성과시스템을 도입 학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 증진에 역점을 둠.
버지니아 대학	비학위 과정, 직업능력개발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 비학위 과정은 인문·예술·디자인·조경·과학 등 관심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는 개인발전과정과 답사와 여행 위주의 여행프로그램 등을

	<p>포함. 직업능력 개발과정은 일정한 학점이수를 강제하고 이에 기 반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증과정과 학점이수에 대한 강제가 없는 비학위과정으로 구분. 자격증 과정에는 대안교사·인사관리· 회계 등에 대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비학점·비자격 증 과정에는 비영리기관 운영·이벤트 플래닝·사업 및 조직 향상 등의 학습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됨.</p>
--	---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p>* 비학위 과정 및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구분은 시민대학의 경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지만, 직업능력개발과정 이수자의 기대가 취업 등 분명한 목적과 강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초기 시민대학 운영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취업 등의 현실적 동기 강조가 시민대학 활성화에 단기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역효과가 클 수 있음.)</p>
--

○ 일본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p>市 주도, 대학 및 시민사회 공조 운영 모델</p>
<p>미국과 유사하게 市 운영모델 및 대학 운영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나, 도민 칼리지나 현민 칼리지의 예처럼 지자체 주도 모델도 운영되고 있음.</p>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p>도쿄市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대상의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미디어의 활용 강조 - 도서관·박물관·기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
<p>메이지 대학(Liberty Academ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 인문·문화·실용 강좌 외에 재취업촉진프로그램 운영.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봉사자, 지역신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지역에 특화된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

	- 기타 : 해당 대학 교원을 교수자 자원으로 활용하며, 강좌 운영과 관련된 기부를 받아 기부자 명칭을 강좌명에 사용.
와세다 대학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교양 및 실용 강좌 운영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p>* 시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실무적 측면 참고 要. 예컨대, 교육컨텐츠 외에 이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체계 분석 및 적용 고려. (제도·관습·문화 등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서구 사례보다 실효성이 더 높은 선행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임.)</p>

○ 영국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 지자체 주도 모델 및 협동조합형 모델로 대분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런던市 모델	런던 문화-관광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도시 잠재력 극대화를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제 교육 프로그램도 역사 및 관광 자원 관련 내용.
협동조합 모델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약칭 U3A)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자주적·독립적 교육기관 모델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 27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문·역사에서 예체능, 정치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강좌 운영. 회원들의 자발적 회부로 운영되는 독립재정에 기반. 소득격차에 따른 회비 차등화, 회원들의 집, 도서관, 교회 공간 활용 등 뿌리 깊은 시민 주도형 모델의 장점과 축적된 노하우 보유.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런던시 모델의 경우, 지자체의 목적성 사업 내지 지역 현안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킨 점이 주목할 만함. 서울시민대학 실라버스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U3A 모델은 특히 서울시민대학의 장기적 비전 수립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음. 초기 지자체 및 교육계의 지원 하에 사업이 주도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운영 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 비학위과정의 정부·대학·시민의 공조형 모델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리옹시민대학, 칸시민대학	비학위과정의 개방대학 체제로 운영.(단위 시민대학의 연합도 활발해서 프랑스 내 “프랑스시민대학협회”가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유럽시민대학연합”도 구성)
------------------	--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설립시부터 사회 혁신적 의식과 공감대 전제됨. 이는 서울시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설립과정의 배경이 일단 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구축될 필요 있음. 설립취지와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구축 프로그램 별도 기획·운영 필요

○ 이탈리아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평생학습 전담부서 '성인교육 지역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설계·관리·지원. 경력/자격 등에 대한 체계적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 및 학습 수행 결과를 공적으로 활용

(2)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독일 베를린 및 이탈리아 케이스의 경우를 참고할 때, 교육이수 경력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혁신을 고려해 볼 만함. 현재, 도서관, 지자체 등 다양한 학교 외 교육 기회가 부여되나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 시민대학 설립 시 단기간에 현존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단중기적으로 시민대학으로 통합 가능한 영역(시민대학 자체 프로그램 및 공조 프로그램 등)과 불가능한 영역(지역 및 단체의 공신력 높은 자율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되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ex, 통합적으로 인증 가능한 표준 프로그램 운영안 확립 등 제도적 지침 구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확장교육설계 등이 가능함.

○ 스웨덴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 시민 주도형의 모델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유기적인 측면지원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Study Circle' : 전체 인구의 30%(성인인구의 60%)가 참여하는 300만명 규모(서클 수 28만 여개)의 전국적인 교육 운동.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을 특징으로 함. 지역적·공동체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서클 간의 연합도 자유롭게 이뤄짐.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정치·윤리·환경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지원을 함. 하나의 스터디 서클은 3명~12명의 규모이며 20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운영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함.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서울시민대학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모델이며, 만일 최종적으로 시민주도형 모델을 지향할 경우, 이와 관련한 단계별 발전 방향을 설립시부터 수립해야 함.

○ 핀란드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 정부주도모델과 시민주도모델의 중간형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자기주도학습·직업훈련 등을 주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며, 지역 내 학교 공간을 활용. 성인 인구의 70%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운영이 특징.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일정한 전문성이 인증된 인적 자원은 강사로 채용하고 정부가 활동비를 지급.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공간활용 등에서 기존의 공적 자원의 효율적 재사용이 돋보이며, 참여율 70%에 교육자/피교육자의 숫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인적 자원의 공동체적 기여를 훌륭하게 이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시민주도형 시민대학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민대학 설립추진시 주목할 만함.

○ 덴마크

(1)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

: 시민주도의 기원을 지니는 모델이나 정부지원형으로 안착된 모델

(2) 기본적인 사례와 특징

160 여년의 역사(1856년 Grundtvig가 창설)를 지니며,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는 폭넓은 참여 대상이 특징임.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유중등학교(efter skole)는 자립적인 생활, 자아 성찰과 삶의 전망 모색 등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 및 의미가 지대함. 성인 대상의 시민대학(folke heue skole)은 희망 분야의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가 75%의 교육비를 부담. 기숙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점이 특이한데, 주 교육내용은 철학, 정치, 문화, 예술 등이며 장기코스(6개월)와 단기코스(3개월)로 나뉨. 이러한 시민대학은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음.

(3) 서울시민대학 설립관련 주목할 사항

공교육 내지 학교교육과 유기적인 상보 관계를 지니는 모델로 성인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 ‘평생’학습형 모델. 서울시민대학과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상호관계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있어 신중하게 참고해야 할 형태임. 특히 서울시민대학이 설립 초에는 성인 위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 시민의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아 및 청소년 교육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즉 서울시민대학이 말그대로 ‘평생’교육을 지향할 때 덴마크 모델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임. 아울러 개인적인 자기 성찰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균형있게 추구하도록 하는 설립취지 등도 주목할 만한 부분임. 향후 校訓이나 교육현장 등을 통해 수용하고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강조

XI 조례 제정

1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 조례의 개요

○ 조례의 필요성

- (1) 시민대학의 운영주체, 전담부서, 회계, 건물 등의 인프라 법제화
- (2)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기구로 독립, 상설 시민대학으로 운영

○ 핵심 내용

- (1)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취지
- (2) 시민대학의 운영주체, 전담부서, 회계, 건물 등 명시
- (3) 전담부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분담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조례 구성의 개요

(1) 조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2) 총칙

- 목적 : 조례 제정의 목적
- 정의 : 개념, 용어에 대한 표준 정의

(3) 기본원칙

- 시민대학 운영의 방향원칙, 교육철학, 교육내용
- 조직운영, 재정, 시설 등의 운영방침

(4) 조직구성

- 이사회, 운영위원회, 교과위원회, 시민위원회 등
- 역할구분, 의결사항, 추천원칙, 의결방식, 해촉사항 등

(5) 학사운영

- 입학자격, 학기제, 교과개설, 이수방식 등
- 학사, 석사, 박사 등의 제반 규정

(7) 추진주체 관계설정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 서울시 평생학습진흥원
-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청 등

□ 조례 제정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 (1) 2015년까지 운영되는 서울시민대학은 별도의 조례가 없이 평생교육과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평생교육의 틀에서 ‘서울시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의 정책자문을 거쳐 과목설계와 운영설계를 담당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규모와 수준을 생각할 때 큰 무리는 없었다고 보여짐.
- (2)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기존의 서울시민대학을 심화하고 확대하여 설립하는 관계로 전담부서, 운영인원, 조직구성, 재정회계, 교과편성, 학생선발, 학교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3) 이를 위해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서울시민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내는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고, 미래에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칭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건을 구비해야 함.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갈 핵심내용

- (1) 제1조의 <목적>에는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운영의 사유를 밝히고, 제2조에는 <정의>라는 조항을 두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명칭, 취지, 방향, 활동에 관한 주요한 용어와 개념을 표준화하여 명시함.
- (2) <설립취지>는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하는 필요성, 시대적 상황, 시민적 요구, 시민대학의 방향원칙, 교육철학, 교육범위 등 등을 종합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활동영역>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할 때 전담부서의 업무영역, 유관단체인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분담, 시민대학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
- (4)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조직인 이사회, 운영위원회, 교과위원회 등 여러 추진주체의 구성과 역할구분, 의결사항, 의결방식, 해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5) 조례의 구성요건 가운데 입학자격, 학기제, 교과개설, 이수방식,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등의 제반 규정을 명시한 <학사운영> 조항이 필요함. 기타 구성에 필요한 조항 등은 여러 서울시 <조례>의 일반사항을 참고함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추진

- (1)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확대운영을 위한 학술용역보고서 제출과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설립추진위를 구성하여 조례의 초안을 준비함
- (2) 2016년 1월에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시간상으로 6월까지의 조례가 완료되어야, 이를 근거로 예산작성, 교과편성, 운영요원 구성 등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음
- (3)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위는 공식적으로 설립위원회로 확대 변경하여 실질적인 설립단계에 돌입하여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인 개교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적 성찰과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력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을 향유하는 시민학습권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서울특별시의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개방형”이란 비학위 과정으로 학력,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제한이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 졸업 및 수강할 수 있음을 말한다.
- ② “서울”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지역이름을 말한다.
- ③ “자유”란 학교의 정규과정에 비해 시민대학의 교육내용과 범위가 시민적 요구, 시대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인문학, 민주시민교육, 예술교육, 기술교육 등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시민대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시민적 요구에 의해 개설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부모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하는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입학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 시도 거주민, 재외동포,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소통과 공감에 의한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 ②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 ③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의 역사와 현재의 삶과 미래를 가꾸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진흥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 ① 서울특별시장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제7조(설립범위와 역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요에 의거하여 직접 운영하는 지역별, 연령별, 분야별 시민대학과 이를 총괄하는 본부대학을 설립하고, 일부의 교육은 유관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본부캠퍼스는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전반을 계획·관리하고 시민석사·박사 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 ② 권역별 시민대학은 서울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 ③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대학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 ④ 네트워크 시민대학은 자치구 평생학습관, 시민사회단체, 도서관,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교양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제8조(교육내용)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한 시민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 ① 교육내용은 청소년, 청장년, 부모세대, 베이비부머, 노령층 등 세대별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 ② 교육내용은 인문학, 시민민주주의, 서울학, 예술, 고전, 중국학, 미래학, 통일 등 평생학습의 보편성과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제별 범주를 설정한다.
- ③ 교육내용은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등 각 단계에 부합하는 수준과 방향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제9조(운영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그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 ②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설 및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제10조(재정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을 적극

적으로 해야 한다.

-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및 법규에 따른다.

제11조(교육 협력사업)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2조(이사회)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재정, 예산, 회계, 운영사항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임원구성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단체의 덕망있는 분을 추천 받아 15인 이내로 둔다.

- ① 서울특별시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2) 시민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각급기관·단체의 시민대학 관계자

제13조(운영위원회)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설계, 운영설계, 정책입안 등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운영위원은 각계의 덕망있고 관련업무에 능력있는 인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학위의 수여)

서울특별시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수학점을 취득한 이에게 서울특별시장명의의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붙임 - 2] 시민력 향상과 제고를 위한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예시

<주제1> :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1)

□ 학습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교육> 교과목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 <시민교육> 교과목의 주제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과목 소개
- 강의 계획 및 진행
- 참고 사항 및 필요한 자료

□ 강의 내용

○ 시민교육의 목표

-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의 양성
-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따뜻한 이웃되기
- 일국시민이면서 세계시민

○ 시민교육의 방법

- 이론학습 : 시민이란 누구인가,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갈등 현실, 세계시민 등등
- 현장활동(소개) : 우리 주변의 삶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발적인 활동

○ 참고 사항

- 교재 소개
- 기타 필요한 자료

□ 정리

- 과목의 특성 소개
- 강의진행 과정 소개
- 교재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소개

<주제2> :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 목표
 - ‘시민교육’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 ‘시민교육’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시민교육의 목표
 - 시민교육의 방법
 - 현장활동의 의미

□ 강의 내용

- 시민교육의 목표
 -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
 -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 따뜻한 이웃,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 문화 시민의 덕목, 시민의식(시민성, citizenship)
- 시민교육의 방법과 실천적 활동
 - 시민교육의 주제 및 이론 학습
 - 현장활동(사회봉사활동)의 의미와 사례

- 시민교육의 실질적 효과
 - 자기 변화
 - 타인 이해
 - 세계 알기

□ 정리

- 시민교육의 목표
- 방법과 실천적 활동
- ‘시민교육’의 교육적 효과

<주제3> :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전제(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교육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관계의 철학적 근거를 말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공동체 의식의 본성
 -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의 철학적 근거

□ 강의 내용

- 사회적 관계 : 나, 너, 우리
 - 왜 공동체를 고민해야 하나?
 - 이태석 신부 : 울지마 톤즈(슈바이처) -> 감동과 찬탄, 후속 봉사 지원
 - 인디언의 교육, 핀란드의 교육(경쟁, 스포츠, 교육) -> 교육에 관한 시사점

○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 : 구성원들 모두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의식
-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공동체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 운명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일자리),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 공동체(1) :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하는 생활현장(공간)의 단위 : 상대적
- 공동체(2) :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과 관련한 구분

○ 공동체의 철학적 근거

- 삶의 목표 : 행복, 자기실현(자유) -> 인간의 권리(보편적 가치)
- 인간존재의 특성 - 사회적 동물(관계), 언어적 동물, 정치적 동물
- 사회적 관계(일)의 합리성, 민주성

□ 정리

- 시민교육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
- 사회적 관계의 철학적 근거

<주제4> :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전제(2)

□ 학습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공동체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
-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민운동은 다양한 공동체 운동과 관계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공동체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 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실적 요인
- 시민교육과 공동체 운동

□ 강의 내용

○ 공동체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 아테네의 민주주의, 근대의 사회계약설
- 로크(천부의 인권, 생명 자유 재산 자연권의 보전, 국가의 역할 권한위임)
- 루소(사유재산제도, 부자의 도둑질 권리 가난한자 더욱 가난해질 권리)
- 헤겔(노동하는 노예의식, 인간의 보편적 의식, 나인 우리 우리인 나)
- 맑스(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주의)
- 롤즈(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의 최대 이익 반영되는 정의규칙)
- 샌델(정의란 무엇인가에서의 '연대의 의무')
- 우리의 전통 : 품앗이, 두레, 계, 향약
- 나, 너, 우리 ; 더불어 사는 삶, 사회

○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 - 역사적 현실적 요인들

- 자본주의 : 물질적 풍유, 생활상의 편리함
- 전쟁, 불평등(경쟁, 승자독식,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생태계 파괴
- 인간의 탐욕(이해관계)이 깔려 있다(개인의 측면, 사회구조의 측면)
- 20 대 80, 1% 대 99%
- 월가를 점령하라(금융상품), 분노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희망버스)

○ 공동체 의식과 정신을 회복하려는 노력들 - 다양한 대안(새로운)사회운동

- 교육운동(대안학교운동, 행복학교, 책읽기, 인디언의 국민교육, 핀란드의 교육, 경쟁을 넘어서는 상생과 공존, 클레멘트 코스, 실천인문학)
- 초록운동(녹색운동, 갯벌살리기 등 여러 환경운동)
- 지역화폐 운동
- 사회적 기업(약자들의 일자리)
- 마을만들기 운동 : 풀뿌리 주민운동
- 기부운동, 재능나눔

* '시민'되기

- 서로서로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 갖기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참여

□ 정리

- 시민교육과 공동체의 관계
- 공동체에 관한 역사적 사상적 배경
- 다양한 공동체 운동 : 시민운동

<주제5> : 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담론(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교육의 학문적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민교육의 교육적 담론을 터득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시민교육의 학문적 교육적 담론
 - 지적 능력, 윤리적 능력, 사회적 능력

□ 강의 내용

- 시민교육의 학문적 담론
 - 학문과 평화 : 지구적 현장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모듬판
 - 학문적 권위의 재건 : global eminence의 리더십 실현
 - 소통의 학문세계 : 깊고 넓은 혜안과 창의적 상상력의 배양
 - 화합과 창조적 미래사회 : 평화의 미래를 실현하는 실천의 장(場)
 - 평화와 문화 : 평화가 곧 문화인 인류의 미래사회(평화의 문화세계)
- 시민교육의 교육적 담론 - 교육적 효과(실천적인 현장활동)

- 지적 능력 :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 윤리적 능력 :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
- 사회적 능력 :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

□ 정리

- 시민교육의 학문적 담론
- 시민교육의 교육적 담론

<주제6> : 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담론(2)

□ 학습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실천적 현장활동의 범주와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 세계알기와 경험 확장
 - 미래문명 만들기

□ 강의 내용

- 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의미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

- ▶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 현실알기 : 무엇이 문제인가?
- 탐색하기 : 문제의 경과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상상력 키우기 :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계알기와 경험확장>

-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감 : 그들은 누구인가?
 - 신뢰 :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통 :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 연대 :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공존 :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더 나은 인간’ - 자기변화>

- ▶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 앎 :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실천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삶 :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더 나은 세계’ - 미래문명 만들기>

- ▶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활동의 범주와 형태).
 - 인간에 대한 책임 : 관계 맺기, 나누기, 함께하기
 - 사회에 대한 책임 :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 변화시키기
 - 역사에 대한 책임 : 정의로운 민주사회 발전시키기
 - 문명에 대한 책임 :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 창조하기

□ 실천 영역의 범주와 형태 : ‘봉사활동의 형태’와 ‘만들기(운동)의 형태’

<활동의 범주와 목록>

범주	현장활동
권력감시	- 선거참여활동(공약제안, 투표율 제고 활동, 후보자 지지활동을 위한 자원활동, 불법선거자금 감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정치참여 홍보 활동 - 국정 및 의정 감시 모니터링, 거짓말하는 정치인 모니터링 - 기업 감시, 소비자권리운동
사회적 소수자 권리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성소수자, 다문화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노동·농민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 조사
사회복지적 나눔활동	<p>[협회의 사회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 차상위계층 실태 조사, 지하철 이동권 등 편의시설 실태 조사 - 보건·의료 : 재활치료, 간병활동, 의료보조활동, 한방진료, 의료상담활동 등 <p>[광의의 사회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차원의 사회복지와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시설 자원활동
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구호 : 재난 지역 인명구조, 수해 및 설해 복구 활동, 각종 모금사업 등
대안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 현황조사 -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등) - 사회적기업, 자원활동 등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환경 : 아동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지역하천 및 골목 청소, 생태 탐사, 환경 및 먹을거리 - 지역만들기 : 지역실태조사, 마을만들기, 역사탐방, 마을 지도 그리기, 재래시장 지원 현황조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활동 -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환경캠페인 - 착한소비자활동 - 지역하천 및 골목 청소, 생태 탐사
동물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식물 보호 - 반려동물보호 - 동물 학대 감시 및 동물 보호 모금 활동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자 및 재취업자를 위한 컴퓨터 및 외국어 등 기능훈련 -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학습지도 - 어르신 한글학교, 야학 - 교육현실 조사, 대안교육 조사(대안학교 등)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축제 자원활동 - 벽화그리기 - 문화재 지킴이 - 문화정책 모니터
평화와 지구생태계 보존을 위한 세계시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활동 : 난민, 국제구호활동, 문화교류, 교육, 공공시설보수, 위생시설 건립 등 - 국내활동 : 통일평화 활동,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등 인권 지킴이 활동(멘토 상담,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빈곤, 환경, 전쟁 등 세계문제 관련 자원활동
기타 공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학생 간 인식조사 - 역사인식 현황 조사(민주화 운동, 위안부, 독도, 통일 등) - 민주주의 역사 현장 탐방 - 타인의 삶 체험(노숙인, 성직자, 아버지, 어머니 등)

□ 정리

- 실천적 과정의 교육적 목록
- 실천적 현장활동의 다양한 영역

<주제7> : 시민과 민주주의(1-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민주사회에서 ‘시민이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 시민적 덕목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제2의 탄생과 시민
 - 참여의 권리와 책임
 - 생산의 권리와 책임

- 시민적 덕목 : 자율성과 책임성

□ 강의 내용

○ 시민은 누구인가?

▶ ‘제2의 탄생’

- 루소의 「에밀」 4부 : 생존을 위한 탄생, 생활을 위한 탄생
- 생존을 위한 탄생 : 육체적 탄생, 생물학적 탄생, 자연적 탄생
- 생활을 위한 탄생(제2의 탄생) : 사회적 탄생, 문화적 탄생, 성숙한 시민
- 성숙한 시민 : 관대, 선량, 정다움, 사랑스러움

▶ 민주주의(민주사회)의 시민

- ‘참여의 권리와 책임’ : 민주주의를 지키고 운영하고 지키는 파수꾼
- ‘생산의 권리와 책임’ : 민주사회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나갈 건설자
- 왕정, 독재국가에서 시민은 없다(백성, 신민 등 통치 대상만 있다).
- ‘국민’과 ‘행정도시의 시민’과는 다르다
-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 민주사회에서만 탄생한다.
- 시민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건설자, 운영자, 파수꾼
- 민주주의의 ‘참여와 생산의 권리와 책임’ :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
- 따라서 성숙한 시민되기(시민교육)은 대학의 교육적 사회적 책임

○ 민주사회에서 시민적 덕목(혹은 덕성, civic virtue) : 자율성과 책임성

<전제(화두)>

-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 어떤 제도, 어떤 기구,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 어떤 실천적 활동(운동)을 할 것인가?

▶ 자율성(autonomy)

- 주체적 사고와 판단
- ‘나의 독립성’

- 지적 성숙성(지적 능력) 요청

▶ 책임성(responsibility)

- '자유'의 결과에 대한 책임

-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

- 윤리적 성숙성(윤리적 능력)과 사회적 성숙성(사회적 능력) 요청

□ 정리

○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의미

○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

<주제8> : 시민과 민주주의(1-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적 덕목과 비판적 사고, 관용의 능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시민적 덕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비판적 사고와 그 과정

- 관용의 능력

- 시민의 덕목과 민주주의

□ 강의 내용

○ 시민적 덕목과 비판적 사고

▶ 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가?

- 시민적 덕목의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적 성숙이 요청된다.

- 시민적 덕목의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윤리적 사회적 성숙이 요청된다.

-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사고 능력
- 타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고 행위가 아니다.
- 어떤 정보의 참(眞)과 거짓(僞)을 판단하는 일
-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
- 어떤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별하는 일
- 자신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일
- 사회적 이슈의 해결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일 등등

* 속담과 비판적 사고 :

- ‘똥오줌도 못 가린다’.
-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한다’
- 가리다, 분별하다

* 참고 : 논리적 사고(주장과 근거의 정합성)

- 논리(logic), 로고스(logos), 대화(dialogos)
- 주장과 근거 : a는 b이고, b는 c이다. 고로 a는 c이다.
- 형식 논리 : 연역과 귀납

▶ 비판적 사고의 과정

- 의문(의심, 회의), 반성(인식론적, 윤리적), 성찰
- 분별력 : 사실인가(참인가 거짓인가), 옳은가 그른가
- 타당성 :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포플리즘인가 아닌가
- 합리성 : 이치에 맞는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한가

○ 시민적 덕목과 관용의 능력

-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려는 능력
-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
- 공존의 윤리를 지키려는 삶의 자세

* 볼테르의 ‘관용의 가치’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

○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사회 : 시민적 역량에 달렸다.

- 주체적 사고와 판단
-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
- 비판적 사고와 관용을 통한 성숙한 지적, 윤리적, 사회적 능력

□ 정리

- 시민의 덕목과 비판적 사고
- 시민의 덕목과 관용의 능력
- 시민의 덕목과 민주주의

<주제9> : 시민과 민주주의(2-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시장,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
- 민주정부의 역할
- 시민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 : 특히 시장의 문제
- 시민사회의 중요성

□ 강의 내용

○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벤자민 R. 바버)

▶ 시민사회의 역할

- 큰 '정부'의 횡포와 '사적 영역' 모두를 견제할 수 있다.
- 상업적 '시장'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를 유지할 있다.
- 공동체주의적 도덕률을 유지하는 시민적 신념을 불러일으킨다.
- '시민적 신념'은 다문화 사회에서 유일한 사회 통합 수단이다.
(법적 애국주의 : J. 하버마스, 혈연보다 중요한 도덕적 감정 : 링컨)

▶ 민주 정부의 역할

- 시민적 공간의 창조
- 관료적 침투로부터의 보호
- 시민사회의 활기찬 담론 육성
- 따라서 민주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
- 물론 민주적 시민사회가 민주적 정부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것처럼

▶ 시민사회의 기능

- 의사소통이 원활한 시민성과 풍부한 담론이 형성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의미있는 공적 활동 공간 만들기

▶ 시민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

- 오만방자한 정부 : 시민은 통치 대상이고 종속적 존재, 결국 시민의 적
- 시장 중심주의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민영화, 개인주의적 탐욕과 물질주의적 문화, 공공선의 실종, 자율적 시민은 맹목적 소비자로 전락
-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둔 공동체 : 결속력 강한 공동체 내부자들의 평등만을 중요한 것으로 규정, 다른 사람들은 외부인으로 소외당함

▶ 시장과 민주주의

- 특히, 왜 시장이 문제인가?
- 시장의 신화 : 우리들의 가장 고질적인 신화

- 소비 :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일종의 중독이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구속
- 민주주의는 시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 정치(인)의 실책 :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시장의 무책임함 : 소환할 방법도 힘도 없다(의인화된 인격, 법인).
- 자본주의 : 민주주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불러옴.
- 자본주의 :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킴.

▶ 시민사회의 중요성

- 시장은 민주정치 체제나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함.
- 시장의 소비자 : '나'라는 분열적인 수사 구사
- 시민 : '우리'라는 공동의 언어로 공공선 개발
- 따라서 시장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계 필요
-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강한 정부의 요청
- 이때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유 시민의 목적 추구를 위한 대리인, 최선의 수단

□ 정리

- 시민사회와 민주정부의 역할
- 시민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과 시장의 문제

<주제10> : 시민과 민주주의(2-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결사의 자유(연대의 권리)
- 민주주의와 교육
-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본질

□ 강의 내용

○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알렉시스 드 토크빌)

- 정치적 결사 : 무수한 결사 집단 가운데 단지 하나의 유형에 불과
- 일상생활에서 결사체 구성 : 문명의 창조이면서 지키기
- 민주주의(민주사회) : 다양한 시민운동과 공동체 운동 요청
- 연대의 권리 : 민주주의의 힘이고 실현

○ 민주주의와 교육(존 듀이)

▶ 민주주의의 의미

- 첫째, 사회통제의 중요한 방법 : 다양한 상호 관심사 인정(권력적 관계 아님)
- 둘째, 다양한 상호작용과 다양한 새로운 사태에의 적응
- 따라서 민주주의 : 공동생활의 형식, 경험 공유의 방식(정치 형태를 넘어섬)
- 민주주의의 발전 : 공동 관심 영역의 확장, 개인의 다양한 능력의 충분한 발휘

▶ 민주주의와 교육

- 플라톤의 교육 이상 :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통합, 안정을 동일시
- 루소의 교육 철학 : 사회는 인간성의 발휘 전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실현
- 칸트의 교육 철학 : 개인 교양의 발달과 사회 훈육을 동일시
- 교육 : 사회적 과정(국가, 정부의 목적과 사회적 목적 사이의 갈등 극복)
- 교육 : 구성원과 집단의 관심 공유, 집단들의 풍부하고 자유로운 상호작용
- 교육 : 사회적 관계에 직접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지적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

* 참고) 독일의 정치(시민) 교육 :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장

- 전쟁과 나치에 대한 반성
- 55년간 전쟁 없는 역사
- 통일과정에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본질(노암 촘스키)

▶ 교육과 실천(행동)

- 교육은 시작이고, 인식도 시작이다.

- 진정한 인식 :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찾아옴
- 인식 후에 실천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인식
- 인식과 행동의 상호작용
- 실천적 교육의 요청 시대

▶ 시민운동의 본질 : 실천(행동)

- 변화의 진정한 주체 : 풀뿌리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
- 봉사활동과 대안사회운동(‘현장활동의 범주와 영역’ 참조), 저항운동
- 저항운동(권위와 억압구조 철폐운동) : 반전반핵 운동, 민권운동, 노동운동 등
- 산업민주주의 운동 : 인류역사상 가장 전체주의적 중앙집권 기관은 기업

* 토마스 제퍼슨 : “만약 권력이 금융기관과 돈 가진 법인들 손으로 자꾸 흘러들어 간다면, 민주주의의 실험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저항해 왔던 식민지 시대보다 더 못한 절대전제(전체주의)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 맹자의 민본사상 : <개나 돼지(부패 권력)가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어치우는데도 제지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데도 창고를 열어 구제할 줄 모르고, 백성들이 죽으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흉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니, 이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서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 정리

- 교육은 개인(구성원)과 사회(집단)의 관심을 공유하게 하는 것
- 교육은 사회변화를 도모하게 하는 지적 습관을 기르는 것
- 시민운동의 본질은 실천(행동)에 있다.

<주제11> :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성장(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현대사를 시민적 자유권의 성장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사를 시민적 사회권의 성장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역사의 의미
- 현대사의 정치적 측면
- 현대사의 사회경제적 측면

□ 강의 내용

○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해하기

▶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 헤겔 : 이성의 시대정신 현현(이성의 필연적인 자기전개 과정), 인간의 자유의식의 진보과정
- 역사적 현장 : 개인의 다양성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삶의 모듬판(좌초, 분노, 환멸, 열정, 꿈과 희망 실현, 개인의 치열한 행위들, 다양한 관계)
- 과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what is past is prologue)
- 역사적 경험 : 역사적 교훈

▶ 역사에 눈감은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

- 과거의 현재 구속성(역사적 경험과 결과의 필연적 영향)
- 미래의 현재 규정성(미래비전, 계획의 구체화 과정)
- 역사는 오늘의 역사(E.H 카), 역사적 매개는 현재(헤겔)
 - * 바둑과 인생(역사)

○ 한국 현대사 개괄

- ▶ 정치적 측면 : 시민적 자유권의 성장 관점
 - 근현대사 :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근대적 가치관의 혼재, 압축적 근대화 과정,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체계로 맹목적 수용
 - 정치사 : 달콤한 곁을 입힌 쓰디쓴 당의정과 같은 것(반공 이데올로기, 유신독재, 체육관 민주주의)
 -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 1인 보스 중심의 정당 구조, 몇 십년 간에 걸쳐 철옹성 같이 굳은 주류 기득권층 중심의 정치 풍토,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형식상 제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 운용 원리로서 작동하지 못함.
 - 한편, 간단없는 민주화 운동, 시민사회 운동의 성장, 노동운동의 활성화
 - 민주주의 질서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밑거름 역할 수행
 - 특히 제도 정치권의 민주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그 결과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최고의 가치체계로 자리잡음
 - 과제 : 시민의 '참여적 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적 공동체 사회

- ▶ 사회경제적 측면 : 시민적 사회권(경제권, 문화권)의 성장 관점
 -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중층적 사회구조 :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공존
 - 관습, 윤리도덕, 법에 관한 의식변화 :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 핵가족, 개인적 유목적성, 결혼관의 변화, 산아제한(저출산), 다산이 다복, 직업의식의 변화, 물질 중심적 가치, 왜곡된 욕망 등등
 -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현실의 변화 : 절대빈곤 극복, 부동산 개발과 투기의식 만연(집단적 양심불량증), 산업화, 정보화, 최첨단 사회의 특성
 - '의식주'의 소유형태와 소비형태의 변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
 - 과제 : 물질의 가치, 문화적 생활(시민적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질(객관적 지표, 주관적 만족과 행복)에 관한 올바른 인식, 건강한 욕망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사회의식

□ 정리

- 역사 인식의 중요성
- 시민적 자유권의 성장
- 시민적 사회권의

<주제12> :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시민의식의 성장(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현대사를 철학적 관점에서 시민의식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 현대사를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욕망과 사회의식
 - 철학적 상상력과 시민의식
 -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 강의 내용

- 철학적 접근 : 시민의식 성장과정 이해하기
 - ▶ 욕망과 사회의식
 - 인간의 욕망 : 목적의식적 표출과 충족(동물 : 감각적 충족)
 - 생명체의 본능 : 자기보존의 본능(식욕), 종족보존의 본능(성욕)
 - 욕망 구조 : 개인의 활동 규정, 사회적 관계와 사회의식 형성
 - 사회의식 : 삶(생활)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적 의식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 계층 혹은 계급적 처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 의식의 흐름, 취미와 기호는 아님)
 - ▶ 철학과 상상력의 빈곤
 - 사회의식의 왜곡(허위의식화) : 국가 권력에 의한 세뇌(교육과 미디어), 주류 사회적 의식에 의한 고착화(시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의식, 명품과 유행 등)

- 국가주의 철학 : 반공 이데올로기, 한국적 민주주의, 국민교육헌장, 국민윤리, 전체주의, 경제 제일주의
- 주입된 사회의식을 주체의식으로 착각
- 철학과 상상력이 빈곤한 사회
- 건전하고 다양한 사회의식 제한, 매도
- 정신적 가치 피폐, 사회의식의 획일화, 보편적 가치 상실
- 민주화 과정 : 보편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회복하는 과정
- 시민사회의 성장 : 비합리적 비민주적인 사회 관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동력
- 물질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 존중하는 사회의식 북돋움
- 다양한 가치 창출 : 철학적 사고와 상상력의 깊이 더하고 폭을 넓히는 힘 (지속적인 선순환 활동과 구조 필요)
- 물질 중심의 사회 통념적 가치 제거, 시민적 덕목과 시민사회의 윤리 확립, 건 강한 욕망 구조로 개편, 합리적인 삶의 방식

○ 한국인의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의 실현

▶ 정체성의 변화

- 통상 한국인의 정체성 : 전통(과거)에 집착하는 보수성, 권위주의 등의 인성적 특징(전통 사회의 특징인 가족과 가문, 사회계층과 신분, 국가 등을 강조한 유교적 가치관의 산물)
- 정체성의 변화 : 역사적 경험
- 산업화 이후 정체성 변화 :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변화적 이중구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배적인 사회의식
- 젊은 세대일수록 경쟁의식, 이기심, 자아 존중감, 합리성 등의 정체성
- 이중적 의식과 태도 : 겉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를 경멸 비난, 속으로는 앞다투어 물질적 가치와 돈에 집착
- 근원 추적 :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의 경멸과 비난'의 근거인 가치 추구
- 이것을 일단 정신적 가치라고 한다면, 전통적 내재적 가치 회복 가능성
- 정신적 가치 : 도덕적 규범, 합리적인 인간관계,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의식

▶ 보편적 가치의 실현

-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 :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
- 보편적 가치 : 평화에 대한 추구, 인권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 공동체적

- 유대와 사회적 연대, 양성평등, 생태지향, 분배정의 확립
- 세계 시민적 사회의식 :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 가치, 다양성의 통일
-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사회 발전의 필요성

□ 정리

- 건강한 욕망과 사회의식
- 철학적 상상력, 정체성 변화, 보편적 가치의 실현

<주제13> : 시민의 참여와 현장활동의 실제(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한국사회에서 시민배제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사회에서 시민의식의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한국사회의 ‘시민’의 탄생
 - 시민참여의 역사적 과정

□ 강의 내용

- 시민의 탄생과 시민배제 사회
 - ▶ 한국사회의 ‘시민’의 탄생
 - 정치사회적 격랑 :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 압축적 근대화, 비동시성의 동시성
 -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 탄생
 -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탱하는 근간

- ▶ 근대적 시민에 관한 논의
 - 대체로 1960년 4.19 혁명을 기점으로 출현한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시민의식의 고조 : 근대 전환기를 전후
 - 가령, 조선 후기 민중반란, 동학농민전쟁, 식민시기의 3.1 운동, 독립항쟁
 - 따라서 한국적 시민의 형성 : ‘시민의 부재’가 아닌 한국 민주주의 특성으로 이해
(물론 유럽과는 상이한 경로이지만)

- ▶ 한국 현대사와 ‘시민의 배제’
 - 시민 배제 사회의 비극 : 해방직후부터 민주화 시기(1987년)
 - 시민의 정치적 자유권마저 부정
 -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로 무죄 판결)
 - 유신체제, 긴급조치, 언론통제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수병 등 8명 사형, 2007년 서울중앙지법 무죄 판결)

- ▶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과 그 그늘
 - 권위주의적 노동 통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 인간적 삶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 희생(전태일의 분신 사건)
 - 농촌 해체와 농민의 희생
 - 도시화 과정 : 이주와 철거 정책으로 빈민의 삶의 터전 상실과 생계 고통
 - 여성들의 서러운 삶 : 근대화 과정의 또 다른 자화상

- 시민참여의 역사적 과정
 - ▶ 시민의 역사적 등장
 - 역사적 사건 : 4.19 혁명,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 87년 민주화 운동의 계기 : 현재의 민주헌법 제정
 -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전국적 차원의 조직화
 - 언론, 교육, 경제정의, 권력 감시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운동 전개
 - 과제 :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 시민사회의 활성화

 - ▶ 다양한 시민 참여 운동 : 1990년대를 전환점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운동 :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다문화 가정
 - 생태 및 환경 운동, 먹거리 안전 운동

- 사회운동가 외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참여
-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 촛불집회(중학생, 주부까지), 소셜테이너(사회문제에 참여하는 연예인)
- 청년 대학생 운동의 변화 : 정치 이념 중심에서 청년실업, 등록금 문제 등 자신들의 생활 문제로까지 확대

○ ‘시민이 알아두어야 할’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

- 주민발의 제도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 주민감사청구 제도 : 법령 위반 및 공익 침해 관련 주민감사 청구 제도
- 주민소송 제도 : 감사청구 결과의 이행을 위한 주민소송 제도
- 주민투표 제도 :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제도
- 주민소환 제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해임 여부 주민투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제도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 정리

- 한국사회의 근대적 시민, 시민배제 사회의 비극, 참여민주주의의 제도

<주제14> : 시민의 참여와 현장활동의 실제(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현장활동 및 시민참여를 이해할 수 있다.
- 현장활동은 시민참여의 출발임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현장활동
- 시민참여

□ 강의 내용

- 현장활동의 사례 이해
- 서울시민대학의 특성에 맞는 현장활동 및 시민참여 고민하기

□ 정리

- 현장활동과 시민참여

<주제15> : 국가와 시장(1-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국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시장의 권력(시장 전체주의)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자본(시장)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 : 국가의 도구화
-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장의 특성
- 시장의 권력(시장 전체주의)

□ 강의 내용

* 이 주제(국가와 시장)의 전체 물음(전제)

첫째, 정의로운 국가는 무엇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공정한 시장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시장의 인간화는 가능한가?

○ 국가 역할의 변화

- ▶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가?
 - 20세기는 체제의 시대, 국가의 시대였다.

- 21세기도 여전히 국가의 시대일까?
- 분명히 '효율적인 국가'는 선진국이고 선진화하고 있다.
- 시장경제는 효율적인 국가를 원한다.

▶ 효율적인 국가(?)

- 일본, 독일 : 시장경제(자본주의, 돈)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 중국의 사회주의 : 효율적 국가의 중국적 변형(흑묘백묘론, 실용주의)
- 값싼 노동력, 자본의 축적, 수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를 경제적 전시체제(동원체제)로 만들었고, 인적 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시장의 권력 : 리바이어던(Leviathan)

▶ 시장은 우리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좌우한다.

- 시장의 균림 :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 인간적 삶의 요소 : 주거(삶의 터전), 교육(삶의 지혜), 환경(자연) 등도 상품화
- '시장 전체주의'

▶ 국가의 도구화(?)

- 국가는 시장 경영의 도구(교육, 산학협동, 자금지원 등등).
- 이는 역으로 기술(개발)이라는 내용이 자본이라는 형식을 빌어 국가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 심지어 시민사회 단체의 환경운동(국가 정책에 반영)도 자본의 새로운 활동무대이다(수소 연료 등등 친환경산업).
- 결과적으로 자본은 국가를 매개로 환경운동도 이용한다?
- 어찌면 자본(기술)은 국가를 넘어서는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봉건적 영지 - 국민국가 - 지역 블록 : EU, 아세안, 북중미 블록 등등)
- 자본이 국가의 역할을 결정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 역사의 내용이고, 조직(국가)이 역사의 형식이다.

* 시장 전체주의의 극복 가능성(?), 방안(?) : 시장의 인간화

□ 정리

- 국가의 역할 변화
- 시장의 리바이어던

<주제16> : 국가와 시장(1-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장(교환)의 역사적 기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성과 그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시장의 기능 변화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 시장 신화의 강화
 - 상품과 가치의 본래적 의미의 이해

□ 강의 내용

- 시장의 역사적 기능
 - ▶ 나눔과 교환
 - 물물교환
 - 재화와 정념(pathos)
 - 시장 : 이질적 공동체의 교류와 협력, 나눔의 경제행위
 - 인간의 문화적 역량의 성숙 : 공동체 간의 상호의존과 공동 번영
 - 도덕적 경제관념의 존중(초기 자본주의에서도)
 - ▶ 오늘날의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경쟁?)의 세계화
 - 산업경제를 대체한 금융자본주의
 - '이윤동기'의 절대화
 - 자기조절적 시장의 신화 강화('보이지 않는 손'?과 그 허구)

▶ 자본주의 체제 위기(?)

- 과잉의 상태(맹목적 욕망)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 미국발 :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서버프라임 모기지(mortgage) 사태 등
- 유럽발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위기
-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리바이어던 : 국가권력이 시장권력에 종속
- 국가의 시장 통제권 회수(규제 철폐)
-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관세 철폐)
- 국내적 차원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부의 양극화('1%를 점령하라')
- 복지국가 이념의 위기
- '공공선' 이념의 붕괴

○ 참고 : 상품(자본주의 사회의 '세포')과 가치

-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대상으로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닌다.
- 욕망은 상품의 사용가치에 의해 충족된다(욕망 충족이라고 착각 : 교환가치).
- 상품 교환의 근거 : 질(동일)과 양(차이)의 관계, 공통점 - 가치
- 따라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
- 사용가치 : 구체적인 유용 노동 - 노동의 구체성
- 가치(교환가치) : 추상적인 인간 노동 일반 - 노동의 추상성
- 상품의 가치는 노동(추상적)의 양, 상품 가치의 크기는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사회적 평균적 필요노동 시간 - 노동의 생산성과 연관됨) : 가치 법칙

* 역사적 과정 : 단순 가치형태, 확대된 가치형태, 교환, 화폐, 산업자본, 금융자본

○ 과제

- 공정한 시장, 인간화된 시장
- 정의로운 국가
- 결국 공동체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 정리

- 시장의 역사적 역할
- 이윤동기를 절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그 위기
- 상품, 노동, 가치에 대한 본래적 이해

<주제17> : 국가와 시장(2-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시장 메카니즘과 허구적 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 비인간적 시장권력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시장 메카니즘의 자기조정 기능
- 노동, 토지, 화폐의 허구적 상품성
- 국가의 기업화와 과학의 상품화

□ 강의 내용

* 주제 : 왜 시장이 문제인가?

○ 시장 메카니즘과 허구적 상품들(칼 폴라니)

▶ 시장 메카니즘 : 상품 거래(상품 : 자본주의의 세포)

- 시장경제 : 오로지 시장만이 통제, 조정, 방향을 지도하는 경제체제
- 재화의 생산과 분배 : 시장의 자기조정(self-regulation) 메카니즘에 맡겨짐
- 자기조정 : 생산은 시장에서의 판매 목적, 소득은 시장의 판매에서 발생
- 상품과 가격 : 재화(상품가격), 노동(임금), 토지(지대), 화폐(이자)
- 문제는 노동, 토지, 화폐라는 상품이다.

▶ 자기조정 시장의 전제

- 어떤 시장이든 그 시장의 형성을 금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어떤 소득이든 시장 이외의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가격변화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시장 : 경제영역을 조직하는 유일한 권력, 그 필요조건만 창출(정책과 법안)
- 시장 그물망 : 공급과 수요에 따fms 모든 시장의 연결망, 하나의 일반 시장

▶ ‘노동, 토지, 화폐’, 과연 상품인가?

- 상품 :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
- 노동 : 인간활동의 다른 이름, 생명, 사람과 분리될 수 있나?
- 토지 : 자연의 다른 이름, 인간이 자연을 생산할 수 있나?
- 화폐 : 구매력의 징표일 뿐, 판매를 위해 생산한 것인가?
- 따라서 노동, 토지, 화폐는 허구적 상품이다.

▶ 노동시장(?), 토지시장(?), 화폐(금융)시장(?)

- 노동 :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구매자)가 마음대로 처리한다.
- 토지(자연) : 시장의 구성요소로 환원되어 ‘삶의 터전’의 의미를 상실한다.
- 화폐 : 시장기구의 관리는 화폐의 부족과 과잉으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다.
- 노동, 토지, 화폐는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 허구적 상품으로 시장사회의 조직원리가 되었다.
- 인간사회는 모든 면에서 경제체제의 부속물이 되어버렸다.

○ 값비싼 석유만큼 값싼 노동력(마이크 데이비스)

- 주식회사 두바이 : 수장이 곧 CEO, 고위 경영자들이 정부의 중요 직책 수행
- 국가와 사기업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 개인의 자유도 헌법이 아닌 사업 계획에서 도출된다.
-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크 : 생명, 자유, 재산)’는 망상이다.
- 모듈화된 자유
- 노동조합, 파업, 선동행위 일체는 불법
- 대부분 남아시아 노동자(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등)
- 밀수, 매춘 사업, 현찰로 25채 구입하는 사람은 그냥 외면, 그러나 노동자나 가정부의 인간적 대우의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한다.

○ 과학의 상업화(제니퍼 워시번)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의 상업화
- 미국 의료학회에서 제약회사 대표 : '4주 이내에 환자 다섯 명을 모집하면 약속된 금액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저희는 철수할 것입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학자들(케인스, 슈페터, 민스키, 어빙 피셔, 그리고 마르크스 등)이 돌아오고 있다.

□ 정리

- 시장 메카니즘과 허구적 상품들(노동, 토지, 화폐)
- 시장권력의 비인간적 사례들

<주제18> : 국가와 시장(2-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자유시장론자들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 시장의 경계와 정치적 결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자유시장
- 시장의 경계
- 규제의 다양한 예

□ 강의 내용

○ 자유시장이란 것은 없다(장하준)

- ▶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주장

-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 정부 개입은 자원의 적재적소 사용을 방해한다.
- 정부의 개입은 높은 이윤을 낼 수 없다.
- 자유시장의 전도사 밀턴 프리드먼 : '선택의 자유'(free to choice)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 자유시장은 없다?

-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이유는 바탕에 깔려있는 규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 시장의 자유를 규정할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
-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 홍콩 영화의 쿵푸의 대가들 : 피아노 줄에 메달려 있다.

▶ 시장(거래) 규제의 엄청나게 다양한 예

- 마약, 인간장기, 투표권, 공직, 판결, 대학입학 자격 등등
- 총기나 술(국가에 따라), 의약품 시판 전의 안전성 공인 요구
- 노예거래(규제받지 않은 과거가 있다 ; 정치적 논란)
- 의사 변호사 등등 각종의 면허 필요
- 가격 규제
- 노동시장과 관련한 이민정책
- 임금과 이자율의 정치적 결정 :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은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
- 자본주의 역사는 시장의 경계를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미국의 남북전쟁 : 노예 매매, 아편전쟁 : 영국과 중국의 아편 거래)
-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다.

▶ 자유시장의 객관성은 환상이다(자본주의 이해의 첫걸음)

- 시장의 경계 모호, 객관적 규정 방법 없다.
- 경제학은 정치적 행위다(물리학, 화학과 같은 과학이 아니다)
-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 : 시장영역의 확대, 돈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의미(시장은 1달러당 1표 원칙에 따라 작동)

- 규제 철폐, 규제도입 반대 :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정치적 표명에 불과
- 자유시장을 경제학적 진실이라 함은 억지에 불과

○ 오늘날의 기업

- 사회를 압도하고 권력구조를 창출한다.
- 이타심, 수치심, 공동체에 대한 관심, 진실성 등은 없다.
- 법인(법적으로 인격권)이면서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다.
- 유기체적 실체가 아닌 서류작업의 집합체에 불과 : 그러나 엄청난 권력 부여
- 사회적, 환경적, 공동체적 이상과는 무관, 오로지 자기이익 증진을 위해 설계
- 인간이 만든 가장 권위적인 제도 : 최고경영자의 무제한의 권력
- 최고경영자의 무책임 : 고용인들의 삶에는 결정적 영향을 준다.
- 인간적, 공동체적 기업을 고민해야 한다

□ 정리

- 자유시장과 시장의 경계
- 자유시장과 정치적 결정
- 기업의 비인간적 모습

<주제19> : 국가와 시장(3)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빈곤 문제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 시장의 힘을 넘어서는 대안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빈곤문제의 본질

- 공존의 기업체
- 협동조합의 힘

□ 강의 내용

* 주제 : 빈곤문제 인식과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 운동

○ 빈곤에 관한 견해

▶ 빈곤 문제의 세계화

- 빈곤 : 개인 혹은 개별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문제
- 빌 게이츠(2008년 다보스 포럼) : “자본주의는 이제 시장의 힘을 가난한 나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써야 한다”(창조적 자본주의 Creative Capitalism)
-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발달에도 빈곤이 지속적인 이유(?)

▶ 빈곤의 현실

- 신빈곤, 즉 근로 빈곤 :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빈곤
- 첫 번째 신빈곤 :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신빈곤이 심각하다)
- 두 번째 신빈곤 : 저임금 근로(저임금 근로 비중이 높을수록 신빈곤이 심각하다)
- 세 번째 신빈곤 : 잠재적 실업(외국과 구별되는 한국의 특수한 지표)
- 실직이 곧 빈곤인 이유 :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

▶ 빈곤에 관한 견해 1(우파) : 경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다.

-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다.
-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루면 해결된다.
- 특히, 빈곤을 도덕적인 문제로 본다. 즉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빈곤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 빈곤에 관한 견해 2(좌파) :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취약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 사회안전망(사회보험 등) 취약,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신빈곤의 원인이다.

- 개인의 문제보다 시장의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정부의 적극적 개입, 보편복지)

○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 운동

▶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기업체제

- 첫째, 인간적 규모의 이익 공동체(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노동자 소유의 기업, 지역적 기업, 독립적 기업, 가족 소유 업체, 독립소매 점포, 소규모 농장, 소규모 공장, 농민시장, 지역공동체 은행)
- 둘째, 한 장소에 뿌리를 둔 사업체(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가능)

▶ 배려 자본주의(compassionate capitalism), 윤리적 세계화(ethical globalization)

- 인도의 아라빈드 병원과 인공수정체 사회적 기업 오로랩(교재 245쪽-247쪽)
- 필요에 따라 치료받고 능력에 따라 낸다(중간 단계를 생략한 자선)
-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던 인공수정체 값을 300달러에서 5-10달러로 낮춤
- 지구촌에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 40억 명, 시장 경제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배려 자본주의와 윤리적 세계화로 끌어 안아야 한다.

▶ 이탈리아 볼로냐가 선택한 이유 : 협동조합

- ‘붉은 도시’ 볼로냐 : 붉은 벽돌 건물, 좌파 지방 정부, 협동조합의 수도
- 협동조합(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자 식탁까지) : 8000개, 경제 비중의 45%
- 실업률이 낮고, 경제위기 때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 “협동조합을 경험해 보면 안다. 협동조합을 알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진다.”

□ 정리

- 빈곤의 본질 이해하기
- 배려 자본주의, 윤리적 세계화
- 공존의 기업체와 협동조합

<주제20> : 우리사회의 갈등현실(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갈등의 사회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과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갈등의 사사화와 사회화, 갈등과 민주주의
- 한국사회의 갈등 지형과 경향

□ 강의 내용

○ 갈등의 사회화

▶ 갈등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갈등 제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 갈등 조정력과 합의의 원리 : 민주주의의 정치적 문화적 핵심 가치
- 합리적인 조정과 성숙한 타협 : 갈등은 역동적인 사회 발전의 원동력
-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보존 욕망과 공동체 의식의 균형적 타협

▶ 갈등의 사회화

- 사적 이해관계의 갈등 상황 :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
- 가령, 비정규직 문제 : 개별사업장 문제 아닌 고용구조나 경제체제 운영 관점
-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특히 우리사회)는 강자의 '무한독주'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생명을 건 투쟁'(1% 대 99%) : '분노하다, 점령하라'
- 갈등의 해결 능력,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

○ 갈등의 민주적 역동성(데이비드 아더매니)

- 정치가 갖는 역동성의 기원은 투쟁(갈등)에 있다.
- 정치의 과정과 결과는 갈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갈등의 범위

-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에 관여하는가
- 갈등의 사사화(기업활동 자유, 사생활 보호 등)와 사회화(평등, 공존, 시민권 등)

- 약자 : 갈등의 사회화 필요, 힘의 균형이 변할 때까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함
- 민주주의는 갈등의 사회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다.

▶ 갈등의 가시성

- 가시적인 이슈일수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의 정책과 책임의 공개, 통치과정의 변화
- 가시적 이슈 확대, 갈등 증폭

▶ 갈등의 강도

- 시민들의 큰 이슈들에 대한 관심 증대(인권, 외교, 경제정책, 전쟁과 평화 등등)
- 갈등의 강도 높아짐

▶ 갈등의 방향

- 수많은 갈등 발생
- 갈등의 균등성은 공동체의 갈등 완화 가능성을 오히려 없앤다.
- 우선 순위가 높은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되는 경향

* 갈등은 민주주의의 중심 요소, 따라서 시민은 갈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 갈등의 지형과 경향

▶ 압축 갈등(압축 성장과 근대화) - 비동시성의 동시성

- 갈등의 일상화, 보편화 : 권위주의적 억압을 거쳐 민주적인 표출과 확산 경험
- 갈등의 구조화 및 응축 :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탈근대화
- 갈등 관리 능력은 부정적인 편 : 합리적 협상과 절차적 조정 기제 부족, 소모적인 감정적 대응과 사적 이해의 극대화를 우선시

▶ 갈등 지형

- 전방위적 갈등 양상 : 계층, 노사, 이념, 지역, 성별 갈등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슈화된 환경, 세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문화 갈등까지
- 최근 갈등의 심각성 : 소득 불평등의 문제(빈부 격차, 양극화)

▶ 갈등 경향

- 갈등의 일상화 : 빈부,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야의 정치 갈등 등
- 지역 갈등 : 영호남,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
- 이념 갈등 : 고질적 측면, 언론과 정당의 과대 악용
- 세대 갈등 :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갈등 증폭 확대

* 갈등 관리와 조정의 거버넌스 필요, 시민사회의 활성화

□ 정리

- 갈등의 사회화, 갈등과 민주사회의 역동성, 한국사회의 갈등조정 거버넌스 필요

<주제21>: 우리사회의 갈등현실(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한국사회에서 갈등 사회화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갈등 지도 그리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갈등 사회화의 실패
- 갈등 지도 그리기의 의미

□ 강의 내용

○ 갈등 사회화의 실패

▶ 선악 가르기에 뒤틀린 대의정치(장달중)

- 복지(선별 복지, 보편 복지) : 포퓰리즘(populism) 논쟁
-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등
-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빈곤화 현상”

-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답’을 찾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찾아 내는 일
- 문제 원인에 관한 비판적 사고(의문과 성찰의 과정)
- 그런데 우리 현실 : ‘무엇이 옳은가’보다 ‘누가 옳은가’에 매달리는 모양새
- 공공이익 포퓰리즘 : 긍정적 평가 가능

▶ 갈등 반영의 제한성(신진욱)

- 대중매체(민주 사회의 대표적 공론장)의 보도 프레임(갈등 사회화)의 문제점
- 국가권력 이슈(정부, 정당, 정치, 경제, 북한 등등) 관련한 갈등 사건에 비중을 둠
- 정치체제(권력) 중심부의 언어적 갈등 행위, 즉 비난과 비방
- 반면 노동, 여성, 환경, 복지, 언론, 교육 등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갈등 등한시
- 공론장이 주변부(시민사회 행위자들)의 갈등 현실을 배제하거나 주변의 일 정도로 반영한다면, 공론장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이재경)

- <저널리즘의 기본요소>(빌 코바치, 탐 로젠스) :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을 추구하는 일
- 그리고 진실 추구의 과정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갈등 요소를 포함하는 기사의 경우 다원적 관점의 사실이 중요
- UPI 통신사의 사훈 : “사실만 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표출하는 단어는 예외 없이 삭제한다는 원칙(형용사, 부사, 동사 등)
-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 :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아니라 단절에 이르게 된다.”(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
-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과 방향을 공유하는 정치세력의 대리인 처지로 전략
- 당파성을 정의로 착각, 의제를 앞세우는 기사와 칼럼 쓰기 일상화
- 갈등유발형 저널리즘 : 한국 저널리즘 상황을 요약한 개념

○ 갈등 지도 그리기

▶ 갈등의 사회화

- 갈등 발생 과정 : 사회적 희소가치(권력, 부, 명예 등)에 대한 소유 및 접근 기회의 차이에서 갈등 야기,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정책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
- 갈등은 사회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 갈등 없는 사회 : 죽은 사회, 문제는 합리적 타협과 해결능력(시민적 역량)
- ▶ 갈등 지도 그리기 : ‘사회적 문제’와 ‘나의 문제’의 가교 역할
 - 구체적 사례 수집 : 한미FTA, 대북지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 등
 - 갈등 보드(범주화) : 이념, 계층, 종교, 인종, 지역, 세대 등
 - 갈등 원인 분석 : 역사적 차원, 사회구조적 차원, 미시적 맥락 등에서 분석
 - 갈등 전개영역 분석 : 의제영역(의제설정 여부의 갈등), 담론영역(각각의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논의과정의 갈등), 정책영역(정책 채택 및 제도화 여부의 갈등)
 - 갈등의 성격과 변화 과정 분석, 갈등의 사회화(공론화)의 특성 및 강도 분석
 - 숨은 갈등, 공론화되지 못한 갈등,의 원인 분석
 - 갈등 : ‘사회의 문제’와 ‘나의 문제’로 인식

□ 정리

- 선악 가르기의 대의정치, 갈등반영의 제한성, 갈등유발형 저널리즘, 갈등지도

<주제22> : 세계시민 - 공존의 윤리(1)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공존의 윤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공동체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
 - 공존의 윤리
 - 세계시민과 세계공동체

□ 강의 내용

○ 공존의 윤리

▶ 지구적 사고, 지역적 행동

- 오늘날의 특징 : 세계화, 글로벌, 지구촌, 지구화
-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문명 : 문명 간의 대화와 공존, 타자와의 공감능력 요구
- 가령, 빈곤, 전쟁, 기후 등 : 특정 국가의 특수한 문제 아니다.
- 역사적으로, 문명화 과정이 연대와 협동, 자급과 자치의 공동체 해체 측면 있다.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국가와 시장 속에서 배타주의적 갈등과 분쟁의 세계사라는 부정적 측면 있다.
- 자본주의 발달의 물질적 풍요, 생활의 편리함, 성장 등의 이면
- 생태환경의 심각한 평형 상실(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 공존의 윤리 : 지구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적 노력
-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세계공화국(칸트)의 의제까지
-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공존의 윤리의 과제

- 첫째,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내외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불평등 구조, 전쟁, 기아, 빈곤, 지구온난화 등)
- 둘째, 근대성을 넘어 탈근대적 조건을 모색하는 공존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공동체 헌신, 연대의 의무, 상호부조, 시민의 자주적 결사 등)
- 셋째, 새로운 사회를 위한 풀뿌리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태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운동)
- 넷째, 자본주의 체제와 인간적 시장(혹은 비비시장적)의 호혜경제 양립가능한가?
(지역화폐, 직거래 운동 등)

○ 세계공동체

▶ 세계시민

- 지구적 문제, 곧 세계 공통의 문제 : 환경과 생태파괴, 기후변화, 차이와 다양성의 위협, 제3세계의 빈곤과 분쟁 등
- ‘세계시민’ : 새로운 해결 주체의 등장과 모색
- 가령, 국경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등

- 세계시민 : 근대적 시민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덕목(공감, 나눔, 참여, 연대 등)과 더불어 '지구적 거버넌스(협치)' 요청
- 지구적 차원의 공정과 정의, 세계평화
- 세계공화국 체제의 이론적 모색

▶ 세계공동체(가라타니 고진)

- 인류가 직면한 당면 과제(분리할 수 없는 문제) : 전쟁, 환경 파괴, 경제적 격차
- 인간과 자연의 관계 : 노동을 매개로 한 자연적 존재
- 인간과 인간의 관계 : 사회적 존재(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동물), 공동체적 삶
- 결국 국가와 자본의 문제 : 통제 필요
- 글로벌한 비국가조직,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성화
- 국제연합의 강화, 재편성(군사주권 양도, 환경문제 공동해결)
- 지역, 국가 단위의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운동'의 결합
- 새로운 교환양식에 근거한 글로벌 커뮤니티(association)
- 실현은 용이하지 않지만, 길(루트)은 분명하다.

□ 정리

- 공존의 윤리와 그 과제
- 세계시민의 의미
- 세계공동체 담론

<주제23> : 세계시민 - 공존의 윤리와 실천사례(2)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세계시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세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세계시민의 근거
- 전쟁과 평화운동, 유전자 약탈, 반원전 탈원전 운동

□ 강의 내용 : 세계시민의 실천 사례

<詩> : '묻는다' - 휴틴(베트남 시인)

땅에게 묻는다 :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는다 :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풀에게 묻는다 :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 우리는 서로 짜여들며 지평선을 만들지

사람에게 묻는다 :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사람에게 묻는다 :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사람에게 묻는다 :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 당신은 세계시민인가?(마크 게이어존)

▶ 세계시민의 여덟 가지 측면

- 글로벌 유전자 :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에서 진화, 하나의 인류가족
- 글로벌 신체 : 음식등 모든 경계를 초월한 생태계
- 글로벌 사회 : 다양한 인종(동네)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계
- 글로벌 경제 : 2008년 금융위기의 세계 곳곳의 영향, 세계통화, 직업 등
- 글로벌 환경 : 기후변화, 삼림지 훼손의 영향, 물 부족, 대기와 수질 오염
- 글로벌 소유(내가 가진 것) : 컴퓨터 등 세계 곳곳에서 만든 것들
- 글로벌의 삶 : 마을의 문제에서부터 국내 문제 등도 국제적 요인 구성 빈도 증가
- 글로벌 종교 : 다른 문화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가 글로벌하게 전파

▶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필요

- 법적으로 일국의 시민이지만, 삶은 이미 세계시민
- 아인슈타인 :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높은 인식 수준을 기반으로 세계시민 의식에 대

한 실제적 접근 필요

○ 전쟁의 극복(평화운동)

- 전쟁은 의심할 바 없이 지상 최대의 악
- 평화보다도 더 시급하게 실현해야 할 가치는 없다.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리카 곳곳의 국지전, 인종, 종교로 인한 전쟁

○ 유전자 약탈에 저항하라(반다나 시바, 인도의 시민운동가)

▶ 님나무 : 인도(특히 보팔 지역의 자생나무)

- 농촌 주민들은 님나무와 함께 살았다.
- 아침마다 이를 닦는 나무, 잎사귀를 종이 슬지않게 장롱에 넣어두고, 곡식 저장 항아리에도 넣어둔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있다.
- 말라리아 치료약, 여자들의 무해한 피임제, 피부병의特效약, 친환경 해충방제, 진균성 전염병 예방, 해충 벌레 번식 억제

▶ WR 그레이스(화공약품 제조회사) 사의 특허 출원

- '세계 최초로 님나무에서 살균제 추출', '발명', '특허'
- 농업(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 나치 시대 유대인 수용소에 독약을 팔았던 회사,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 판매
- 각종 화학제제(농약, 비료 등등) 생산, 즉 독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회사

▶ 님나무에 대한 특허출원 취소 판결(유럽 재판소, 2005년 3월)

- 10년 투쟁 끝에 시민 저항의 승리
- 인류의 오랜 지혜를 '발명' '특허'로 바꾸려한 폭력

▶ 생물 다양성에 근거한 경제 운동

- 생명을 죽이면서 식량을 키우는 경제의 종식
- 종자의 95%를 장악한 종자회사(농산물 기업이 아닌 화공약품회사)
- 듀폰, 유니언 카바이드, 몬산토 등등
- 전쟁에 쓰이던 화학무기를 슬쩍 옷만 갈아입혔을 뿐
- 생물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살림 방식

○ 반원전 탈원전 : 하나의 실례 BGET(Border Green Energy Team)

- 후쿠시마 사태와 세계적 반원전 탈원전 운동
- 태양광발전, 소수력 등 미얀마 카렌족 지원

□ 정리

○ 세계시민의 근거와 의미, 평화운동, 유전자 약탈 저항운동, 반/탈원전 운동

<주제24> : 세계시민 - 공존의 윤리와 실천사례(3)

□ 학습 목표 및 내용

○ 학습목표

- 세계시민의 세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물도 인권이다
- 무담보 소액 대출
- 도서관 운동
- 장애인에 대한 편견

□ 강의 내용

○ 물,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애니 레너드)

▶ 시스템들의 상호연관성이 분명한 자연자원

- 순화구조(비나 눈, 저수지나 강, 호수, 대양, 증발, 구름, 비나 눈)
- 지구상의 물 : 97.5% 짙물, 단물 2.5% 중 대부분 빙하 상태 혹은 지하 대수층
-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 1% 정도

▶ 세계 인구의 3분의 1 물 부족 상태, 2025년 4분의 3 물 부족 상태 예상

- 물 낭비의 일상화(화장실, 잔디, 공장, 각종 폐수 등등)
- 물 부족 국가의 사람들(아시아, 아프리카 등 : 홍수 피해와 먹는 물 부족)

- 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가뭄, 오염, 기상이변, 공업 농업용수로의 전용, 물 접근 불평등, 물 과다 사용 등

▶ ‘물이 21세기의 석유’

-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
- 물 관리 프로그램 : 공정하게 공유하고 분배, 기업 이윤이 아닌 장기적 지속 가능성, 생태적 통합성, 의사 결정과정에 해당 공동체 참여, 공정한 접근
-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아르엔 후스트라) : “인간이 담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와 관련이 있으며, 물 부족이나 오염 등의 사안은 생산과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 것”
- 개인, 기업, 공동체가 사용한 재화와 용역에 들어간 담수의 총량을 계산한 것.
- ‘총경제적 가치’라는 개념 : 직접 사용가치(식수 등), 간접 사용가치(강의 수위와 유량 등), 비사용가치(유산가치-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존재가치-단지 지구상에 존재함으로써 갖는 가치)

▶ 세계적 연합체 구성 필요 : ‘물도 인권이다’라는 인식

- 가난한 사람의 물 접근권 확대, 물의 상품화 금지
- 과도한 물 사용에 세금 부과, 전문가의 물 관리 시스템 운영 등

○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방글라데시의 마을은행)

▶ 대부업자의 노예(조브라 마을 주민 42명)

- 42명이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 : 856타카(약 27달러, 약 3만원)
- 5타카(약 150원) 빌리고 노예로 전락(1주에 10% 이자)
- 은행 : “가난한 사람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
- 비공식적 은행 역할 :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증, 매주 소액 상환
- 이 아이디어의 효과

▶ 그라민 은행 설립

- 평균 200달러 무담보 소액 대출 : 한 달 대출 규모 1억 달러 이상
- 800만명의 대출자 : 97% 여성, 결인 10만 명(1만 8천명 구걸 그만) 이용, 50만명 이상의 학생
- 대출 상환 비율 : 98%
- 은행의 실소유자는 대출자
- 마이크로크레딧(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전세계 확산 : 기술과 경험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세계적 금융위기 때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신용에 인권과 같은 위상 부여 필요”

○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 ‘도서관 제국’으로(유병선)

▶ 룸투리드(Room to Read)

- 존 우드(전직 마이크로소프트 임원)가 1999년 지구촌 빈민 지역에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사회적 기업
- 1998년 네팔 여행 중 산지 오지 마을 방문 : 열악한 교육환경, 도서기증 운동
- “(네팔 여행 중) 잠간 행로를 벗어난 것이 내 삶을 영원히 바꿔 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수백만의 아이들이 읽을 책이 없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달 대만에서 윈도우를 얼마나 팔았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 지구촌 빈민 지역에 도서관을 세워주는 일을 하자.’

▶ 자선의 민주화

- 2006년 3,300만 달러 현금과 현물 기부금 모금
- 장학금 250 달러, 도서관 2,000 달러, 학교 1만-1만 5천 달러

- 2020년까지 : 1,000만 명 아이들 도서관 책읽는 혜택
- 자선의 민주화 : '시장의 살벌함'에서 벗어난 비영리 활동에 '시장의 효율성' 적용

○ 차이와 다양성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김형수)

-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이다
- 보호, 봉사, 장애인 체험, 장애인 편의시설 등등 : 억압이다, 엄청난 함정이 있다.
-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끼 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 자신들이 살고 싶은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 여자 화장실, 고등 교육 등의 질문, 여성봉사 동아리, 노동자봉사 동아리??
- 사회복지사와 전문가 : 왜 천사인가?, 비합리의 함정과 가면의 속성 아닌가?
- 장애인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봉사화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대학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봉사 동아리와 사회복지학과나 특수교육 학과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 도덕적 파시즘

○ 기타

- 공정무역
- 다문화(이주민) 등등

□ 정리

- 물의 중요성과 부족 현상
- 마을은행(그라민 은행)
- 도서관 운동
- 장애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공정무역 등

[붙임 - 3] 교과별 프로그램 예시

○ 주제(서론) : 훌륭한 삶(aretē,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주제 1. 인문학적 성찰 :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주제 1-1 :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주체적인 삶)
주제 1-2 :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이기적인 삶, 나누는 삶)
주제 1-3 : 우리의 삶의 문법(인간, 신, 자연, 우주, 문명, 교양)

주제 2. 나와 가족, 나의 생애설계 : 나는 누구인가?
주제 2-1 : 나는 누구인가?(개인의 탄생, 부모와 자녀, 가족공동체)
주제 2-2 : 나는 어떤 관계에서 살고 있는가?(동양사상을 통한 이해)
주제 2-3 :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동양사상을 통한 이해)

주제 3. 노동, 자유, 행복 :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주제 3-1 : 인간의 욕망은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다른가?(생명, 욕망, 충족)
주제 3-2 : 어떤 욕망충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노동, 자유로운 삶의 조건)
주제 3-3 : 어떤 삶이 행복한가?(욕망, 자유, 행복)

주제 4. 나, 너 그리고 우리 : 우리는 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가?
주제 4-1 : 왜 공동체를 고민해야 하는가?(인간존재와 사회적 관계)
주제 4-2 :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위협하는가?(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들)
주제 4-3 :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들(다양한 대안 공동체 운동들)

주제 5. 고르지 못한 세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
주제 5-1 : 자본주의와 복지사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제 5-2 : 차이와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공존의 윤리)
주제 5-3 : 정의란 무엇인가?

○ 주제 : 나를 위한 글쓰기, 세상을 위한 글쓰기

<내가 나를 만나는 글쓰기>(5주차)

- 글쓰기 초심자가 자존감을 회복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흥미유발
- 자기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 가족, 이웃,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 마련
- 자기 상처와 직면하는 글쓰기를 통해 건강한 치유 효과
- 발상, 관찰, 개요 짜기, 비교와 대조, 서사 . 묘사 . 비유 등 글쓰기의 기본기 숙지

○ 주별 강의 계획

- 1주차: 강의 소개, 2주차 과제 제시
- 2주차: 온라인 합평, 오프라인 합평, 총평, 첨삭지도, 2주차 과제 제시
- 3주차: 온라인 합평, 오프라인 합평, 총평, 첨삭지도, 3주차 과제 제시
- 4주차: 온라인 합평, 오프라인 합평, 총평, 첨삭지도, 4주차 과제 제시
- 5주차: 온라인 합평, 오프라인 합평, 총평, 첨삭지도, 총정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글쓰기>(5주차)

- 5단락 글쓰기 능력을 습득해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
- 미디어 글쓰기의 기본을 익혀 ‘사회적 글쓰기’를 수행
- 인터뷰, 르포, 내러티브 기법을 익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의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상상력, 창의적 표현능력, 실천적 사고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 주별 강의 계획

- 1주차: 강의 소개, 2주차 과제 제시
- 2주차: 5단락 글쓰기, 3주차 과제 제시
- 3주차: 인터뷰 기법, 4주차 과제 제시
- 4주차: 르포(탐방) 기사, 5주차 과제 제시
- 5주차: 내러티브 기사, 총정리.

○ 주제(서론)-훌륭한 삶(aretē,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주제(서론)	훌륭한 삶(aretē,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1. 훌륭한 삶(좋은 삶, aretē) 이해하기 2. 훌륭한 삶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상 이해하기 3. 앎과 실천에 관한 인간의 능력 체득
개요	이 강좌는 우선 훌륭한 삶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훌륭함과 앎의 관계, 앎을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의 길, 앎을 실천하는 인간의 능력 등을 차례로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정리한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인간의 ‘훌륭함(aretē, 아레테)’을 실현하는 삶이란? :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헤겔을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은 훌륭함과 훌륭한 삶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주제(2)	훌륭함과 앎, 올바른(존재의 본질)과 앎 : 훌륭함은 올바른 앎에서부터 시작한다. 앎의 본질, 앎과 훌륭함의 관계를 살펴본다.
주제(3)	순수함(순수한 앎)을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의 길 : 순수한 앎, 앎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주제(4)	앎을 실천하는 자율적 의지와 책임 : 앎이 앎으로 그칠 경우, 우리의 삶에서 앎의 의미는 반감된다. 실천하는 자율적 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주제(5)	훌륭한 삶을 실현하는 의미와 보람 : 훌륭함, 앎, 실천, 공동체적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정리한다.

○ 주제 1. 인문학적 성찰 :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주제1-1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주체적인 삶)
학습목표	1. 삶(죽음)을 왜 고민하는가? 2. 어떤 가치가 의미있는 삶인가? 3.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4. 삶의 방식 이해하기 5. 주체적인 삶을 위한 성찰
개요	이 주제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고민하고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삶을 왜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일반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삶을 전체의 관점에서 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자세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나’라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리해 본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설계하면서 주체적인 삶, ‘나’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실천적으로 고민한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삶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 : 왜 삶을 고민해야 하는가? 삶의 전체를 문제삼고 있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죽음(두려움, 공포)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
주제(2)	‘나’(인간 존재의 특성) 이해하기 :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주제(3)	삶의 목표 :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자아 실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제(4)	삶의 방식 :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또 자아를 실현하며 살기 위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제(5)	주체적인 삶 : 성찰과 비판의 능력,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삶의 방식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1-2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이기적인 삶, 나누는 삶)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통념의 가치(권력, 부, 명예 등) 이해하기 2. 통념에 가치에 따르는 고립된 이기적인 개인 3.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4. 사랑하는 삶 5. 나누고 환대하는 삶의 보람
개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환희와 기쁨을 느끼고, 또 사랑 때문에 절망과 실의에 빠져 비통해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적 통념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증오하면서 살아간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왜 갈등과 증오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주제를 통해, 사회적 통념의 가치를 따르는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하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사회적 통념의 가치 : 우리는 권력, 명예, 부라는 사회적 통념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주제(2)	통념의 가치와 이기적 개인 : 사회적 통념의 가치에 따르는 삶이 왜 무엇이 문제인가? 통념의 가치는 어떻게 고립된 이기적 인간을 만드는가?
주제(3)	사랑한다는 것 :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주제(4)	사랑하는 삶 :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타자)을 사랑하기 힘든가?
주제(5)	나누며 환대하는 삶 : 사랑하는 삶은 서로 나누고 서로 환대하는 삶의 토대이다. 사랑이 인간관계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사랑으로 나누고 환대하는 삶이 곧 보람있는 삶일 것이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1-3	우리의 삶의 문법(인간, 신, 자연, 우주, 문명, 교양)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적 초월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 이해하기 2. 자연(우주) 질서가 들려주는 삶의 가르침 이해하기 3. 인간이 발명한 삶의 문명 이해하기 4. 신, 자연, 문명의 관계 틀에서 짚아야 하는 '교양'의 참뜻 이해하기 5. 교양인의 의미와 목표
개요	<p>이 주제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불안감이나 고통을 초월적 신에 의지하여 해소하고자 하기도 하고, 자연을 벗삼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류가 역사적으로 만들고 발명한 문명의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p> <p>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삶의 환경을 '삶의 문법'이라 칭하고, 이 문법의 체계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모습, 즉 교양과 교양인에 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신적 초월성과 인간 : 우리에게 신적 초월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다움과 신적 초월성은 서로 배치될까? 상호 보완적일까?
주제(2)	자연 이해하기 : 자연(自然)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 삶의 자연적 환경이다.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주제(3)	문명의 의미 : 인간이 발명한 문명이란 무엇인가? 신적 초월성과 자연의 틀 속에서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제(4)	'교양'이란? : 우리의 삶의 문법은 신, 자연, 문명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형성해 온 교양이란 어떤 의미일까?
주제(5)	교양인 되기 : 삶의 문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인간다움의 교양과 교양인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 주제 2. 나와 가족, 나의 생애설계 : 나는 누구인가?

주제2-1	나는 누구인가?(개인의 탄생, 부모와 자녀, 가족공동체)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탄생'을 근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2.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진정성(진실성)의 관계 3. 가족관계(부모와 자녀)의 역사적 변천 4. 근대적 개인과 가족관계의 변화 이해하기 5. 올바른 가족 공동체 정립하기
개요	<p>‘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는 한편에서는 한 개인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 일반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한 개인과 개인일반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근대적 개인의 탄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특성을 지닌 개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관점에서 근대적 개인의 이해는 가족관계는 물론 올바른 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이 주제를 통해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고 학습하고자 한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근대적 개인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경험은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켰다. 근대적 개인의 특징은 자율성, 독립성, 평등성에 기초한다.
주제(2)	개인의 자율성과 진정성 : 진정성을 갖춘 ‘나’는 누구인가? 진실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야말로 자율적인 개인이 아닐까?
주제(3)	가족관계의 변화 :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개인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현대적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의미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주제(4)	자율적 개인과 가족 : 근대적 개인의 탄생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계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가? 자율적 개인은 가족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주제(5)	가족 공동체 : 오늘날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율적 개인을 토대로 원만한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2-2	나는 어떤 관계에서 살고 있는가?(동양사상을 통한 이해)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사상을 통해 관계로서의 인간존재 이해하기 2. <논어>를 통한 인간의 관계윤리 이해하기 3. <맹자>를 통한 인간의 관계윤리 이해하기 4. <주역>을 통한 관계 존재 이해하기
개요	<p>‘나는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주제이다. 특히 동양사상은 ‘관계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관계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 존재의 관계 윤리 등을 동양 고전을 통해 학습하고자 한다. 동양 고전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음을 터득하고자 하는 주제이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동양사상과 인간존재 : 동양사상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양사상에 나타난 관계로서의 인간존재란 어떤 의미일까?
주제(2)	논어(1) : 논어에 나타난 인간의 관계 윤리
주제(3)	논어(2) : 논어에 나타난 인간의 관계 윤리
주제(4)	맹자 : 맹자에 나타난 인간의 관계 윤리
주제(5)	주역 : 주역에 나타난 존재 만물의 연관 관계의 원리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2-3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동양사상을 통한 이해)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양사상이 일러 주는 자유로운 삶 2. 동양사상이 일러 주는 만물 이야기 3. 노자의 사상과 자유로운 세상 이야기 4. 장자의 사상과 자유로운 세상 이야기 5. 현대인이 동양사상으로 마주하는 아름다운 세상
개요	<p>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이다. 그런 세상의 모습에는 한 인간의 삶,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여러 다층적 관계의 집합이다.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사상은 이런 다층적 관계를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세상 만물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로운 세상살이를 일러 준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동양적 가치로 풀어 보고자 하는 뜻이 이 주제에 담겨 있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자유 : 동양사상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본다.
주제(2)	만물 : 동양의 현인들이 들려 주는 만물 이야기
주제(3)	노자 : 자유와 만물 이야기
주제(4)	장자 : 자유와 세상살이 이야기
주제(5)	세상살이 : 노자와 장자를 통해 연계 되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살이의 교훈,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만물의 원리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 주제 3. 노동, 자유, 행복 :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주제3-1	인간의 욕망은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다른가?(생명, 욕망, 충족)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망(본능) 2. 인간의 욕망(목적의식성) 이해하기 3. 욕망의 발생과 충족의 체계 4. 욕망의 다양성과 역사성 5. 건강한 욕망, 건강한 사회
개요	<p>‘생명, 욕망, 충족’의 체계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이다.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본능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인간이 생명체 일반의 욕망을 목적의식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개체보존 본능인 식욕도 종족보존 본능인 성욕도 다른 생명체와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충족시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답함으로써 건강한 욕망,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본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생명체와 욕망 :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망으로서의 본능, 개체보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
주제(2)	인간의 욕망 : 인간도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개체보존 본능과 종족보존 본능의 욕망이라는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본능을 사회적 메카니즘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변화시켰다.
주제(3)	욕망의 발생과 충족 : 욕망은 왜 발생하는가? 무언가의 ‘결핍’(부족)이다. 결핍이 채워져도 발생하는 욕망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럴까?
주제(4)	욕망의 다양성과 역사성 : 본능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욕망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다양성을 낳았다. 인간의 경우 진화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욕망은 없을까?
주제(5)	건강한 욕망 : 건강한 욕망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3-2	어떤 욕망충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노동, 자유로운 삶의 조건)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2. 노동의 의미와 특성 3. 노동의 소외 4. 자아실현의 노동 5. 자유로운 삶의 조건으로서의 노동
개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 욕망을 충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단순히 욕망 충족 수단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삶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니치고 있는 노동이 괴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노동의 소외 현상이다. 자아를 실현하는 노동,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노동의 어떻게 가능할까? 이 주제는 바로 자유로운 삶의 조건으로서의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채택한 것이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욕망충족과 노동 : 노동은 인간의 생존 조건이면서 욕망 충족 수단이다. 말하자면 노동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물의 취득 과정이고, 인간 생활의 영원한 자연적(自然的) 조건이다.
주제(2)	노동의 의미와 특성 : 노동은 인간 본질적 능력의 외화(外化) 혹은 대상화(對象化)이다. 특히 인간 노동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역사적 과정은 도구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주제(3)	노동의 소외 : 소외란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말한다. ‘노동 해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제 노동과 비참한 삶(혹은 삶의 조건)의 재생산 구조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4)	자아실현 : 노동이 즐거울 수는 없을까? 아니면 적어도 자율적인 노동이란 불가능한 것일까?
주제(5)	자유로운 삶과 노동 : 노동의 주체성은 노동 행위가 주체적으로 노동 과정을 관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곧 노동의 창조성과 직결된다. 이런 노동은 자유로운 삶의 조건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3-3	어떤 삶이 행복한가?(자유, 행복)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이란 무엇인가? 2. 사회적 통념의 가치를 실현하면 행복한가? 3. 자유로운 삶은 행복한가? 4. 자유에 관한 두 가지 의미 5. 자유와 행복의 관계 이해하기
개요	<p>행복하게 살고 싶다. 누구나 소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자로 살고 명예도 가지면 행복할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웬지 권력, 부, 명예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 왜 그럴까? 자유롭지 못한 행복이 아닐까? 이 주제에서는 자유로운 삶에 바탕을 둔 진정한 행복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행복 : 왜 행복하고 싶은가?
주제(2)	행복의 상태 : 행복의 상태는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주관적 심리 상태일까?
주제(3)	자유로운 삶과 행복 : 행복에는 수동적 행복이 있을까? 수동적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가식적 행복은 아닐까? 능동적 행복은 어떤 것일까? 자유로운 삶에서 오는 행복일까?
주제(4)	자유와 사회적 의미 : 자유로운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만만치 않다. 결국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와 부딪친다. 여기에서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를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주제(5)	자의식, 자유, 행복 : 주체적인 자아의 실현, 충만한 자의식의 내용, 적극적인 활동, 성취감 등에서 오는 자유로운 행복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 주제 4. 나, 너 그리고 우리 : 우리는 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가?

주제4-1	왜 공동체를 고민해야 하는가?(인간존재와 사회적 관계)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라는 존재와 '사회'라는 세계의 관계 2.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의 의미 3. 공동체적 의식과 삶(나, 너, 우리) 4. 공동체적 삶의 철학적 근거 5. 공동체적 생활의 유형
개요	<p>우리는 왜 공동체를 고민해야 하는가? 개별적으로 삶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는 본래적으로 인간 존재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처럼 사회적 관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적 이해관계를 쫓아 살아간다 해도, 그 속에는 이미 '나, 너, 우리'라는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주는 행복감이 있을 것이다.</p> <p>이 주제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바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나'와 '세계' : 존재 세계는 보편적 연관이라는 존재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사회'라는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세계의 보편적 관계 이해하기
주제(2)	사회적 동물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언명했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인간의 언어적, 정치적 동물이라는 특성과 연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3)	우리와 공동체 : 우리는 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공동체적 삶의 근거를 '나, 너, 우리'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4)	공동체와 삶의 목표 : 공동체적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러한 삶이 개인의 삶의 목표와 배치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공동체적 삶은 개인의 삶의 목표와 연관성을 갖는다. 그 철학적 근거를 살펴본다.
주제(5)	다양한 공동체 : '우리'의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와 다층적 유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생활현장(공간)의 단위와 생활영역 등 공동체에 관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4-2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위협하는가?(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들)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주의와 불평등 2. 인간의 탐욕(개인의 측면, 사회 구조의 측면) 3. 근현대 사회사상가들이 바라 본 불평등 요인 4. 우리 전통적 공동체 미덕(품앗이, 두레, 계, 향약)의 붕괴 5. 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실 인식(금융자본, 생태계 파괴, 전쟁 등등)
개요	이 주제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위협하는 각종의 현실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근현대 사상가들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현상에 관해 진지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위협 요인들과 그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자본주의와 불평등 :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1% : 99%)는 현대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상징이며 본질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주제(2)	인간의 탐욕 :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불평등(양극화)이 구조적 유발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짝튼 인간의 왜곡된 욕망(탐욕)은 어떻게 불평등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3)	불평등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 근대 사회사상가들로부터 오늘날의 많은 사상가들까지 공동체를 위협하는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로크, 루소, 헤겔, 맑스, 롤즈, 센델 등등.
주제(4)	전통적 공동체의 파괴 : 우리의 전통적 삶의 방식에는 공동체의 미덕이 상당히 많았다. 그 중에서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미덕마저 파괴된 측면이 있다. 현대적으로 살리는 길을 모색해 본다.
주제(5)	현실인식 :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이다. 위기도 글로벌하게 다가오고 있다. 실체를 금융자본, 생태계 파괴, 식량위기의 가능성 등에서 살펴본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4-3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들(다양한 대안 공동체 운동들)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 의식과 정신을 회복하려는 대안사회 운동의 특징 2. 대안 교육운동 3. 초록운동(환경운동, 녹색운동) 4. 지역화폐 운동, 사회적 기업 5. 마을만들기 운동, 풀뿌리 주민운동
개요	대안 공동체 운동들의 일반적 특징과 유형들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삶의 회복 가능성을 탐색한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다양한 대안사회 운동 :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는 대안사회 운동의 일반적 특징과 유형
주제(2)	대안 교육운동과 국내외 사례들
주제(3)	초록운동(환경운동, 녹색운동)과 국내외 사례들
주제(4)	지역화폐운동, 사회적 기업과 국내외 사례들
주제(5)	마을만들기 운동, 풀뿌리 주민운동과 국내외 사례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 주제 5. 고르지 못한 세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불환빈 환불균 不患貧 患不均

주제5-1	현대 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불평등의 인류사적 이해 2.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역사적 조망 3.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이해 4. 현대 사회와 사회적 불평등의 거시적 조망 5.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삶의 자세와 태도 모색
개요	<p>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문제시되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조망하고 특히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을 둘러싼 대안들의 충돌과 갈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지향적 향방을 구상하고 모색해 본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찾아 본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p>인간의 사회와 불평등 : 유사 이래 인류 사회는 불평등의 문제에서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어 왔는지, 아울러 그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개관해 본다.</p>
주제(2)	<p>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응축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사회주의 및 복지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p>
주제(3)	<p>복지 국가와 신자유주의 : 현재, 복지 국가의 모델과 신자유주의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서로 어떻게 대립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본다.</p>
주제(4)	<p>불평등의 심연 : 부의 재분배만으로 일소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p>
주제(5)	<p>복지, 그 너머 :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와 자질은 무엇인지 성찰해 본다.</p>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5-2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 공존의 원리를 찾아서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리하고 구분하는 근대성의 특징 이해 2. 배척과 억압의 뿌리로서 진리의 신화 살펴 보기 3. 위대한 개인의 신화와 인간의 고립·단절 함께 조망하기 4. 현대 사회의 특징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일의 의미 이해 5.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 이해
개요	<p>근대 이후 인류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기력하게 서로 단절된 개인들의 비극적인 군상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 종교, 문화 등을 절대시하면서 상호 배척하고 대립하는 적대감의 확대 또한 숨겨져 있다. 이를 우리의 삶과 현실에 비추어 반성적으로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구분하는 시대의 시작 : 근대는 개인주의가 정립되는 시기임과 더불어 과학과 진리의 시대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을 서로 구분하고 분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해한다.
주제(2)	유일한 진리의 신화 :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무차별적이고 광적인 집착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이 ‘틀린 것(비진리 내지 오류)’으로서 어떻게 배제되고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제(3)	위대한 개인의 신화 : 개인이 지닌 고유한 권리와 가능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인간의 고립과 단절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특히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제(4)	서로 다른 것의 인정 : 개인적·종교적·문화적 차이 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이 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지 논의해 본다.
주제(5)	‘우리’의 회복 : 인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되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 증상이 어떤 점에서 절망적인 것인지 살펴보고 그 극복의 전망을 모색해 본다.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주제5-3	정의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정의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배경 이해 2. 정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내는 역설 이해 3.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과 한계 이해 4.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핵심 이해 5.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연대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개요	<p>사회 정의에 대한 최근의 뜨거운 관심이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연관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그 저변에 놓인 인간관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 보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의관이 우리 현실에서 정의를 확대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본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p>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 : 개인을 향한 윤리적 요구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요구의 차이를 구분하고 사회 윤리의 본질적인 대상으로서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해한다.</p>
주제(2)	<p>정의론의 호황 : 정의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관심을 끄는 현상은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역설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가?</p>
주제(3)	<p>자유주의적 정의 : 개인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과 한계 등을 이해하고 그 저변에 깔린 인간관을 통찰해 본다.</p>
주제(4)	<p>공동체주의적 정의 :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와 그 극복의 대안을 논의해 본다.</p>
주제(5)	<p>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연대 :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 정의관에서 강조된 핵심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정의 실현의 실질적인 방향을 가늠해 본다.</p>
교재	교재, 자체 자료, 동영상 등

○ 내가 나를 만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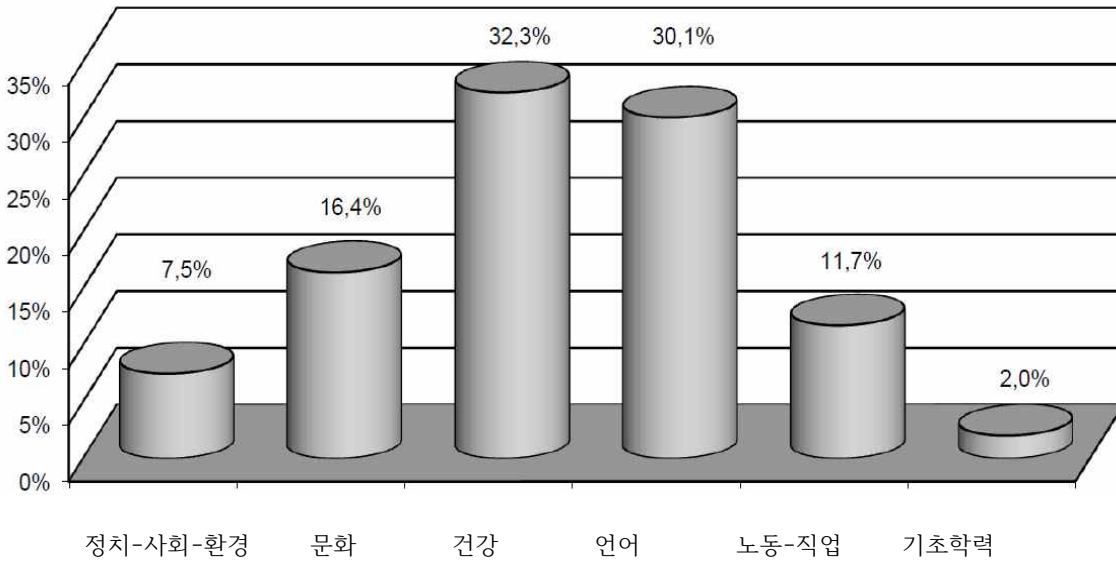
주제(1차)	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나를 위한 글쓰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를 통해 자기 삶을 성찰하며 자아존중감을 회복한다(나의 재발견).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관계의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글쓰기를 통해 창의성, 실천 능력을 높인다(나의 재탄생). - 글쓰기를 통해 공감능력을 제고해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한다.
개요	글쓰기는 작가나 언론인,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글쓰기는 읽기와 말하기 처럼 '사회적 동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글쓰기는 여타 언어능력에 견주어 방치되고 있다. '나를 위한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데서 출발한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재발견하고, 타자와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p>글쓰기는 왜 필요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를 자각한다. - 그런데 나는 왜 글쓰기와 친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 글쓰기 교육,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성찰한다
주제(2)	<p>글쓰기의 최소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의 3단계, 3원칙 - 글쓰기와 치유 - 주제별 글쓰기(1) 과제 제시
주제(3)	<p>주제별 글쓰기('생애 최고의 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주제별 글쓰기(2) 과제
주제(4)	<p>주제별 글쓰기('잊을 수 없는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주제별 글쓰기(3) 과제
주제(5)	<p>주제별 글쓰기('잊지 못할 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총정리
교재	<빠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나탈리 골드버그, 한문화), <털어놓기와 건강>(페니베이커, 학지사)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글쓰기

주제(2차)	세상을 위한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세상을 위한 글쓰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키운다. - 글쓰기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재발견한다. - 5단락 글쓰기를 통해 창의성, 실천 능력을 높인다. - 공감능력을 제고해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한다(사회적 주체의 탄생).
개요	<p>글쓰기는 읽기, 말하기, 듣기처럼 ‘사회적 동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다. ‘세상을 위한 글쓰기’는 ‘나를 위한 글쓰기’의 심화과정으로, 사회적 주체로서 나와 이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1인 미디어의 개성적 운영자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5단락 글쓰기, 내러티브 글쓰기에 비중을 둔다.</p>
주제의 세부 내용	
주제(1)	<p>사회적 글쓰기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글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 사회적 글쓰기의 장르를 알아본다. -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한다.
주제(2)	<p>사회적 글쓰기의 최소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의 3단계, 3원칙 - 미디어 글쓰기: 5단락 글쓰기와 내러티브 - 주제별 글쓰기(1) 과제 제시
주제(3)	<p>주제별 글쓰기(‘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주제별 글쓰기(2) 과제
주제(4)	<p>주제별 글쓰기(‘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주제별 글쓰기(3) 과제
주제(5)	<p>주제별 글쓰기(‘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의 수평적 리뷰 - 강의자의 총평 및 첨삭 - 총정리
교재	<기막힌 이야기, 기막힌 글쓰기>(최수묵, 교보문고) 외 신문, 잡지 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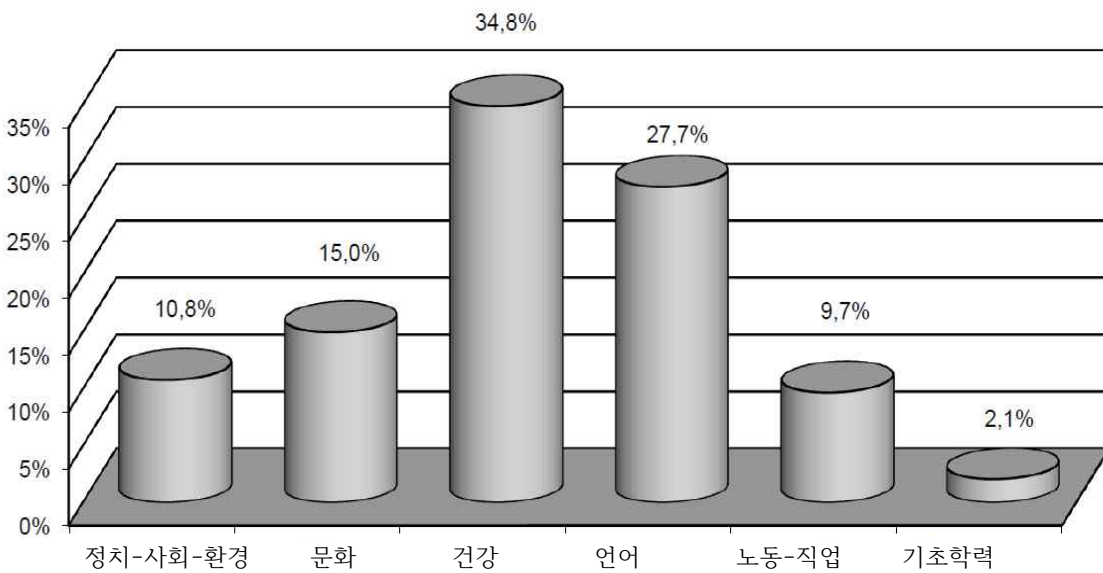
[붙임 - 4] '11년 민헨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자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강좌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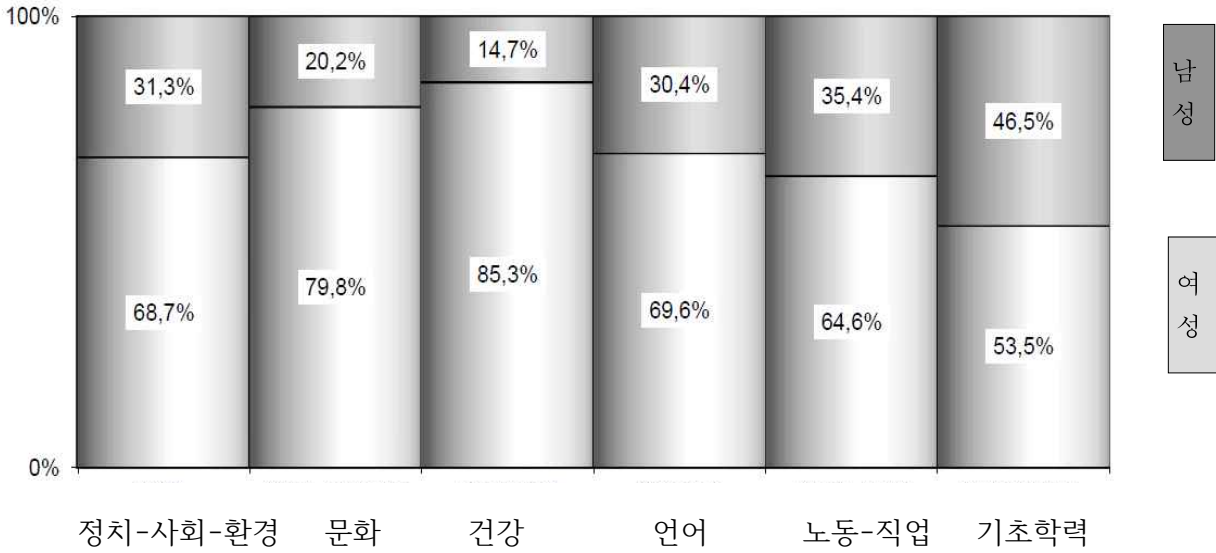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수강신청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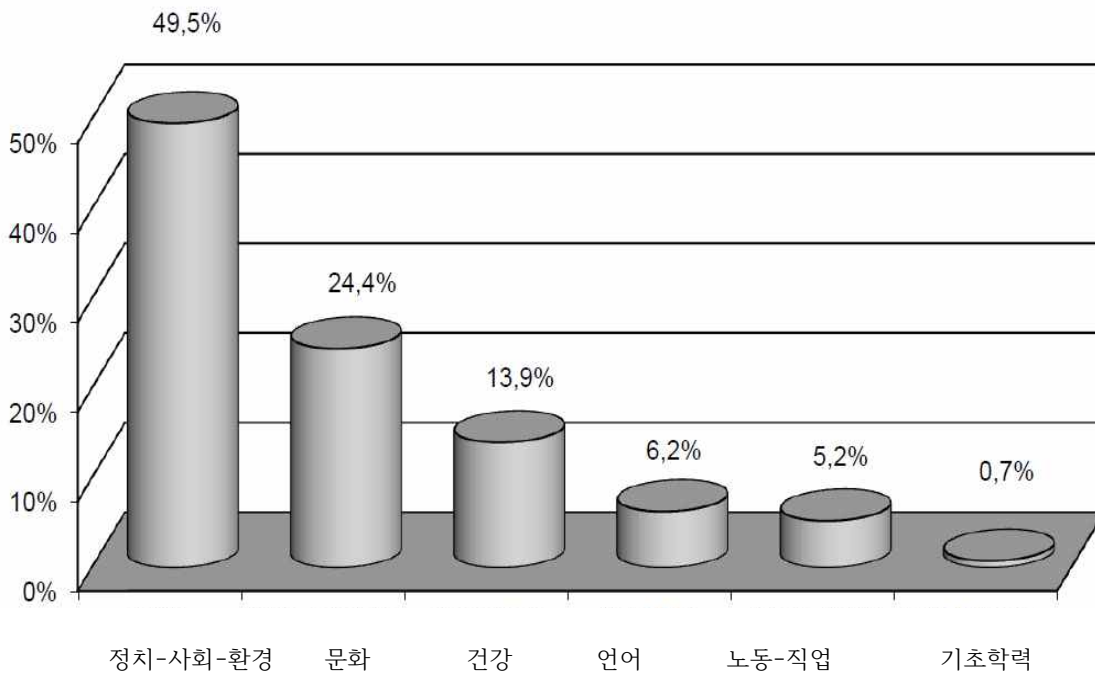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수강생 성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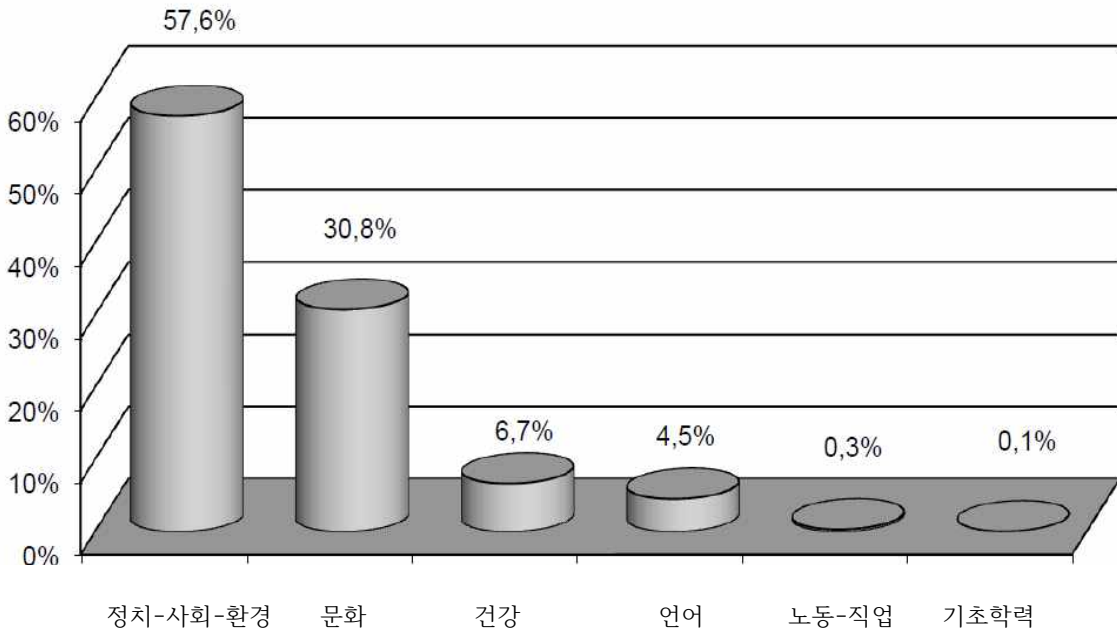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단독행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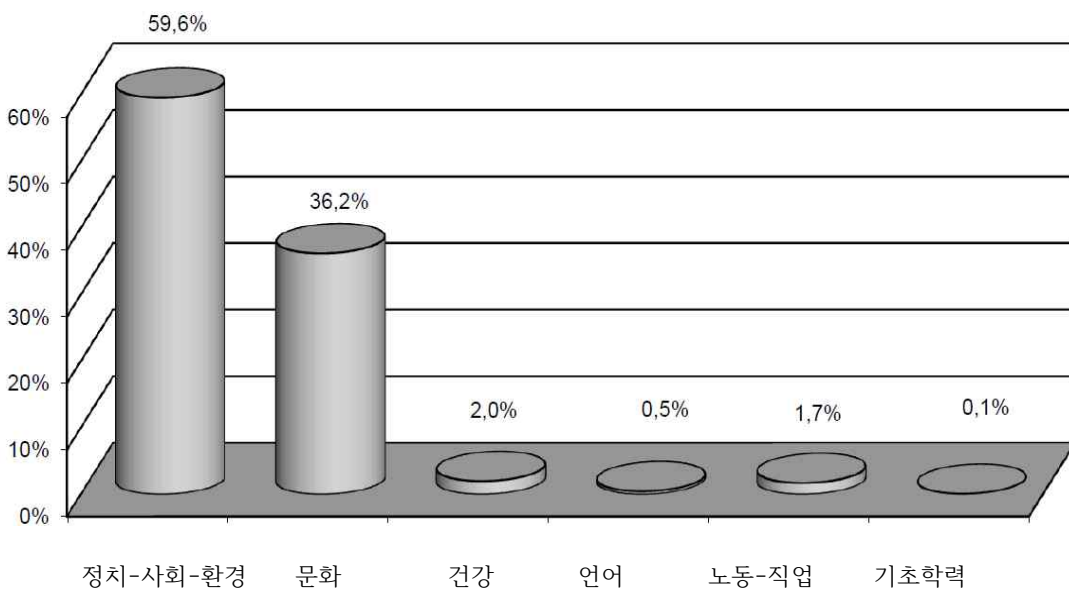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연수/학습여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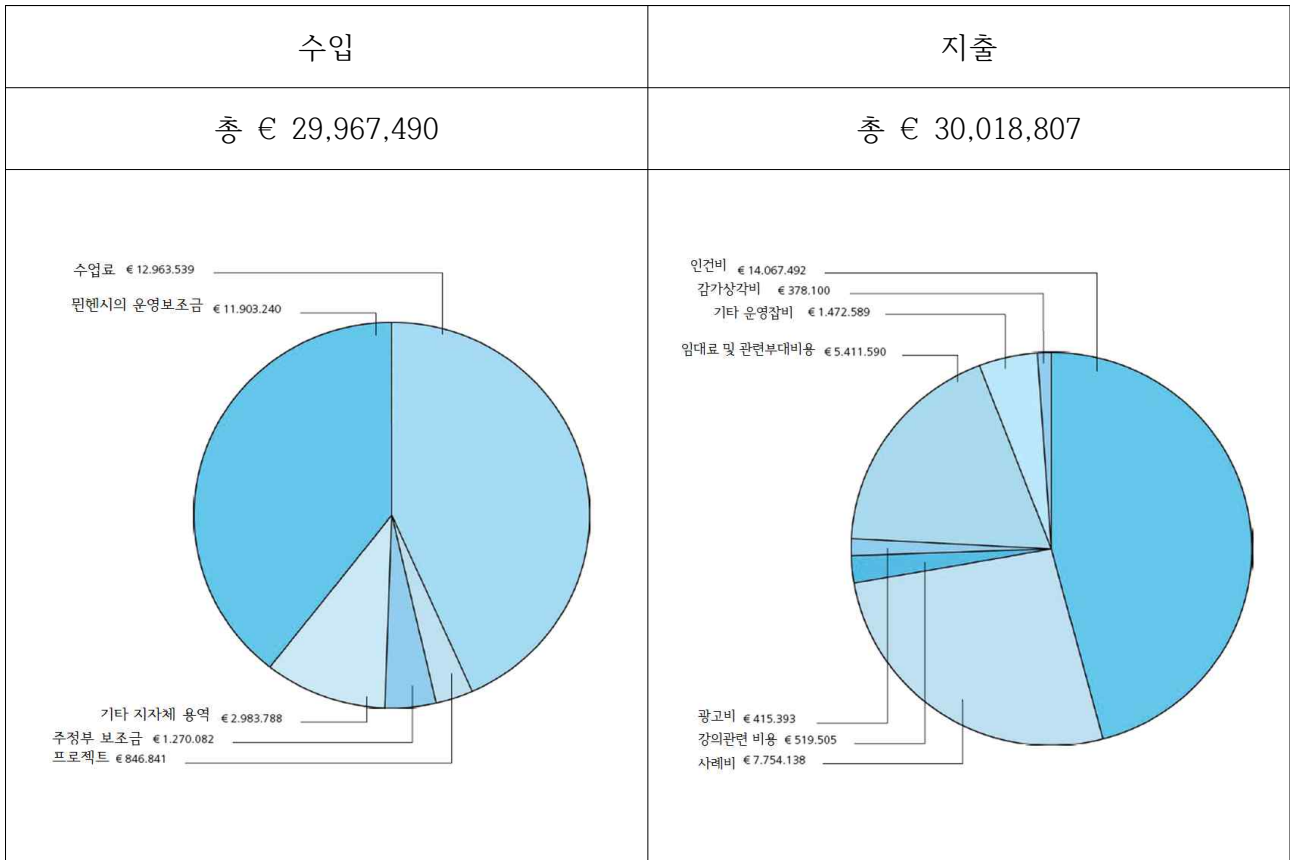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독일시민대학 프로그램영역별 답사프로그램 분포



<자료: 2012 독일시민대학통계, 독일성인교육연구소>

□ 원혜시민대학 수입지출 규모(2011년 기준)



<출처: 2011년 원혜시민대학 연감>

□ 원혜시민대학 프로그램 분류 및 주요내용

○ 프로그램 분류

구분	내용
오픈 아카데미	- 가슈타익에서 열리는 강연, 심포지엄, 토론, 전시, 낭독과 같은 형식의 단발성 대중행사 -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다룸
인간, 사회, 정치	- 인간을 움직이는 정치와 사회, 경제와 재정, 지역주제, 철학, 세계의 종교들, 종교적인 세계, 심리학과 삶의 기술, 학습과 기억 등
문화, 예술, 창조성	- 예술, 문화, 댄스, 연극, 문학, 사진, 음악과 같은 분야에 1,600여 개의 강좌개설
Aspect Gallery	-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

자연과학,환경,생태	-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통찰을 전달하는 강연이나 세미나, 또는 견학이나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건강, 영양, 식문화	- 매 학기 약 1000개에 이르는 강좌개설. 초보자나 (준)전문가를 위한 식문화나 와인문화 강좌. 예술사나 문화사를 통한 요리기행 프로그램.
직업과 커리어	-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컴퓨터와 인터넷	- 초보부터 프로그램설계까지; 인터넷 기초에서부터 전문적인 웹네트워킹; 문서작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산정보처리
MVHS미디어캠퍼스	- 인터넷기반 학습; 외국어강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강좌, 그리고 직업교육 위주
외국어	- 일반인을 위한 약 50개 언어 관련 강좌 - 학교의 외국어과목 담당교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독일어, 이민, 통합	- 단계별 독일어 강좌와 통합강좌 제공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에서 필요한 모든 시험 응시 가능
기초교육, 학력인증	- 검정고시와 같은 중등학력인증 과정; 문맹탈출이나 기초학력 과정;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과정
젊은 시민대학	- 음악, 패션, 예술, 정치, 미디어, 직업 등의 분야의 최신 동향을 따라잡는 강좌들로 구성
시니어시민대학	- 매년 1000개 이상의 강좌 - 시니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강화하고,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 시니어만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일 강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음.
장벽 없는 배움	-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그룹 속에서 수강자들은 각자 자신의 학습속도와 방식에 맞춰 배우게 되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보조 인력이 지원됨.
도시의 동서남북	- 다양한 주제로 뮌헨시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투어프로그램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하우스 부헨리트 (Haus Buchenried)	- 뮌헨 외곽 호수가 옆의 휴양 및 교육시설 - 주말 또는 주중의 숙박교육 중심
맛보기 aperitif	- 뮌헨시민대학과 시립도서관의 공동프로그램 - 시민대학 프로그램 중 일부를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대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맛보기 프로그램

○ 대표 프로그램 소개(5개)

- 주요내용 : 오픈아카데미(01), 인간, 사회, 정치(02), 문화, 예술, 창조성(03), 자연과학, 환경, 생태(05), 시니어시민대학(14)

① 오픈아카데미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In Takt	낭독회	- 작가나 카바레 예술가가 진행하는 낭독회 : 다양한 종류의 소설, 시, 에세이 등	-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연속프로그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제공
Nord Talking	페스티벌	- 북유럽의 예술,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전시, 낭독회, 토론회, 영화상영 등으로 구성된 축제('13. 4.22~5.16)	- 시립도서관, 원혜대학 북유럽문화연구소, 출판사와 공동주최
	목요강의	- '13년 봄학기 주제는 '괴테-욕망과 종교'	- 원혜대학 시니어학연구소와 공동주최 원혜대 교수직강
매혹적인 언어의 세계		- 다양한 언어의 기원,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 해당 언어 전문가나 소설가가 강연하는 형식	- 외국어(언어)전문 출판사와 공동주최
Aspect Gallery		- 가슈타익 전시실에서 열리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강연 ('13년 봄학기: '이슬람 사원의 건축')	
그린비전		- 전 세계의 환경다큐멘터리영화 상연 프로그램	- 레이첼카슨센터, 원혜생태교육센터와 공동주최
극우주의의 새로운 지평		- 극우주의와 관련된 연속 강연, 토론 프로그램	- FES바이에른포럼, 기독교원혜아카데미 등과 공동주최 - 크리스티안 우데 원혜시장 후원
명사 특강 (Schulz-Hoffmann)		- 한 분야의 대가가 진행하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강연 *지난 2010년도에 저명한 음악, 연극, 문화비평가 요아킴 카이저 (Joachim Kaier)가 원혜시민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하던 강연이 종료되자 '11년 원혜시민대학의 수강인원이 눈	- 월1회(학기 당 총4회)

		에 띄게 감소됨. '10년 요아킴 카이저 강연의 수강생 수는 약 2,400명.3)	
청취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콘셉트로 약10-15명의 최소구성으로 호주머니필하모니 프로그램 운영 - 작곡자나 지휘자가 곡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호주머니필'의 연주를 감상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필하모니와 공동주최 - 입장료 €12 ~ €17 - MVHS 카드적용 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 - 연금의 미래에 대한 강연, 토론 - 중요한 철학자, 학자, 음악가들의 탄생, 서거기념 특별프로그램 	

② 인간, 사회, 정치 : 5개의 소주제로 구분

· 소주제 1 : 정치와 사회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기초지식과 시사대화클럽	정치의 기초	- 독일의 정치제도, 정당, 이익단체, 언론의 기능에 대한 입문 강의	- 수화통역 및 보조요원서비스 제공 - 주1회, 2시간, 총8주 / 무료
	시사정치	- 최근 일어나는 정치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쟁적 사안/주제에 대해 토론	- 강의 + 토론 - 주1회, 1시간30분(총15회) - 회당 4, 전체 45
	정치와 현대사	- 국내외 정치에서 논쟁적이고 시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의견을 나누는 수업	- 시니어를 위한 정치교육 - 주제는 참가자들이 결정 - 주1회, 1시간30분(총16주), €65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이론	- 고대의 민주주의사상; 계몽과 근대혁명; 진정한 민주주의 개념; 자유민주적 현재와 미래; 기본법 등	- 1회 강연형식

3) 2011년 뮌헨시민대학 연감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를 남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를 가장 크게 부르짖는다” - 신자유주의적 인권축소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3일 주말숙박세미나 - 세미나비용 €30 / 숙박비 €110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데나워 대통령’, ‘1969년 본에서의 정권교체’, ‘콜의 낙선’ 등 실제의 사건들을 소재로 한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강연형식
사회 - 독일에서의 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소득과 다른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 공동체 중심의 주거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강연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워크샵4) ‘우리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5일)숙박세미나 - 세미나 €80, 숙박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11시 박물관에서 만나요’ * 2013봄 시립박물관 전시주제 - ‘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1970년대 뮌헨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주제의 강연프로그램을 일요일 오전 박물관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의 장소 FilmCafe : 함께 영화보고,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운영하는 카페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통합)과 관련된 주제의 강연과 토론 프로그램 	
국제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 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를 다룸
역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에 있는 여러 역사연구소(센터)들의 연구 업적을 소개하고 전망을 청취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구소 강의실에서, 소속 연구원이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조망하는 다양한 강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에른의 역사(우리 고장의 역사) 강좌 	
답사, 관람, 연수	정치 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방문’ 프로그램 : 시 참사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모습을 방청하고, 시 참사(參事)로부터 시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청투어를 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소요 / 무료 - 그 외 주정부청사와 주의회 투어 프로그램도 있음.
	또 다른 뮌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운동의 역사 등 기존의 도시투어가 다루지 않았던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투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투어 + 산책 - 2시간 소요 / € 9.50

금지된 소설가	- 1933년 5월 분서(焚書)사건으로 인해서 금서로 지정된 작품의 작가들의 흔적을 따라 걷는 프로그램	- 2시간 소요 / € 6
뮌헨에서의 유대인의 삶	- 유대인의 삶, 성취, 신앙,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장소를 둘러보면서 중세이후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존재를 실감하게 하는 프로그램	- 4시간 소요 / € 5
역사-정치 연수	- ‘우리가 모르는 독일’: ‘이스탄불-동양과 서양 사이의 세계도시’ 등	- 각 각 5박6일 코스의 역사기행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없음

· 소주제 2 : 경제와 재정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시사 경제와 정치	역할극	- ‘금융위기 라이브’ : 수강생들이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설정 속에서 은행책임자, 주주, 예금주 등의 역할을 맡아 직접 결정을 내려 보는 방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3시간 소요 / €7 - 그 밖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가 주를 이룸.
일상에서의 재무지식	노후 준비	- 독일연금보험소속 담당자가 진행하는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지식 강좌	- 무료 - 시립도서관과 공동주최
	돈의 기초	- 자산관리 및 자산형성의 전략(단계별로 구성) - 주식, 세금관련 강좌	- 2~3시간 소요 / 1회 강의 - €13-16
	자산 투자	- 투자 상품 관련 강좌들 - 투자 사기사건 예방 강좌(특별강좌)	- 1시간 30분 소요 / 1회 강의 - €8~14
	대비와 보험	- ‘이혼 시의 재산분할 방법’, 이혼 후의 생계 관련 강좌들 - 노후준비(조기퇴직), 노후설계관련 강좌들 - 유언장, 유산, 증여 관련 강좌들	- 2시간 소요 / 1회 강의 - €7~10

4) 미래워크샵(Die Zukunftswerkstatt)이란 미래학자들(Robert Jungk, Rüdiger Lutz und Norbert R. Müllert)이 고안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법이다. 미래워크샵은 정부주도의 계획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의 대상(또는 당사자)들의 권한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주민들을 미래계획의 대상에서 주제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이다.(출처: 독일 위키피디아: <http://de.wikipedia.org/wiki/Zukunftswerkstatt>)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관련 법률: 계약해지와 해약방지 - 주거용부동산의 수익률 - '생애 첫 내 집: 주택구입에 관한 모든 것' - '성공적인 부동산 매매' - '무엇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 '성공적인 부동산 가격협상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2시간 30분 소요 - €13~50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신고 노하우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세미나(약 7시간) - €39~56
	시니어 시민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를 위한 주식투자(단계별 강좌) - 유연장 쓰는 법 - 은퇴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강의 / €5~12 - 주식투자 고급반 8회 강좌 / €52

· 소주제 3 : 지역주제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뮌헨의 중심부, 북부, 동부, 남부, 서부	투어/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박물관에서 체험하는 뮌헨의 역사' - '문과 기념비로 본 뮌헨의 건축유산' - '뮌헨의 암흑기'(나치의 출발점이었던 뮌헨의 역사) - '뮌헨의 다양한 종교들' - '트램과 버스로 뮌헨 여행하기' - '도와주세요 제 손님이 뮌헨을 구경하고 싶대요.' : 유명 건축물이나 사적지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맛집,상점 추천 투어 -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뮌헨의 클럽, 카페, 술집 투어 - 중세 뮌헨, 흑역사의 현장 - 자전거 야간투어 - 유명 양조장 투어(Paulaner) - 외국인들을 위한 뮌헨 시립도서관 투어 - 뮌헨 하수구처리시설 강의+투어 - 나에게 맞는 봉사를 찾아서(카리타스자원 봉사센터) - 자연 속으로!: 뮌헨근교 자전거투어 - 노르딕워킹'으로 둘러보는 뮌헨 - 시청, 시의회, 주청사 투어, 소방서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투어 및 답사 프로그램 운영 - 무료 또는 €5

	포럼	- 주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포럼	- 미래워크숍 형태 / 무료
	이야기카페	- 주민들이 카페에 모여서 다과를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사, 특별한 경험 등을 서로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	- 2회~5회 / 무료

· 소주제 4 : 철학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철학적 사고의 기초	오리엔테이션	- 개강 전에 철학분야 수업의 구성에 대한 무료 공개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	무료
	철학적 사고의 기초	- ‘오늘의 철학’: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는 강연	- €5 / 1회 (총7회) - 70석 규모의 공개강좌 -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음
	시니어 시민대학	-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철학’(세미나) - ‘철학 대화모임’ : 전문가와 함께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보는 프로그램	- 3회 세미나 / €18 - 14회 대화모임 / €110
	아고라	-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착안해서, 담당교수가 철학적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 40명 정원 / (주제별)2회 세미나, €6/회
철학적 개념과 문제	세미나, 강연, 숙박세미나	- 언어철학의 신비, 진리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철학과 종교비판, 현대사회에 대한 철학적 진단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 다양한 강좌	- 1회 세미나, 강연 €6/회 - 2박3일 숙박세미나 €170~220
철학의 고전	고전강독	- 플라톤 전집, 키에르케고르 주요저작 등 강독	- 연속강연, €6/회
이론과 사상가		- 플라톤, 헤겔, 키에르케고르, 리처드 바그너, 토마스 만, 니체, 칼 맑스, 하이데거, 푸코 등 중요 사상가의 철학에 대한 강연들로 구성	- 사상가별 약3~5가지 주제의 강연, €6/회

· 소주제 5 : 철학, 심리학 외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세계의 종교	종교와 정치	- 논쟁적인 종교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	- 1회 강연/€6/회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 동양종교	- 세계의 종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각 종교의 핵심 개념에 대한 해설하는 강연들	
심리학과 처세	심리학	- 심리학 입문과정에서부터 심리학의 고전, 주요 개념들에 대한 심도 깊은 강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나'이해하기	- '애니어그램: 성격유형 알고 이해하기' - '올바른 선택을 위한 7가지 법칙' - '강한 정신력 혹은 고집불통?' - '꿈과 현실: 꿈의 해석' - '분노와 공격성' - '양심의 가책이란' - '공포의 해부학' 등	- 1회 강좌/€6/회
	처세1 '나'답게 살기	- '인생과 나: 나의 꿈 알아보기, 꿈 실현하기' - 'it's my life!'(주말숙박세미나) - '자의식, 자존감, 자신의 가치' - '변화를 위한 용기: 제2의 인생 설계하기' -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처세2 함께 어울리기	-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 '네트워크: 관계맺기와 유지하기' - '동료들 사이의 관계 개선하기' - '분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행동하기' - '반복되는 행동패턴과 불화의 원인' (커플대상 주말숙박세미나) - '똑똑하게 싸우기' - '나의 숨은 잠재력 찾기'(주중숙박세미나) - '워킹맘들을 위한 나만을 위한 시간: 영감워크숍' (주말숙박워크숍)	
학습과 기억력	학습과 창의성	- 똑똑하게 배우기: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 찾기 - '마인드맵핑: 창의적으로 일하기' 등 - '다르게 생각하기'	

	머리와 기억력	- '기억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뇌를 위한 10분 휘트니스' 등	
	청소년 시민대학	- 계획적으로 공부하기,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기 -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보기'	- 약 6시간 소요/주말세미나€22~23
	시니어 시민대학	- '일상에서 기억훈련하기' - '게임을 통한 기억훈련'	- 기억훈련프로그램 15회/€78~95
일반교양	교양	- 인류학/문화학, 역사, 예술사/건축, 문학, 음악, 자연과학/의학/수학, 교육학/심리학, 철학/종교, 정치학/사회학, 연극/영화, 경제/법 등의 과목 가운데 학기마다 세 영역(과목)의 수업을 조합한 '일반교양' 과목개설 과목의 조합은 매 학기 달라짐.	- 학기 중 : 주당 2시간/15주/€109 - 계절학기 : 주당 3시간/5주/€59
길 위에서	답사/소풍	- 뭍엔 인근으로 떠나는 다양한 답사/소풍프로그램 : 성, 수도원, 박물관, 로맨틱가도, 역사적 유적지 등	- 18명 내외, €7~10(입장료 별도)
	영상강연	- 여행전문가들이 각 자의 스토리 속에서 세계 각 국의 문화와 풍습을 영상/사진 자료 등과 함께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	- 1시간30분소요/€7~10

③ 문화, 예술, 창조성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문학과 영화	낭독회	- '00시립도서관에서 맞는 문학이 있는 아침' : 주말 오전 시립도서관에서 열리는 낭독회	- 아침 제공 / € 12
	책 소개	- 전문가가 신간도서나 고전을 추천하고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저자와 책	- 문학작품의 저자별 또는 주제별 강연 프로그램 : '독일적 주제-아버지와 아들'(헤르만헤세, 카프카 등), '추리소설이 여왕-아가사크리스티' 등	
	독서클럽	- 'LiesMich': 국내외 최신 출간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거나, 유명작가의 낭독회 또는 전시회, 연극 관람하면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됨.	- 10회/€73(입장료별도) - 연령별, 주제별, 거주지별 다양한 독서클럽 존재
	문학답사	- 전문가와 함께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	€19
	영화	- 영화이론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 - 영화전문가Eckart Bruchner와 함께하는 '영화이야기'	- 25년 동안 지속된 프로그램
글쓰기	글쓰기	- 글쓰기의 기초에서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다양한 글쓰기 강좌	- 세미나, 강의, 숙박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
	시니어 시민대학	- '나의 이야기' : 소그룹으로 각자 자신의 추억을 글로 쓰고, 서로에게 들려주는 프로그램	
	훈련과 직업	- 신문기사쓰기, 온라인매체에 글쓰기, 여행매체에 글쓰기, 대필작가의 글쓰기, 수필쓰기 등	
연극	일반	- 연극과 관련된 이론, 작품분석 강의 - 연기, 발성, 발음, 표현력 훈련 세미나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연극' : 연극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연극 참여의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바이에른 주거 및 작업장'과 공동주최 - €84 / 주말공동연습
		- 일반인들이 만드는 연극, 시니어가 만드는 연극,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연극 등 다양한 참여형 연극프로젝트 진행	

음악	음악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곡가, 작품에 대한 강의 - 음악이론, 음악사, 장르에 대한 강의 - ‘오페라(또는 오케스트라) 워크숍’ : 전문가의 작품 해설+리허설감상+연주자(지휘자)와의 대화+본 공연 감상으로 구성 - ‘콘서트가이드 라이브’ : 뮌헨필하모니 공연 시작 약 1시간 반 전에 피아노나 CD로 당일 연주될 곡을 미리 들어보고, 곡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 (45분 소요 / €3) 	
	음악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악, 합창,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수준별 강좌 	
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레, 힙합, 재즈댄스, 스텝댄스,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등 장르별 댄스강좌 	
예술과 예술사	예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사입문 및 시기별 예술사조 관련 강좌 	
	건축과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의 기초, 영화 속 건축이야기 등의 강좌 - 뮌헨의 보물들, 뮌헨의 건축이야기 강좌 - 주요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강좌 	
뮌헨시민 대학 in 박물관	박물관 가이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뮌헨 소재의 큰 박물관이나 전시관들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대한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 - 해설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별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면 사전등록 없이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VHS카드 소지자는 모든 전시회의 박물관 가이드프로그램 자유롭게 이용, €6 (박물관 입장료 불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별 참여프로그램(어린이, 또는 가족참여프로그램) 	
미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회화,소묘, 유화, 판화, 조각 등 기법별 미술수업(수준별) 	
유행과 의상디자인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디자인, 바느질과 재단, 전통의상, 뜨개질 등 다양한 강좌들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스타일 찾기 관련 강좌들 : 메이크업, 색맞추기, 스타일링하기, 스타일분석, 헤어스타일 등을 다루는 강좌들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진 촬영기법, 동영상 촬영기법 강좌(수준별) - 인물사진촬영, 누드사진촬영, 스튜디오촬영, 다큐멘터리사진촬영 등 대상의 성격에 따른 사진 강좌 	

④ 자연과학, 환경, 생태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자연과학 이해하기		- 생물, 지리, 화학, 물리, 천문학, 수학의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강좌와 일상 속의 자연과학을 소개해 주는 강좌들	
자연 탐색하기	동물원	- 동물원들에서의 주제별, 동물별 가이드투어 - 동물들의 야간행동습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동물원 폐장 후 진행되는 야간투어	
	조류탐사	- 전문가와 숲, 초원, 강 등을 두루 다니면서, 새들 생태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식물투어	- 판짜비제 초원의 이름 없는 들꽃체험(가족체험) - 전문가와 함께 식용야생식물과 약초를 찾아 떠나는 투어	
자연 가꾸기		- 도시의 자연 : 새둥지 만들기, 도시에서 벌 키우기 - 정원가꾸기 : 정원 속의 약국, 친환경 정원 가꾸기, 발코니에서 식용작물 키우기, 바쁜 사람을 위한 신경 안 써도 되는 정원만들기, 정원관리의 다양한 기법 및 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가능하게 살기		- 계획하기, 집짓기, 살기 : 집짓기의 재료, 건강하게 집짓는 방법 : 지역의 상수도 시설, 빗물처리시스템 관련 강좌 : 대안적 난방시스템, 발전시설 방문프로그램 이동수단 : 자동차 없이 살기, 자전거타기 워크숍 등 지속가능하게 살기 : 노년의 대안적 주거형태 강의, 업사이클링 워크숍 등	민헨 친환경교육센터 (das Oekologische Bildungszentrum Muenchen)와 협력

⑤ 시니어 시민대학

구분	소분류	프로그램(내용)	비고
인간, 사회, 정치	학습과 기억 철학 정치와 사회 심리학과 처세 경제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 기억력 훈련 - 행운과 좋은 삶에 대한 철학 - 시사정치 이슈에 대한 강의와 대화 프로그램 - 시니어를 위한 영화카페, 인생 후반전 설계하기 - 작은 것에서 인생의 의미찾기 - 네트워크-관계맺고 유지하기 - 시니어를 위한 시청투어 - 시니어 맞춤 공원 및 시내투어 - 시니어를 위한 주식투자 - 유연장쓰기 - 창업/투자사기 예방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 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과정보다는 회화, 조각, 사진, 동영상, 예술사, 건축과 디자인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입문단계를 추천 	
건강, 영양, 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덴크라이스요법, 기공, 태극권, 요가 등 시니어에게 적합한 운동을 중심으로 시니어반 운영. - 그 외 노르딕워킹 등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중 일부를 시니어 대상으로 운영. - 의사와의 상담, 병과 노화 이해하기 등의 건강강좌 등 	
컴퓨터와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TV, SNS, 구글활용의 기초 등의 강좌 	
외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스페인어 과정에는 시니어반 따로 편성 	

[붙임 - 5] 평생교육관련 해외사례

□ 뉴욕시의 평생학습

- 뉴욕시 성인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인교육 정보 및 성과시스템을 도입
 - 성인 문해 및 직업 관련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학습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 증진

□ 미국 버지니아 대학

- 학위과정외 직업능력개발과정(professional development), 개인발전과정(personal enrichment),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5,000명의 성인교육

(1) 자격증과정 : 직업개발 및 이직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과정 개설

일부는 온라인 강좌형태 제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센터 통해 강좌

(2) 비학위과정(Community Scholar) :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위과정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과정(의학, 법, 교육학을 제외한 모든 강의 수강)학기당 2개강의 들을 수 있고 학점으로 최대 11.5점 수강 가능

(3) 개인발전과정 : 비학점 과정으로 성인들이 쉽게 관심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저녁7~9시, 일주일에 한번강의

※ 카테고리 : 역사 및 종교, 예술 및 음악, 건축 및 디자인, 돈과 기업, 철학과 자연과학, 조경과 정원, 작문, 언어

(4) 직업능력 개발과정

- 비학점과정 : 지도력향상, 사업 및 조직향상, 이벤트플래닝, 전략적 과정경영, 비영리기관 운영, 협회운영
- 학점과정 : 회계, 인사관리, 온라인자격증, 대안적교사자격증

(5) 여행프로그램 : 개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를 여행 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

※ 예시) 역사학 교수와 일주일간 여행을 통해 흑인인권 운동 역사를 살펴보고 이해

□ 도쿄시의 평생학습

○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TV, 라디오 등을 통해 자택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대학 운영 충실화

(2) 실천적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전수학교 진흥 추진

(3) 평생학습의 성과를 발표하는 장인 “전국 평생학습 페스티벌” 개최

○ ‘공민관’을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민간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제공

○ “도쿄시 지역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해 평생교육 활동 추진

- 평생학습·사회교육시책의 심의 및 제언, 도쿄시 평생학습 정보 시스템의 강화, 도쿄시 내의 구·시·정·촌의 정책적 지원

□ 일본 메이지 대학 리버티 아카데미(Liberty Academy)

○ 메이지대학 교원을 코디네이터로 두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개방

(1) 주요강좌 : 공개강좌, 인문교육/문화강좌, 자격훈련과정, 어학강좌, 비즈니스프로그램

※ 기부강좌 및 위탁훈련과정

(2) 기업과 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개강좌로 강좌 명에 기부 측의 명칭을 사용함

(3) 이에 교원과 기부측이 추천한 강사로 이루어진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높은 호응

(4) 재취업촉진프로그램 : 4단계

- 도입교육(1단계), 실무교육(2단계), 사례연구(3단계), 모의취업연습(4단계)

※ 주요프로젝트 : 지역신산업인재육성, 전통기능인재의 육성, 주부에 의한 지역브랜드 개발, 박물관 등 자원봉사자 육성 등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수 후 바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와세다 대학 공개강좌

○ 교양, 비즈니스, 어학, 스포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주야의 연간 1,500개강좌

- 회원제로 운영, 입학시 연령, 학력제한 없음. 입학시험도 치르지 않음

2008년 수강자 31,274명(여성67%, 10대~90대까지 연 3만명 회원등록)

※ 각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생에게는 “와세다 대학 추천 교우” 자격이 주어짐

□ 런던시의 평생학습

○ 문화수도(Culture Capital) 개발 프로그램 전개

(1) “문화자본을 개발하여 세계수준의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 마련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시의 문화-관광 산업 양성

- 런던시의 역사 및 관광자원 탐색 프로그램, 런던시 역사 탐색 프로그램, 관광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등

(3) 평생교육을 통한 런던의 문화자본 개발로 도시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활로 마련

○ 60세 이상 학습자, 소득지원금이나 취업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계층에게는 수업료 감면

□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 -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의 산실

○ 영국의 평생교육기구(1980년대초 ~)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교육 협동조합이며 시민들의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교육기관

○ 1981년 캠브리지 대학 Peter Laslett 교수가 캠브리지 지역에 U3A를 처음 도입
※ U3A 확산

○ 영국 전역에 798개소의 지부를 두었으며 회원은 26만 9천 7백 50명

○ 교육의 주제 : 역사, 철학, 예술, 무용, 체육, 정치 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

○ 조직과 운영(U3A in London.Hempstead 지부) 예

(1)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비에 의존, 완전히 정부나 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

(2)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며 저 소득자들에게는 약 1/3 정도의 회비

(3) 회원이 되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는 무료로 1년간 들을 수 있음

(4) 독립적인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드물며, 거의 대부분의 지부들은 개인들의 집이나 도서관, 또는 교회 등의 공간을 빌려 교육

(5) 지부의 회원도 한 20여명 되는 곳부터 런던과 같이 1600여명까지 다양

(6) 교육 프로그램은 160여 개로 철학, 언어, 심리학, 예술, 체육, 게임, 컴퓨터 등 다양

(7)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공개강좌가 열림

- 모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전문적인 유명강사가 초청

- 몇 달간의 공개강좌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미리 회원에게 공지

□ 파리시의 평생학습

○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역 성인교육 코스”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베를린시의 평생학습

○ 개인 학습계좌제(ProfilPASS) 도입

(1) 학교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수한 교육경험과 결과 등 일생에 걸쳐 학습한 것을 기록

(2) 취업을 위한 자격 증빙자료, 개인 생활의 재설계를 위한 참고자료, 취학을 위한 설계 자료 등으로 활용

- 교사나 교육관련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

□ 로마시의 평생학습

- 성인교육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설계·관리 및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학력인증, 자격인증, 외국어 인증 등의 체계적인 인증 제도를 시스템화하여 학습의 결과를 공적으로 활용

□ 스웨덴의 평생학습

- 스웨덴 평생교육의 중심 '스터디 서클(Study Circle)'
 - (1) 스터디 서클은 스웨덴에서는 대대적인 대중운동으로 매년 300만명이 서클에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 전체 인구의 30%, 성인인구의 60% 이상이 스터디 서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2) 1902년 오스카 올손에 의해 시작한 스터디 서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리 갖춰진 형식이나 의무, 강요는 전혀 없다.
 - (3) 스웨덴의 평생교육 접근방법은 스터디 서클처럼 지역 수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것과 파트너십 철학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합리적 접근 토대를 강화하는 것, 열린 학습 진로를 위해 성인교육과 공동체 교육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 (4) 스터디 서클의 수는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클간의 연합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 더욱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경제·정치·윤리·환경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시스템을 스터디 서클을 통해 만들려고 하고 있다.
 - (5) 스터디 서클은 3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모여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서클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지속할 경우 서클 운영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스웨덴 성인의 60% 이상이 스터디 서클에 가입돼 있으며 전국에 약 28만개의 서클이 운영되고 있다.

□ 핀란드의의 평생학습

○ 개인의 지식발전을 통한 공동체의 동반 성장

- (1) 정부는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등을 이브닝스쿨(evening school)로 활용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자기주도 학습과 노동시장 훈련, 서비스 훈련 등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2) 전문성을 가진 주민을 평생교육 강사로 채용해 정부가 활동비를 지원하면 이들로부터 교육 받은 주민들은 향후 강사가 돼 다른 주민을 가르치게 된다.
- (3) 학습자와 강사진의 참여율이 성인 인구의 70%에 달한다.

□ 독일 시민대학

○ 성인교육에 있어 기획균등을 지속적으로 보장, 하기위해 특정 성별이나, 계층,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1) 지자체나 등록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지원
- (2) 비정치적, 비종파적이며 대부분 야간제를 취하고 있음
- (3) 가장 큰 뮌헨시민대학은 성인의 계속적인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
- (4) 이곳 시민대학은 지역사회가 구축할 수 있는 최상의 사회봉사이며 개개인의 미래준비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1년14,000개 강좌와 25만명의 수강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덴마크 평민대학

○ 평민대학이 선언한 “삶에 대한 계몽”이라는 교육목적은 책임성을 갖고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며, 자유롭고 책임성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것

□ 프랑스 시민대학

○ 2005년 시작된 리옹시민대학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대

학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무나 제재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개방대학

-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프랑스 시민대학협회”에 60개 이상의 시민대학이 등록되어 있음
- 칸 시민대학과 동일한 목적지향(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시민대학들의 프로그램과 정보 등을 교환하고 국제회의를 통해 책임자와 지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유럽시민대학연합”구성
- ※ 이외에도 “자유시간대학”, “나이가 없는 대학”, “모든 지식의 대학”, “대학 밖의 대학”다양한 이름과 형태의 대안대학으로 프랑스 전역에 70개 대학 10만명 수강

□ 덴마크 시민대학

- 시민대학에서는 공동체의식(community), 민주주의식(democracy), 상호주의(interaction)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농민 또는 서민층의 주도로 사회의 긍정적 개혁 강조
 - 국민의 의식개혁 및 삶을 계획하는 역할을 전개, 인류공통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획득이 가능함을 주장.

○ 연 혁

(1) 1856년 NFS Grundtvig에 의해 창설됨.

(2) 오늘날 이런 종류의 시민대학이 전국적으로 106여개 이상 설립되어 운영

○ 시민대학의 특징 - 틈새학교(에프터스콜레와 폴케헤어스콜레 학교)

(1) 자유중등학교(efter skole)는 기숙형으로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는 법을 배우고, 풍부한 대화와 상호 작용을 통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에 대단히 소중한 역할

(2)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출 전 일 년 정도씩 기존 학제에서 벗어나 자기를 성찰하고 삶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성장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스템이다.

(3) 어른이 되어서도 시민대학(folke heue skole)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에 국가는 공공 재정으로 75%의 수준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지만,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 학사과정 : 정기코스과 단기코스 운영(설립 당시부터 기숙제로 운영)

(1) 장기 코스 : 6개월

- 학과목 : 정치학, 세계화/저널리즘, 포토그래피와 포토 저널리즘/ 영화와 문학/ 철학과 세계관/ 미술과 디자인/ 음악, 연극과 동작(movement)/ 커뮤니케이션

※ 2011 가을학기 예시(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운영)

· 1모듈 : 8월 28일-10월23일, 9월 17-25일은 바르셀로나 수학여행

· 2모듈 : 10월 23일- 12월 17일

- 비 용 : 주당 약 63만원

· 기숙사 비용 : 신관 싱글룸 1주일이 약 31만원

· 기타비용 : 주당 20,000원(재료비, 문화이벤트, 담요, 배게등 렌트비용)

· 등록비 : 멤버십 약 10만원, 예약금 약 20만원

· 보조금 : 학생개인지원/특별지원금(고등교육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당 416달러) 장학금/시 보조금/ 지역 보조금/ 25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금 등.

(2) 단기 코스 : 3개월

- 학과목 : 포토그래픽, 고전성가대, 신앙/워드파워/모델 페인팅, 미국 코스/디지털포토, 페인팅, 문학, 페인팅, 철학, 페인팅, 세계화와 민주주의, 문학 등

- 비 용 : 싱글룸 (약 99만5천원, 숙식과 강의 토탈 비용)

※ 용 어

▶ 공립기초학교 : 폴케스콜레 (초등학교~고1)

▶ 자유학교 : 프리스콜레 (1~9/10학년)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로 공립기초학교에 대응

▶ 자유중등학교 : 애프터스콜레 (중2~고1) -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자유학교

▶ 시민대학 : 폴케회어스콜레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성인) - 4개월 ~ 1년 과정 기숙형

□ 독일의 뮌헨 시민대학

○ 유럽에서 가장 큰 시민대학으로 1년에 14,000개 강좌 25만명 수강

- (1)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든 계층과 연령층을 포괄하며 어떤 특정개념이나 학력 등 요구하지 않는 순수개방형 교육기관
- (2) 대학이나 연합회, 단체 등 기타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150개의 지속적인 지역협력관계 존속

○ 뮌헨 시민대학 구성 및 교육과정 수립원칙

- (1) 조직 : 경영본부와 각종 위원회, 서비스본부, 홍보부, 프로그램 편성부, 분교,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
 - 분교 : 뮌헨시에 33개 분교
 - 위원회 : 감사, 관리, 전공자문위원회 이중 감사위원회 최고의결기관
- (2) 교육과정 수립원칙: 수업참가자의 요구를 중심
 - 강의의 다양성은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학습요구를 자각시키는 기능
 - 다수의 관심영역에 따라 교과과정이 개발이 이루어지나 소수세력을 배려하는 교과과정도 개발
 - 프로그램은 분교와 분교의 전문분과의 담당자들의 협의하에 이루어짐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1) 교육프로그램 구성

-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 . 철학과정치, 문화, 종교. 등 성인교육의 고전적 영역이 모두 망라
- 언어프로그램
 - .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불가리아어, 힌두어까지 망라
 - .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에게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 직업교육
 - . 청소년직업훈련과정은 청소년이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도우며 수공업분

야의 기초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거의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임

- 재취업훈련과정 : 실업청소년과 여성실업자를 위한 수업과정은 노동촉진법의 지원 하에 실업률 해소에 도움
- 수공업자들을 위한 자격취득교육으로 이들이 자력으로 수공업 공장을 설비하는 과정을 돕기도 함

- 보상교육

- 중도에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제 2의 교육기회 프로그램 제공,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과 자격증을 수여
- 언어과 직업분야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과정 이수 할 수 있음
- 저학력계층은 특정한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고 유동적인 수업료 정책을 실시하여 참여유도
 - ▶ 장애인, 저학력청소년, 노령인구, 이주민 대상 등

- 건강교육

- 가장 인기있는 강좌
- 건강공원은 시민건강의 중심지로 독립적인 운영체로 관리(25명의 정규직원과 120명강사)
- 신체, 정신,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총장, 학장, 사무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에 속하며 강사들의 공식직함은 대학 강사임
- 강사들은 매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 강의신청서를 내고 이 강의신청서가 프로그램 책자에 실림 → 등록생 미달 시 폐강(매학기 강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 강사들은 대부분 취미나 부업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음
 - 철학분야는 문헌대학 교수, 어학분야는 원어민으로 독일어가 능통한 대학졸업자,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전임강사, 예술분야는 전부 유명한 예술 인들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채용

(3) 시민대학의 재정은 60%정도를 시에서 담당하고 40%정도가 학비로 충당

(4) 학습자들을 위한 상담과정을 제공하여 다양하며 쉽게 조망하기 쉽지 않은 계속교육

의 가능성을 열어줌

□ 독일시민대학

- 연간 개설 강좌 1만 4,000개, 수강생 25만 명. 한나 아렌트와 노엄 촘스키의 철학에 서부터 곰팡이 퇴치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과 일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강좌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물론 강좌의 질도 우수하다. “그런 곳이라도 대체 어디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곳은 뮌헨 시민들의 학교, 뮌헨 시민대학이다. 사실 개설 강좌가 연간 1만 4,000개라고 하면, 강좌 수에서는 이와 비교할 만한 교육기관을 찾기 어려운 정도이다.



뮌헨 시민대학을 처음 접한 사람은 조직의 엄청난 규모와 체계적이고 다양한 커리큘럼 때문에 놀란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민대학이 뮌헨 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규모와 프로그램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민대학이 독일 전역에서 구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집에서 가까운 시민대학의 다양한 강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민대학이 시민대학에서 >
독일 시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고, 직장인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힌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민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정치·사회교육이다.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시민대학에서 제공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강좌는 외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독일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 습득과 기술 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함께 사회 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의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 대학 기업 교회 노조 등 4만 곳에서 시민교육 실시 >

가히 놀랍다고 할 만한 이러한 시민대학의 운영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하다. 뮌헨 시민대학의 경우, 전체 운영 예산의 70% 가량이 주정부와 지역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만으로는 전체 운영비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덕분에 시민대학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시민교육은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교회, 노동조합, 상공인연합회, 정당, 기업

체, 병원,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약 4만 개의 기관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독일에 살고 있는 19세~64세의 성인 가운데 49%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독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중앙의 여러 행정부처와 다양한 기관, 단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 산하 평생교육전문위원회의 2002년 중간보고에 따르면, 정부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1999년 한 해 동안 시민교육에 지원한 예산은 약 320억 유로(약 45조 원)라고 한다. 직업 기술의 습득을 위한 예산은 사기업과 연방정부, 그리고 실업보험으로 운영되는 연방노동원 등이,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은 지자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그 정치적 무게가 커지면서 예산지원에서 점점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 모든 사람이 필요한 교육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 사회가 시민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말해주는 것이다.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시민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필요성 또는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시민교육을 통해 날로 복잡해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 앞에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들이 민주적인 공동체 성장의 토양이 된다.

둘째, 시민교육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실제로 오늘날 독일에서는 전체 청소년의 11.3%에 이르는 이민자 자녀들이 독일 사회와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외계층의 대를 이을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시민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학습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노령자들을 재교육하고, 그들을 위한 특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기구로서 시민교육제도가 필요하다.

<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돌파구 찾아야 할 시민교육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시민교육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교육기관에 지원되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시민교육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급격하게 줄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뮌헨 시민대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체 운영예산의 25%가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산삭감이 불러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시민교육기관의 '사회적 과업'의 축소 또는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진전으로 정치, 사회, 문화의 통합을 위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필요를 거스르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현재 독일의 시민교육정책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공공분야의 사업이 하나 둘 씩 위축되거나 스러져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적 기능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독일사회가 경제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교육이 맞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 2006 가을 독일 뮌헨시민대학의 프로그램 예시 >

◇ 정치와 사회

① 정치와 사회 - 기본적인 질문들

- 민주주의의 비밀 - 고대와 현대 사이의 흔적 찾기
- 노동시장에서의 도전 : 이웃나라들의 해결방안
-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나? - 유럽국가 사이의 통합정책 비교

② 국제정치 - 국가와 조직

- 지배와 권력의 문제 -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
- 영화와 정치 - 할리우드와 워싱턴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 러시아 -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③ 지역정치와 도시의 역사

- 위기의 도시 - 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선언
- 월요포럼 - 뮌헨과 나치즘

◇ 생태교육센터의 2006 가을 커리큘럼 중 일부 발췌

① 미래를 위한 정치 - 사회의 미래

- 미래에 대한 질문 -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나누는 토론모임
- 수수께끼 세계화 - 어떻게 세계화, 지역화가 지속가능한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② 생활 속의 생태학과 지속가능성

- “생태적인 돈”

③ 계획하기, 짓기, 살기

- 건강은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 잘 자~ - 당신이 알아야할 건강한 수면에 대한 사실
- 생각하기-잠자기-꿈꾸기: 생태적으로 만들기

④ 요리

- 글루텐 없는 성탄절과 색다른 먹을거리
- 오감으로 요리하기 - 냄비와 후라이팬의 자연스러운 마술

◇ 열린 아카데미

① Filmdokumentation: The Nazi Plan, 194분

: 다큐멘터리 영화 감상과 전문가의 영화소개,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관련 다큐멘터리

② 노암 촘스키: “Power and Terror”

- 노암 촘스키가 2002년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나눈 대화들을 담은 필름 “Power and Terror”를 노암 촘스키의 전기를 엮은 미하엘 쉬프만이 소개하는 시간 독일 시민대학

○ 기원

1844년 덴마크의 N.F.그룬트비(Grundtvig, Nikolai Frederik Severin)의 주창에 의

해 시작되었다. 1864년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양국과의 싸움에서 패배 후 그의 제창으로 전국에 설립된 시민대학(Folkh jskole)에서 교육을 받은 농촌 청년은 패전에 잇따른 농업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건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덴마크의 국민대학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는 바이마르(Weimarer) 공화국시기(1919-1933)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계몽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 의의

덴마크의 시민대학운동은 전세계의 현대 성인교육의 모범이 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독일에서도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은 성인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다. 독일에서 시민대학은 전통적인 '국민교육(Volksbildung)과 연계하여 국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Volks(국민)와 Hochschule(대학)의 합성어로 '민중대학', '국민대학', '국민고등학교'로 번역하기도 한다.

○ 특징

시민대학은 독일의 공적인 성인교육기관이다. 시민대학이 담당한 공적인 성인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을 계몽시킨다. 즉 국민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적 시민과 자립적인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공교육(Bildung)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단순한 지식전수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 비판능력 향상, 사회생활의 지도 및 방향 제시의 기능을 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아를 인식하고 의식 있는 주체로 행동할 수 있게 교육한다. ③ 정치적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공적책임을 감당한다. ④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문을 개방한다.

○ 기관 운영

1998년 독일의 전체 998개 시민대학(지부 3,608개)의 조사에서 기관의 행정적인 구조로 1/3이 법인 등록기관이며, 1/2은 지방행정에 소속되었다.

1970년대에 평생교육법/성인교육법이 각 주에서 제정됨으로 성인교육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민대학은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지원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시민대학의 재정에 세 가지 출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가, 학습참가자들이다. 각 주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3%나 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시민대학이 공적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성의 원칙과 이중적인 재정확보 금지, 교육결과의 공개, 교육공동사업을 위한 준비성, 교육전담인력의 지도원칙이 있다.

1993-1997년도 전국시민대학 프로그램 구조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첫째, 교육시간별 분류에서 언어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둘째, 수업시간별 분류에서 건강과 일-직업, 문화-조형, 학교교육과정, 정치-사회 영역의 순서로 많았다. 전 과정의 약 9%의 수업시간과 약 2%의 교육과정이 용역 또는 계약사업이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34.5%가 여성만을 위하여 개설되었다. 여성교육은 환경교육, 건강교육과 함께 시민대학이 미래에 계속 중점을 두게 될 주제이다. 그밖에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교육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민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전통은 기숙제로서 일반교육을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제2차 대전 후에는 통학제가 지배적이다. 교육시간별로는 대부분 야간제이었으나 지난 30년간 전체적인 학습과정에서 낮 강좌가 증가하여 약 25%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더불어 집중강의형식, 혼합된 시간형태의 강의는 감소하였다. 1998년 시민대학의 조사에서 시간조직형태를 분석해보면 저녁 강좌가 59.9%이었다. 일회성 강좌는 15.3%,로 1987년 5%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그밖에도 주간 학습과정, 주말 세미나, 장기 전일제 과정, 교육 유급 휴가제와 관련된 일 주일간의 세미나 등도 있다.

1998년 988시민대학 중 903개 시민대학의 자료 분석 결과 시민대학의 참가자 중 여성의 비율이 74.2%이었다. 특히 건강영역은 84.4%, 문화-제작은 80.7%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구조별 참가자를 분석해보면,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8세 이하가 5.9%, 18-25세가 10.3%, 25-35세가 27.3%, 35세-50세가 31.3%, 50-65세가 18.9%, 65세 이상이 6.3%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35세 이상의 연령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50세 이상은 약간 감소추세이다.

목표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습과정의 10.5%(55,500 과정)가 특정 목표집단을 위해서 제공되었다. 노인들을 위한 강좌는 특히 건강(29.0%), 언어(34.9%) 영역으로 집중되었고,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일-직업 부문과 언어 및 기본교육-학력수료과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 국외 연구 동향

Dikau 외 일부 학자들은 시민대학을 독일 성인교육시설의 원형으로 간주하였다. 1957년 11월에 '시민대학협회교육연구소(Pädagogische Arbeitsstelle des DVV)'가 Frankfurt에 설립되었는데, 이로써 시민대학에서의 실시되는 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소의 주요업무는 학문연구와 성인교육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상호보완역할을 하는 것이다. Arnold(1998)는 시민대학설립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지역사회단위로 구축할 것, 둘째,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 셋째, 1933년 이전의 성인교육의 한 주류였던 '신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960년대에 새로운 시민대학의 모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가 활발하였다. 특히 Becker(1975)는 1965년에 시민대학의 목적을 첫째,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위한 도움을 준다, 둘째, 방향설정을 위해 도움을 준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정하였다. Dolff(1979)는 "시민대학의 발전과 성인교육의 발전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Rhrig(1995)도 "독일 시민대학의 역사

[붙임 - 6] 시민사회단체 교육프로그램 사례

□ 여성부문 교육프로그램

[여성부문]

■ 기관명 :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www.womanfuture.or.kr)

■ 프로그램 :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자기발견 여성학교」

■ 교육목표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상호 소통과 교류, 공감을 통해 나와 이웃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와 가족 친화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교육기간 : 총 4회, 10시간(일일 2시간 30분 교육)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자아찾기> - 신뢰와 자신감 구축(순수의식 찾기)	이은영 여성힐링아트‘릴라’ (여성인문학, 여성치유 공간운영)
제2회	<자아수립> - 성공하는 여성의 다섯가지 테마	
제3회	<마을커뮤니티 재발견> - 마을과 공동체 삶 - 여성들의 활동으로 엮어보기	구은경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무국장
제4회	<사회와 소통하기> - 여성의 관점으로 지역살피기	강선미 (하이람연구소 소장, 마포구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 참고사항

<참가비>

- 무료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소개>

- 여성의 미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기 경영 능력 제고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 민간단체.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 연락처 : 02-460-2300

[여성부문]

■ 기 관 명 : 한국여학사협회(www.kauw.or.kr)

■ 프로그램 : 100세 프로젝트 「Well-aging School」

■ 교육목표

100세 시대, 숫자로 본 여성의 생애주기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통합의 기회를 열고자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한 시간관리와 Life-Coaching, Healing Program 마련

■ 교육기간 : 총 8회, 32시간(일일 4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교육내용	숫자로 본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 이해	-
제2회		나이들에 대한 긍정적 자아통합과 수용	-
제3회		고령화시대,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	-
제4회		T.I.M.E(Time Innovation for me), 나를 위한 시간혁신	-
제5회		성인 중/후반기 여성의 삶의 특징과 평생교육의 의미	-
제6회	Healing Program	스토리텔링을 통한 라이프스토리, Herstory 쓰기	-
		드라마치료를 통한 상처치유와 갈등해소	
		미술치료를 통한 자아탐색	
		EOS원리를 활용한 자기표현훈련	
		원예치료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삶 가꾸기	
		영화관람 등	

■ 참고사항

<참가비>

-

<(사)한국여학사협회 소개>

- 1950년 설립된 (사)한국여학사협회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증진함으로써 여성의 교육수준을 높이며, 성, 연령, 지역, 정치적 의견, 그 외 의 어떤 요소와 여건에 관계없이 만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 우정, 평화를 촉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모든 공적생활에 있어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3-44

- 연락처 : 02-993-2378

[여성부문]

- 기 관 명 : (사)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 프로그램 : 움직이는 여성정치학교
- 교육목표 :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정치를 만난다. 나로부터 우리의일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삶의 정치를 실천하자
- 교육기간 : 총 5강, 13시간(일일 2시간30분 교육)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강	모두가 가능한 정치 - 누군가는 배제된 권력과 정치이야기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2강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 여성의 삶과 생활 속 정치이야기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제3강	의회, 알아야 보인다 - 중앙의회, 지방의회의 이해	신미숙 이미경의원 보좌관
제4강	내 삶의 정치, 실천 - 의정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김미숙, 윤희근 한국여성의전화 모니터링단
제5강	영화관람 및 이야기 나눔 - 영화 관람 및 토크	한국여성의 전화

■ 참고사항

<참가비>

- 1만원

<(사)한국여성의전화 소개>

-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들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나 관습·인습을 없애고 남녀의 평등한 인격관계 수립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는 단체 임.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녹번동)
- 연락처 : 02-3156-5400

[여성부문]

- 기 관 명 : (사)수수팔떡 가족사랑연대(www.asamo.or.kr)
- 프로그램 : 임신출산 부부교실
- 교육목표 : 아기를 잉태하기 전 또는 잉태 중에 해야 할 엄마 아빠의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에 대해 배우며, 태교의 중요성과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빛어주는 바른 식생활에 대해 배움
- 교육기간 : 총 4회, 20시간(일일 5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엄마, 아빠의 몸가짐 마음가짐	최민희 (수수팔떡 대표, 황금빛똥을누는아이 저자)
제2회	자녀양육의 의미, 출산 전 준비사항	
제3회	- 임산부 건강관리법 및 임산부 체조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 기타 대체수유 Q&A	
제4회	자연식 식사의 중요성 및 저녁식사	

■ 참고사항

<참가비>

- 1만원 5천원

<(사)수수팔떡가족사랑연대 소개>

- 2000년 설립된 (사)수수팔떡가족사랑연대는 양성평등과 민주적 여성문화를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켜 평등하고 성숙한 민주적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임.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5동 210호
- 연락처 : 02-3481-0399

[여성부문]

- 기 관 명 :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www.whrd.or.kr)
- 프로그램 : 여성, 힐링, 평화 역량강화아카데미 안내
- 교육목표 : 남북여성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폭넓은 이해와 힐링을 통해 '평화옹호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
- 교육기간 : 총 7주, 14시간(일일 2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삶 바라보기	여성상담전문가 진행예정
제2회	나 자신과 소통하기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
제3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이해	-
제4회	‘내 안에 있는 힘’ 타인과 평화롭게 소통하기	-
제5회	워크숍 - 나의 노래, 우리노래	-
제6회	북한여성과 남한여성,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
제7회	나와 우리의 만남을 연결하기 - 평화옹호자의 역할과 미래	-

■ 참고사항

<참가비>

- 무료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소개>

- 2005년 설립된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은 여성, 인구, 평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한 활동 진행 및 북한이탈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인권향상, 분단의 갈등과 대결을 풀어나가는 공동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단체 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19 목련빌딩 201호
- 연락처 : 02-2672-0929

[여성부문]

- 기 관 명 : (사)지혜로운여성(www.bwdi.or.kr)
- 프로그램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 교육목표 : 다문화 시대, 글로벌 역량 강화로 소통과 협력을 공동의 선으로 지역사회를 발전
- 교육기간 : 총 10주, 30시간(일일 3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post-2015 글로벌개발프레임과 문화의 다양성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제2회	한국의 다문화 사회 이해	김종일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제3회	개인정체성 및 사회정체성, 표현예술치료기법 활용정체성 표현	박충선 대구대학교 교수
제4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미술심리 치료	김승목 중앙대 예술대학원 콘텐츠디자인 연구소
제5회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 규범 이해, 국제 기준의 에티켓	이영미 한국외국어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외래교수
제6회	고정관념, 편견 깨기 차별극복방안 탐색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신호승 가슴으로 대화하기 연구소 대표
제7회	비폭력대화 훈련, 상처 주고 받지않는 대화	
제8회	문화적 민간성, 인권 감수성 훈련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제9회	다문화가족, 이주민과의 만남, 휴먼라이브러리	-
제10회	지역 다문화 현안 탐색, 해결 방안 찾기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참고사항

<참가비>

- 무료

<(사)지혜로운여성 소개>

- 2000년 설립된 (사)지혜로운여성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여성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양성이 조화로운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하는 단체 임.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46-21)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1층
- 연락처 : 02-722-2101~2

[여성부문]

- 기 관 명 : 한국여성단체연합(www.women21.or.kr)
- 프로그램 : '참 좋은' 지방정치학교 '여성이 간다!'
- 교육목표 : 지원의원을 꿈꾸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일자리, 안전, 돌봄, 교육, 복지... 어렵지만 한 정책의제들을 생활의제로 만들어보고 실천까지 경험
- 교육기간 : 총 6강 및 실천워크숍(1박2일), 36시간(일일 3시간 교육) + 실천워크숍(1박2일)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입교식 및 개강] - 강의1. 지방자치 20년, 민선6기 지방의회의 의미 - 강의2. 여성이 느끼는 지역정치 - 강의3. 여성의원이 바꾸는 지역	엄태석 서원대 교수 이구경숙 前 여성연합 사무처장 서정순 서대문구의회의원
제2회	[돌봄과 복지] - 전문가 의제강의 - 지방의원 사례소개 - 참가자 전체워크숍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순 서대문구의회의원
제3회	[일과 경제] - 전문가 의제강의 - 지방의원 사례소개 - 참가자 전체워크숍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제4회	[여성과 안전] - 전문가 의제강의 - 지방의원 사례소개 - 참가자 전체워크숍	이미경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목소영 성북구의회의원
제5회	[기타의제] - 전문가 의제강의 - 지방의원 사례소개 - 참가자 전체워크숍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제6회	[의회모니터링] - 강의1. 서울시 자치구 예산과 정책 - 강의2. 의회 모니터링 '이렇게 하면 보인다' '동북여성민우회 생강모임 회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제7회	[1박2일 실천워크숍] 프로그램. 연결문 작성, 연결기법, 나만의 브랜드 공약 만들기 공보물 기획, 캠프 구성 등 실천 전략으로 구성할 예정	-

■ 참고사항

<참가비>

- 10만원(* 80%이상 수료시 참가비 전액을 환불)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

- 전국 7개 지부, 28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 1987년 창립 이래 26년 동안 호주제 폐지 운동,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 인권과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연락처 : 02-313-1632

[여성부문]

- 기 관 명 : 너머서(www.beyondit.or.kr)
- 프로그램 : 풀뿌리 여성 임파워먼트 - 성인지감수성 과정
- 교육목표 : 너와 나 우리 안의 평화 문화와 감수성 훈련
- 교육기간 : 총 9회 27시간(일일 3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2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여성주의	이영자 교수
제2회	섹슈얼리티 이해 1	변혜정 교수
제3회	성인지 관점과 리더십, 젠더커뮤니케이션	김영옥 교수
제4회	섹슈얼리티 이해 2	변혜정 교수
제5회	공공성의 변화와 여성주의 생활정치	김영옥 교수
제6회	비폭력 대화	김희은 원장
제7회	평화걸음	-
제8회	서대문 여성이야기	서정순 의원
제7회	평화걸음	-

■ 참고사항

<참가비>

- 4만 5천원(* 너머서 회원 10% 할인)

<너머서 소개>

- 2005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단체 내부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성평등 운동, 평화문화 프로그램, 십대 자립 지원 활동, 미디어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326번지 3층
- 연락처 : 02-821-8297

[인권부문]

■ 기관명 : 한국인권재단(www.humanrights.or.kr)

■ 프로그램 : PHD 글로벌 리더십 학교

Peace-Human Rights-Developmnet Glocal Leadership School(PHD 스쿨)

■ 교육목표

평화, 인권, 개발(Peace, Human Rights, Development, PHD)의 국제사회의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이해

■ 교육기간 : 2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총론 : 평화-인권-개발의 연계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제2주	평화1 : 이론- 국제관계와 평화의 기본개념과 키워드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제3주	평화2 : 맥락-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운동	이대훈
제4주	평화3 : 적용- 평화와 인권. 평화와 개발의 연계	이대훈
제5주	인권1 : 이론-인권의 기본개념과 특성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제6주	인권2 : 역사-인권의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	조효제
제7주	인권3 : 제도-국제 및 국내주요 인권보장제도	조효제
제8주	개발1 : 이론- 개발과 개발협력의 기본개념과 키워드	이성훈
제9주	개발2 : 제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운동	이성훈
제10주	개발3 : 적용- 주요 국제NGO의 Advocacy	이성훈

■ 참고사항

<참가비>

- 20만원(한국인권재단 후원회원과 전현직 인턴& 펠로우 50% 할인)

<한국인권재단 소개>

- 199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 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및 리더십 양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재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8-1 4층

- 연락처 : 02-363-0002

[인권부문]

■ 기관명 : 인권재단 사람(www.hrfund.or.kr)

■ 프로그램 : 인권중심 시민학교

■ 교육목표

인권의 관점으로 헌법을 읽고 현실을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 해보는 시간, 헌법의 한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헌법을 구상해 보는 시간.

■ 교육기간 : 2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헌법총론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	민주주의와 정치권력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제4주	헌법이 말하는 평등	김도균(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	사생활의 보호와 정보권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제6주	표현의 자유	박경신(고려대 법전문대학원)
제7주	복지국가와 사회권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제8주	노동의 권리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주	헌법정신인 경제민주화	윤현식(노동당 정책위 의장)
제10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헌법	

■ 참고사항

<참가비>

- 15만원(개별강좌 2만원)

<인권중심 사람>

- 2013년 시민들의 참여로 민간독립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을 설립하였으며, 재정이 열악한 인권단체들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지원해온 재정발전소, 인권전문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의 발간 등을 통한 인권담론의 확산, 인권문화행사와 인권현장기행으로 인권감수성을 확산하는 등 소박하게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연락처 : 02-363-5855

[인권부문]

■ 기 관 명 : 북한인권정보센터(www.nkdb.org)

■ 프로그램 : 북한인권아카데미

■ 교육목표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 인권침해 청산을 위한 북한인권 교육

■ 교육기간 : 4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왜 북한인권인가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제2주	한반도 분단체제의 시작과 남북한 인권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제3주	북한 인권의 시대별 변화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4주	일상생활 속 인권실태	임순희(통일연구원 명예연구원)
제5주	장마당을 통해본 북한의 인권실태 변화	박인호(DailyNK 대표)
제6주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제7주	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개선 노력	손광주(DailyNK 통일전략연구소장)
제8주	북한인권 기록과 과거청산	정재호(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장)
제9주	국제인권레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백범석(경희대 교수)
제10주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제11주	북한인권실태	임순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제12주	북한인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재화(북한인권아카데미 교장)

■ 참고사항

<참가비>

- 10만원(대학원생 이상 일반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소개>

-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 인권침해(과거사)청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한 북한 인권침해 기록 DB구축 및 관리, 북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북한 인권피해자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03년 설립하였음.

- 주소 : 서울 종루구 내자동 30 삼호빌딩 3층

- 연락처 : 02-723-6045

[인권부문]

■ 기 관 명 : 국제아동인권센터(www.incrc.org)

■ 프로그램 : Child right advocate 교육과정

■ 교육목표

모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 받는 환경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주도하고 실현할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

■ 교육기간 : 과정별 기간참고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2014년 하반기 기본과정	정규반: 4회기, 총 10시간/기본속성반: 2회기, 총 10시간
2014년 하반기 심화과정	정규반: 7회기, 총 20시간/심화속성반: 4회기, 총 20시간
2014년 하반기 전문가과정	10회기, 총 30시간 - 심화과정 수료 시
2014년 하반기 강사과정	8회기+워크샵2회+과제수행, 총 40시간 - CRA 전 과정 수료시 아동인권옹호전문가 자격 발급 - 교육실습 후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교육 강사진 활동기회
2014년 하반기 KIDS과정	3회기, 총 12시간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2014년 하반기 Youth과정	3회기, 총 12시간 - 대상 :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 참고사항

<국제아동인권센터 소개>

-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InCRC의 모든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 인권교육 선언문을 기반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인권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88 경영빌딩 5층

- 연락처 : 02-741-3132

[인권부문]

■ 기 관 명 : 휴먼아시아(www.humanasia.org)

■ 프로그램 : 인권아카데미

■ 교육목표

인권아카데미는 매년 2번씩 8주간 진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별 주제에 따른 강의와 유엔과 지역인권보호체계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인권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진행

■ 교육기간 : 2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 교육과정(2012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인권개념의 발전과 역사	서창록(휴먼아시아 대표)
제2주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RBA)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제3주	아시아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오원기(코피온 국제협력팀)
제4주	국가개발협력과 인권의 관계	박규희(코이카 ODA 연구실 과장)
제5주	아시아 개발국가의 실재	민경일(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제6주	RBA(실천조별활동 및 발표)	정규선(휴먼아시아 간사)
제7주	수료식	서창록

■ 참고사항

<휴먼아시아 소개>

- 2006년 1월에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에만 부재한 지역 인권보호체계 수립에 이바지하고,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성, 그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옹호활동 및 캠페인, 인도지원을 통한 현장활동, 젊은 인권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출판 간행 등에 참여하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용기빌딩 4층
- 연락처 : 02-723-1673

[인권부문]

- 기관명 : 인권교육센터 들(www.dlhre.org)
- 프로그램 :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인권교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교육 및 인권교육 기획, 시연하기
- 교육기간 : 1개월 동안 매주 5시간씩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자유권, 충분하다고요? - 자유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권교육센터 들
제2주	키워드 미리 살피는 자유권 인권교육의 쟁점	.
제3주	내 삶에서 사회는 왜 필요한가?	.
제4주	인권교육 기법, 인권교육 기획	.
제5주	인권교육 시연하기(1)	.
제6주	인권교육 시연하기(2)	.

■ 참고사항

<참가비>

- 12만원(후원회원 및 청소년은 10만원)

<인권교육센터 들 소개>

-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교육이 가장 인권교육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인권교육의 가치, 철학을 정립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을 알고 인권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맞춤형 인권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6-264번지(와우산로 24갈 49)
- 연락처 : 02-365-5412

[인권부문]

■ 기 관 명 : 난민인권센터(www.nancen.org)

■ 프로그램 : 난민인권강좌

■ 교육목표

난민과 인권을 이슈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서이 우리 모두 각자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느끼고 고민하게 되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것

■ 교육기간 : 1개월 6시간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차	난민은 누구인가	김성인(난민인권센터)
	민족, 국가 문제와 난민	이복기(전북대 영문학)
	종교문제와 난민	김동문(나들목 교회)
제2차	인종주의와 소수자 인권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
	난민, 인권 그리고 나	김성인(난민인권센터)

■ 참고사항

<참가비>

- 5만원(학생, 단체활동가 및 난센 회원 30,000원)

<난센 소개>

- 난민인권센터는 억압과 박해의 벽을 넘어 한국으로 찾아 온 난민들이 한국에서 다시 차별과 배제의 벽 앞에 절망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NGO이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4 난민인권센터

- 연락처 : 02-712-0620

[환경부문]

■ 기 관 명 : 환경재단(www.greenfund.org)

■ 프로그램 : 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국제개발과 환경」

■ 교육목표

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 민감성을 높인다.

나. 일반 개발협력사업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알아본다.

다.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이 현지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사업수행 방법을 알아본다.

라. 개발협력사업의 녹색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기간 : 2개월 동안 매주 2시간씩 총 8회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주	국제개발과 환경 (분야 주요 개념 및 최근 동향)	강민경 전문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제2주	환경주류화 (개념 및 실제적용)	강민경 전문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제3주	녹색 ODA와 회색 ODA (우리나라 ODA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과제)	조공장 연구위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제4주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ODA	임소영 부연구위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제5주	개발협력사업_현지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 (관련 영화감상 및 평가)	-
제6주	사례 I (환경.일반 개발협력사업 구체사례 및 가이드라인)	이창표 (월드비전)
제7주	사례 II (에너지 적정기술 사례 및 가이드라인)	조보영 상임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제8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참여방안 (환경단체 초청방담으로 진행 예정)	양영미 센터장 (녹색ODA 센터)

■ 참고사항

<참가비>

- 5만원(식비 및 교재비)

*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 수강생의 경우, 협의 후 교통비 일부 혹은 전액 지원 가능

<한국인권재단 소개>

- 2002년 설립된 환경재단은 환경문제가 우리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순수 민간 공익재단임.

-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20 동양빌딩 A동 2층

- 연락처 : 02-2011-4316

[환경부문]

- 기 관 명 : (사)한국환경교육협회(www.greenvi.or.kr)
- 프로그램 :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여성 환경체험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 교육목표
 - 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해결
 - 나.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장 마련
- 교육기간 : 총 10회, 48시간 - 하루 3시간 교육(이론 24시간, 실기 24시간)
- 교육과정(2010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 환경에 대한 이해 - 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1, 2	이진종 (한국환경교육협회)
제2회	-인간과 환경1, 2, 3, 4	이진종 (한국환경교육협회)
제3회	- 환경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 - 환경교육의 세계적 동향	최석진 (한국환경교육협회)
제4회	-생활과 환경 1, 2, 3, 4	이진종 (한국환경교육협회)
제5회	-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1, 2, 3, 4	남성덕 (한국환경교육협회)
제6회	(실기교육) - 쉐어링 네이처 프로그램 - 자연체험 프로그램	장상욱 (한국환경교육협회)
제7회	(실기교육) - 교구를 활용한 실내 환경교육 - 수질오염 검사(부영양화, DO, COD)	양경모 (한국환경교육협회)
제8회	(실기교육) - 독서를 통한 환경교육 지도방법 -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이혜정/박미숙 (한국환경교육협회)
제9회	(실기교육) - 지구온난화와 대체에너지	류진수 (한국환경교육협회)
제10회	교육 평가회	이진종 (한국환경교육협회)

■ 참고사항

<참가비>

- 전액무료(단, 교육 참가를 위한 교통비는 본인 부담)

<한국환경교육협회 소개>

- 1981년 설립된 한국환경교육협회는 모든 국민이 자연과 환경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개발·보급사업을 실시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 및 수련활동 등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구인하고 실천하는 단체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64길 7-6(양재동 2-34) 한빛빌딩 지층
- 연락처 : 02-571-2882

[환경부문]

■ 기관명 : 풀빛문화연대(<http://gcnet.or.kr>)

■ 프로그램 : 주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별주부 환경을 건.지.다.」

■ 교육목표

환경의 건전성, 지속성, 다양성을 위한 주부 환경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마을 숲을 가꾸고자 마련

■ 교육기간 : 총 5회, 10시간 - 하루 2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4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숲을 향한 첫걸음] - 건강한 생태계와 도심 숲의 중요성 - 식물의 이해	김지현, 김동욱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제2회	[생태계 교란 동·식물 바로 알기] - 환경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종류와 식별방법, 분포, 피해사례 교육	김지현, 김동욱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제3회	[도심의 숲으로 들어가기] - 오감으로 느껴보는 도심 속 숲 체험 - 숲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 이름 배우기 - 생태자원 모니터링 방법 교육	김지현, 김동욱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제4회	[생태자원 모니터링 실습] - 모니터링 양식에 근거한 생태자원 분류 실습 - 교육장소 내 위해 동·식물 분현 현황 조사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김지현, 김동욱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제5회	[위해식물 제거 실천] - 조사·분포현황에 근거한 위해식물 제거 활동	김지현, 김동욱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 참고사항

<참가비>

- 무료

<풀빛문화연대 소개>

- 풀빛문화운동을 통한 생명존중과 평화의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숲과 자연 속에서 체험적 문화예술과 생태교육 등의 활동을 토해 사회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실천연대를 도모하는 단체임.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20번지 4층

- 연락처 : 02-332-2010

[환경부문]

■ 기 관 명 : (사)생명의숲국민운동(www.forest.or.kr)

■ 프로그램 : 남산 숲가꿈이 교육 「남산에서 숲공동체를 꿈꾸다」

■ 교육목표

도심 한가운데 남북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연결하는 남산이 미래세대에도 건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통한 숲보전관리활동 진행

■ 교육기간 : 총 6회, 12시간 - 하루 2시간 교육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남산 산림생태계 대한 이해	이호영(한국생태계연구소)
제2회	역사 속의 남산과 근대 이후 남산의 변화	최원석(경상대학교)
제3회	남산생태경과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한봉호(서울시립대)
제4회	시민참여 모니터링의 의미와 생태계 관리 사례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제5회	산림관리의 실제와 시민참여 방법	이임영(청솔산림기술사사무소)
제6회	남산을 지속가능한 남산관리와 시민참여	생명의숲국민운동

<실습내용>

- 모니터링 : 식물상(초본/목본), 야생동물, 조류 모니터링, 산림구조 조사 실습, 숲길 모니터링
- 프로그램(기획/운영) : 생태계관리 현장탐장, 남산 숲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현장실습
- 기타 : 사진, 세밀화, 엑셀, 블로그 이용 등 프로그램 활용, 소품만들기 등

■ 참고사항

<참가비>

- 무료

<생명의숲국민운동 소개>

- 사람과 숲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숲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환경단체(NGO)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성산동209-4)11길 5 숲센터 5층
- 연락처 : 02-735-3232

[환경부문]

■ 기 관 명 : 녹색교육센터(www.greenedu.or.kr)

■ 프로그램 : 녹색길라잡이 프로그램, 「녹색길라잡이 과정」

■ 교육목표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하는 건강한 녹색시민교사되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기본 소양과 생태감수성을 높
이 쌓고 녹색교육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 교육기간 : 총 20강, 50시간(현장교육, 워크숍 총 6회 포함)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오리엔테이션 / 녹색시민과 삶	박영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2회	생명과 평화를 말하다	유정길(평화재단)
제3회	알도레오폴드 생태윤리이해	송명규(단국대 사회과학대)
제4회	한반도자연 생태계의 이해	서재철(녹색연합)
제5회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조흥범(서경대 화학생명공학)
제6회	흙속의 작은 우주를 만나다	민동욱(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
제7회	숲 바라보기/ 치유의 숲에서	양경모(교육연구소 흙씨) 송정희(나우숲치유연구소)
제8회	강에서 마나는 희망	허기용(광명의제 21협의회)
제9회	시와 생태감수성	함민복(시인)
제10회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I: 녹색소비와 자원순환	이상훈(감각산 재미난마을)
제11회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II: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이해 - 에너지야 놀자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신동철(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12회	네발로 걸어라 I: 야생동물 기본이해 네발로 걸어라 II: 야생동물 흔적 탐사 자연과 공존하는 삶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과제공유	최현명(야생동물 전문가) 이동철(울진생태연구소) 박그림(설악녹색연합) 육경숙(녹색교육센터)
제13회	녹색교육자의 길 / 수료식	유정반(인천녹색연합)

■ 참고사항

<참가비>

- 17만원(녹색교육센터 회원 12만원, 녹색연합회원 14만원)

<녹색교육센터 소개>

-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교육전문기구로 사람과 자연의 평화로운 소통을 이어주며 생명과 평화, 다
양성 존중 등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건강한 철학과 생활방식을 함께 만들어 가는 운동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2-1 2층

- 연락처 : 02-6497-4855~6

[환경부문]

■ 기관명 : 인드라마 생명살림의 연대(www.indramang.org)

■ 프로그램 : 인드라마귀농학교(불교귀농학교/농사학교)

■ 교육목표

귀농을 준비하고, 마을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지 공부하는 기초입문강좌

■ 교육기간 : 불교귀농학교(기본과정) : 총 14회, 일주일 2회 교육

■ 교육과정(2013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회	세계관(생명평화의 삶, 귀농)	도법(인드라마 상암대표)
제2회	텃밭(작물의 영양 장애와 병충해 예방)	오창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업단 텃밭 대표)
제3회	실습(텃밭 만들기와 작부체계)	
제4회	마을(실상사지역을 통해 본 마을 공동체)	이향민(인드라마 집행위원장)
제5회	경제(살림의 경제학)	강수돌(고려대 교수)
제6회	에너지(대안에너지와 대안적 삶)	이동근(대안기술센터 소장)
제7회	지리산 실상사지역 마을 공동체 탐방, 농장체험	현장실습(2박 3일)
제8회	농사(24절기와 전통농사)	안철환(안산농부, 도시농업위원)
제9회	공동체(공동체의 배움, 삶, 놀이)	김용우(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지역농위원장)
제10회	마을(마을공동체적 생산, 가공, 유통)	윤종상(공동체지원농업센터 대표)
제11회	농사(생명농업의 기본 원리)	이해경(남원귀농귀촌학교장)
제12회	생협(귀농이와 생협이가 만났을 때)	이정호(인드라마생협 상무이사)
제13회	농사(자립을 위한 복합영농 이야기)	김준권(포천농부, 정농회 부회장)
제14회	정책(한국 농업 농촌 현재와 미래)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 참고사항

<참가비>

- 15만원(현장실습 12만원 별도) * 인드라마 정회원, 인드라마생협 조합원 : 24만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소개>

- 인드라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를 받들고 우주만물이 '한몸·한생명'이라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 유지되고 인간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3-10, 혜전빌딩 5층

- 연락처 : 02-576-1886

[환경부문]

■ 기관명 : 에코맘(www.indramang.org)

■ 프로그램 : 에코맘 리포터 양성 프로그램

■ 교육목표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지역소식을 취재·홍보함
- 녹색생활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방법 정보의 제공자로서 환경메신저 역할을 함
- 저널리즘적 역량을 갖춘 수준 높은 에코리더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함
- 지역사회 내 환경운동의 중심 역할자가 됨

■ 교육기간 : 총 9강, 12시간 30분(일주일 1회 교육 - 2시간 30분)

■ 교육과정(2011년 기준)

	내 용	강사
제1강	에코맘 및 에코맘 리포터 소개	하지원(에코맘코리아대표)
제2강	환경저널리즘 찾기('기후변화와 녹색생활의 중요성')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제3강	기사작성실제 I, II (단신, 스트레이트, 인터뷰 등)	문명희 (前, 지역연합신문기자/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제4강		
제5강	기사발굴 I, II (기사의 조건과 요소 성공사례 등)	환경전문기자
제6강		
제7강	에코매거진 시스템(SNS 활용방법 및 영상촬영 방법)	전호성 (에코플래닛 총괄이사/ 환경TV 아나운서)
제8강	종합평가 / 수료식	함정훈 (에코맘코리아 기획국장)
제9강	현장체험 및 기사작성	문명희

■ 참고사항

<참가비>

- 미 표기(전화로 직접 문의)

<에코맘 소개>

- 2009년 설립한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인재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민간단체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1-67, 성도빌딩 B1
- 연락처 : 02-556-3012

<참고 문헌>

- Charles F. Thwing 저, 이형행 역(2002). 대학과 학문 (독일대학이 미국대학에 준 영향). 한국학술정보.
- Hans G. Schuetze 저, 김영주 역(2002). 대학 평생교육 국제비교. 지구문화사.
- Yukiko Inoue 저, 미래교육공학연구회 역(2010). 온라인 교육과 평생학습. 아카데미프레스.
- 강선보, 정해진(2012). 그룬트비의 평민교육사상과 그 실제. 한국교육학연구, 18(2).
- 고영상(2009).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 고인아(2001). '경제적 전환기'의 독일 시민대학의 변화 양상과 역할 연구. 이론과실천, 6(2).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2008). 2008 평생교육백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09).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덕영, 영성훈, 한동구(2003). 독일 시민대학의 사회교육. 현상과 인식. 27(1).
- 김득영(2006). 일본 평생학습도시 프런티어. 학지사.
- 김영아(2008). 학습도시의 사회적 자본 형성: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4(1).
- 김용식(2014). 세계대학 노르웨이 (Norway). 코리아데이타뱅크.
- 김용식(2014). 세계대학 덴마크 (Denmark). 코리아데이타뱅크.
- 김종두(2011). 평생학습도시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2).
- 김지일, 이지혜(2012). 대학에서의 성인학습 지원. 한국학술정보.
- 김창협, 성낙돈(2011). 지역사회 내 NGO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동의 기반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실행연구, 14.
- 김한별(2010).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양서원.
- 나가사와 세이지 저, 김창남 역(2008).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마을 만들기 (일본 공민관의 역사와 실천). 제이앤씨.
- 나가사와 세이지 저, 김창남 역(2009).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마을 만들기 2 (삶과 지역을 만드는 일본 공민관의 실천과 과제). 제이앤씨.
- 노찬옥(2007). 다원주의 시대의 시민교육과 법교육. 시민교육연구, 39(4).
- 니시지마 히로키 저, 진영환 역(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한울.
- 로렌 포프 저, 김현대 역(2008).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작고 강한 미국 대학 40). 한겨레

출판사.

- 박성숙(2010). 독일 교육 이야기(꼴찌도 행복한 교실). 21세기북스.
- 박원순(서울시장)(2001).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 박찬영(2006). 노팅엄 대학-중부 산업도시의 신생 시민대학-. 영국연구, 16.
- 박태준(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종임(2006). 평생학습도시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3).
- 변종임, 이희수 외 7명(2006).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교육과학사.
- 소림문인, 이등장화 외 1명(2010). 일본의 사회교육 평생학습 (풀뿌리 주민 자치와 문화 창조를 향하여). 학지사.
- 손유미(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순재(2010). 덴마크 자유교육(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민들레.
- 송영경(2009). 교육학의 이해. 교육아카데미.
- 양병찬(2013). 지자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 2(1).
- 양병찬, 전광수(2012). 평생교육조례를 통해서 본 개정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0(1).
- 양소영(2014).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직업체험 매뉴얼 작성법). 미디어숲.
- 양은아(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교육과학사.
- 양흥권(201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8(2).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2(1).
- 오혁진(2014).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 이영대(2001).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 발전방향. 기업교육연구, 3(1).
- 이은미, 진성미(2014).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의: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16(3).
- 이지연(2009). 미국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수(2005). 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과 학교교육.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수, 백평구(2010).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평생교육 정책 분석과 시사점: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6(3).
- 임종헌(2011). 세계시민주의와 시민교육: 독일사례.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 장은숙(2008).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문제점 및 활성화 과제-대전 유성구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29(1).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2013).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평생교육 혁신사례 탐방 사전자료집. 서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정승민(2008). '출구'로서의 평생교육-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평생교육적 진단: '출구'로서의 평생교육. 평생교육학연구, 14(3).
- 정애경, 강용철 외 3명(2014). 북유럽 교육기행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행복한 학교). 살림터.
- 정일용(2013). 미국 프랑스 영국 교육제도 (그들이 걸어온 교육의 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지웅(2012).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연구의 기원과 발전. 평생교육학연구, 18(4).
- 정해진(2013). 풀무학교의 근대 교육사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19(3).
- 조인원(2010). 미래대학 라운드테이블 (WORLD CIVIC FORUM 2009).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상덕(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렬(2005). 스웨덴의 평생학습법 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호준(2010). 감성공동체의 실현-대학과 지역사회-. 시민인문학, 19.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2010). 핀란드 교육혁명 (39인의 교육전문가 북유럽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다). 살림터.
- 한국프랑스사학회(2014). 교육과 정치로 본 프랑스사. 서해문집.
- 한승희(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학지사.
- 한승희, 양은아(2007). 인문학 위기론의 재해석: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인문학습의 새 지평. 평생교육학연구, 13(4).
- 한준상(2013). 미래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비전. 한국평생교육, 1(1).
- 허영식, 신두철(2007). 민주시민 교육 핸드북. 오름.
- 현영섭(2013).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게재논문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 1(1).
- 황대준(2005). 교육정보화를 통한 e-평생학습사회 구현: 학습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평생학습사회, 1(2).
- 황성원(2011). 언어,교육: 프랑스 시민대학, “대학 밖 대학” 특성과 운영. 비교문화연구, 25.

편집부(2006). 변신하는 세계의 대학 (뉴스위크 12).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독일 뮌헨 시민대학(2014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민청 용역 번역물(『뮌헨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안내('14년)』

비매출

13370



9 791156 214472

ISBN 979-11-5621-447-2